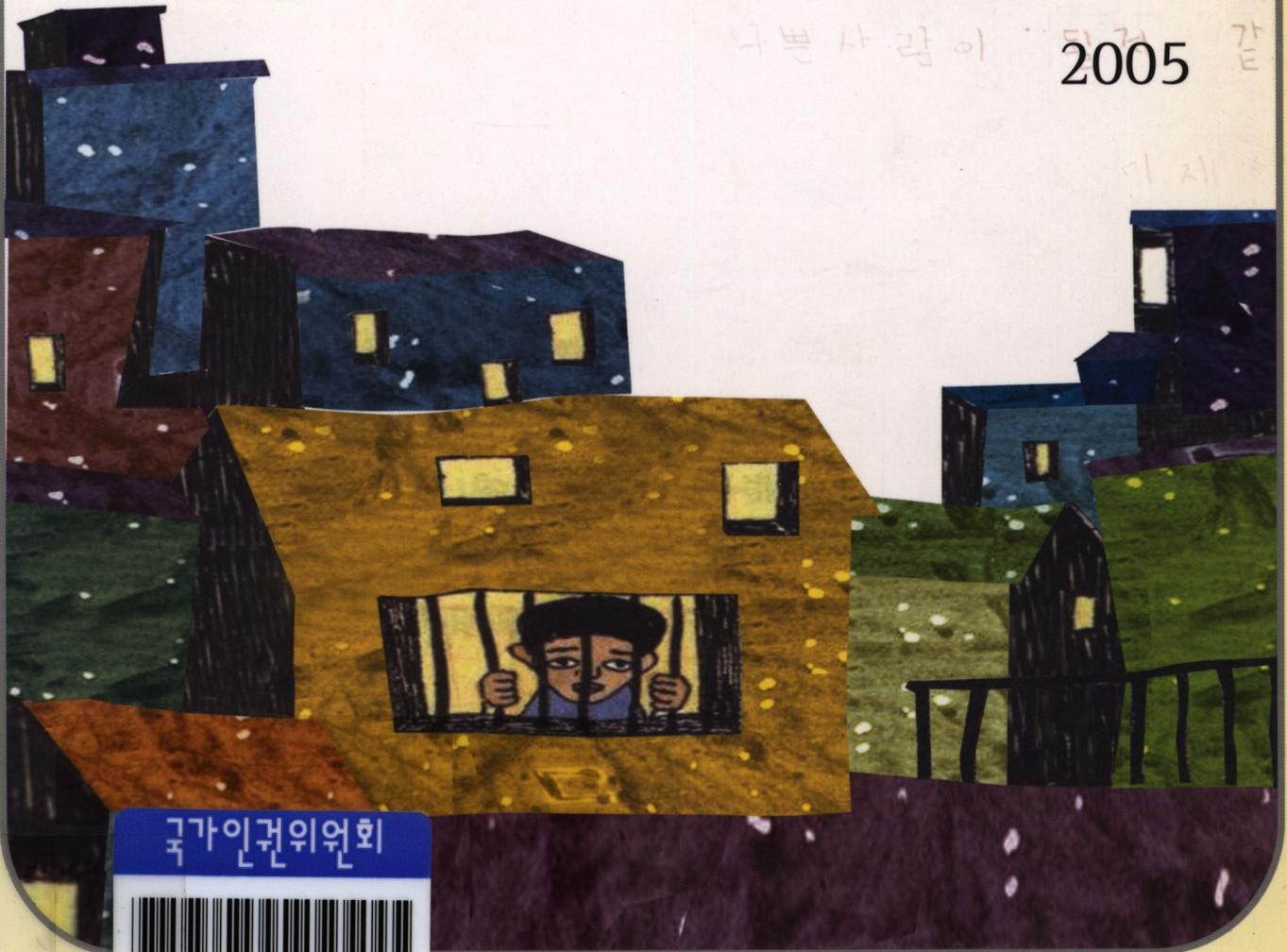




인권교육실천사례 및 문예작품공모 수상작

#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EM014212

인권교육실천사례

◆ 자유상(최우수상) ◆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쑥쑥 자라는 어린이 ..... 3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중학교 교사 임 명 진

◆ 평등상(우수상) ◆

『교실』 인권의 숲이 되다. .... 33  
 백성초등학교 교사 김 주 석

인권! 나부터 지킬래요. .... 65  
 경기도 고양시 저동중학교/신일중학교 교사 어깨동무 팀 (박세현/김은영)

◆ 평화상(장려상) ◆

함께 맞잡은 손으로 만드는 동그라미 ..... 113  
 경상북도 구미 해평초등학교 교사 이 선 아

나는 인권지킴이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 만들래요 ..... 151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초등학교 교사 조 자 경

뿔반 아이들, 일반 아이들 만들기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권 실천 사례 ..... 175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초등학교 교사 박 수 진

인권문예작품 수상작 ..... 207

# 인권교육실천사례

자유상(최우수상)	임명진 (충남 도고중학교 교사)
평등상(우수상)	김주석 (백성초등학교 교사) 어깨동무 팀 (박세현 / 김은영) (경기 저동중학교 / 신일중학교 교사)
평화상(장려상)	이선아 (경북 해평초등학교 교사) 조자경 (경북 옥곡초등학교 교사) 박수진 (경기 도농초등학교 교사)

---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중학교 교사 임명진

## 1. 인권이 숨쉬는 교실 문을 열고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다. 그러기에 누구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어 한다. 더욱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이자 희망이기에 차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듯이 교사는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인류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삶의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한 차이로 끊임없는 갈등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교실은 어떠한가?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했던가!

아이들이 숨쉬는 교실 속에서도 예외 없이 차별과 따돌림, 학교 폭력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함으로써 사회의 이목이 학교로 집중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 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과 교육에 앞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인권교육이 아닐까!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사회적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눈감고 귀막고 인권교육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엔 다행히 인권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학생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도 부족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의 부족 등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묻혀 전혀 숨을 쉬고 있지 못하고 있다.

평소 아이들이 숨을 쉬는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둡고 지친 표정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인권교육을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작년에 일년간 실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인권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스물여섯 명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권 교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 2. 인권이 숨쉬는 교실 만들기 Project

미래의 주인공이자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은 생명의 소중함, 나와 다른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인권을 제대로 알고, 행사하며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인권이 숨쉬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하였다.

### 하나, 인권이 숨쉬는 교실 만들기 **목표** 정하기

- 목표 1.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운다.
- 목표 2. 인권 개념학습장을 활용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력을 기른다.
- 목표 3. 인권동화반 <따로 또 같이>와 연계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제작한 창작동화를 책으로 발간한다.
- 목표 4.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야기와 자료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가)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한 시간씩 적용, 자체 제작한 인권학습장 <인권이 숨쉬는 교실>을 연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운다.**

(나) 인권 개념학습장을 활용하여 다소 어려워하는 인권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정리해보게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력을 기른다.**

(다) 인권 동화반 <따로 또 같이>를 조직하여 동아리 내에서 다양한 인권동화를 읽어 보고, 예전에 읽었던 전래동화나 명작동화 등에서 보이는 인권침해 요소를 추출하여 자신의 입장으로 다시 써보도록 한 후, 자신이 직접 인권을 주제로 한 동화를 창작해 보도록 하여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뿐 아니라 <이구동성>이라는 창작 인권 동화책을 발간한다.

(라) 홈페이지에 인권 동화방, 다시 쓰는 인권 동화방, 인권자료실 등에서 자료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 둘, 인권이 숨쉬는 교실 만들기 **방법** 세우기

- 방법 1.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34차시) 적용
- 방법 2.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34차시) 적용
- 방법 3. 인권학습장 & 인권 개념학습장 개발 적용
- 방법 4.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계지도([www.wizclass.com/imjin1108](http://www.wizclass.com/imjin1108))

(가)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34차시) 적용

- ① 연간학습계획에 의거하여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2학년 2개반 52명(남학생26명, 여학생26명)을 대상으로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나) 인권학습장 & 인권 개념학습장 개발 적용

- ①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인권학습장 <인권이 숨쉬는 교실>을 자체 제작 발간하여 2학년 52명에게 배부한 후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한다.
- ② 인권학습의 기본이 되는 인권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인권 개념 학습장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인권동화반과의 연계지도

- ① 학년 초에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동화반을 개설하여, 다양한 인권동화들을 읽어보고, 직접 인권동화도 창작해 봄으로써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숙된 인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② 연간 활동 내용들을 정리하여 학년 말에 인권동화책을 발간한다.

(라)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계지도([www.wizclass.com/imjin1108](http://www.wizclass.com/imjin1108))

- ① ‘함께하는 즐거운 도덕 시간’이라는 연구자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인권이 숨쉬는 교실 만들기 Project를 설계하고

가. 대 상 : 아산 도고중학교 2학년 2개반 52명

나. 기 간 : 2005년 3월 2일 ~ 2005년 9월 30일 (7개월)

다.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연간학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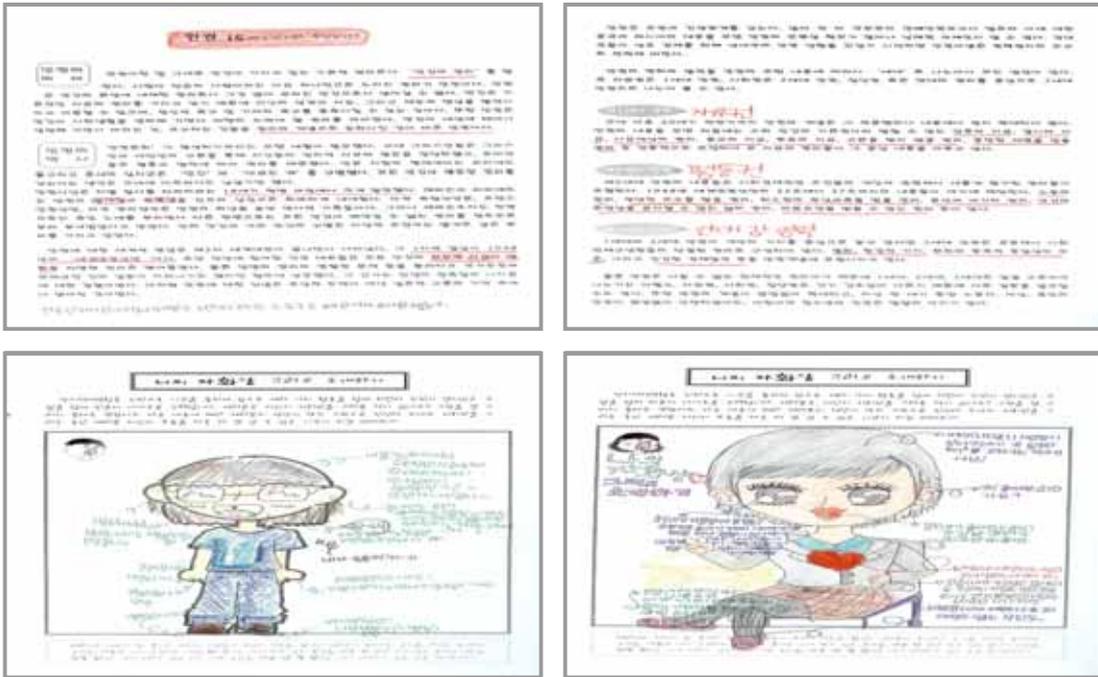
학기	차시	수업 주제	학습유형		수업 방법
			개별	모둠	
1학기	1	자기 자화상 그리고 소개하기	○		그림활용 수업
	2	인권 is?	○		개념 수업
	3	쉽게 풀어쓴 세계 인권선언	○		개념 수업
	4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		그림활용 수업
	5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		개념 수업
	6	인권 마인드맵	○		마인드맵 수업
	7	내가 구조대라면		○	토론 수업
	8	내가 경찰이라면		○	토론 수업
	9	새로 쓰는 인권 동화	○		창작 수업
	10	내가 PD라면		○	토론 수업
	11	인권운동가 인물학습		○	인물카드 수업
	12	전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	토론 수업
	13	준법과 인권		○	토론 수업

학기	차시	수업 주제	학습유형		수업 방법
			개별	모둠	
1학기	14	차이와 차별	○		만화활용 수업
	15	획일주의는 이제 그만		○	토론 수업
	16	등 뒤에 붙은 인권		○	체험 수업
	17	접자로 대화 나누기		○	체험 수업
2학기	1	인권 시 창작	○		창작 수업
	2	인권 퍼즐 PUZZLE!		○	놀이 활용 수업
	3	나는 CF모니터		○	문제중심학습
	4	아낌없이 주는 나무	○		그림활용 수업
	5	양심병역거부 어떻게 보아야하나?		○	토론 수업
	6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약속 정하기		○	모둠별 협동수업
	7	침해하는 인권, 침해받는 인권		○	모둠별 협동수업
	8	도전! 골든벨		○	퀴즈수업
	9	노동상담-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PBL 수업
	10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	모둠별 협동수업
	11	스틸사진 만들기		○	PBL 수업
	12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	토론 수업
	13	PUZZLE! PUZZLE!		○	놀이 활용 수업
	14	인권영화제		○	영상 활용 수업
	15	인권만화-성적소수자에 대하여	○		만화활용 수업
	16	청소년 음부즈맨		○	PBL 수업
	17	우리학교, 우리 교실은?		○	모둠별 협동수업

## 4. 인권이 숨쉬는 교실 속으로 들어가기

목표
1

### 인권 is... & 나의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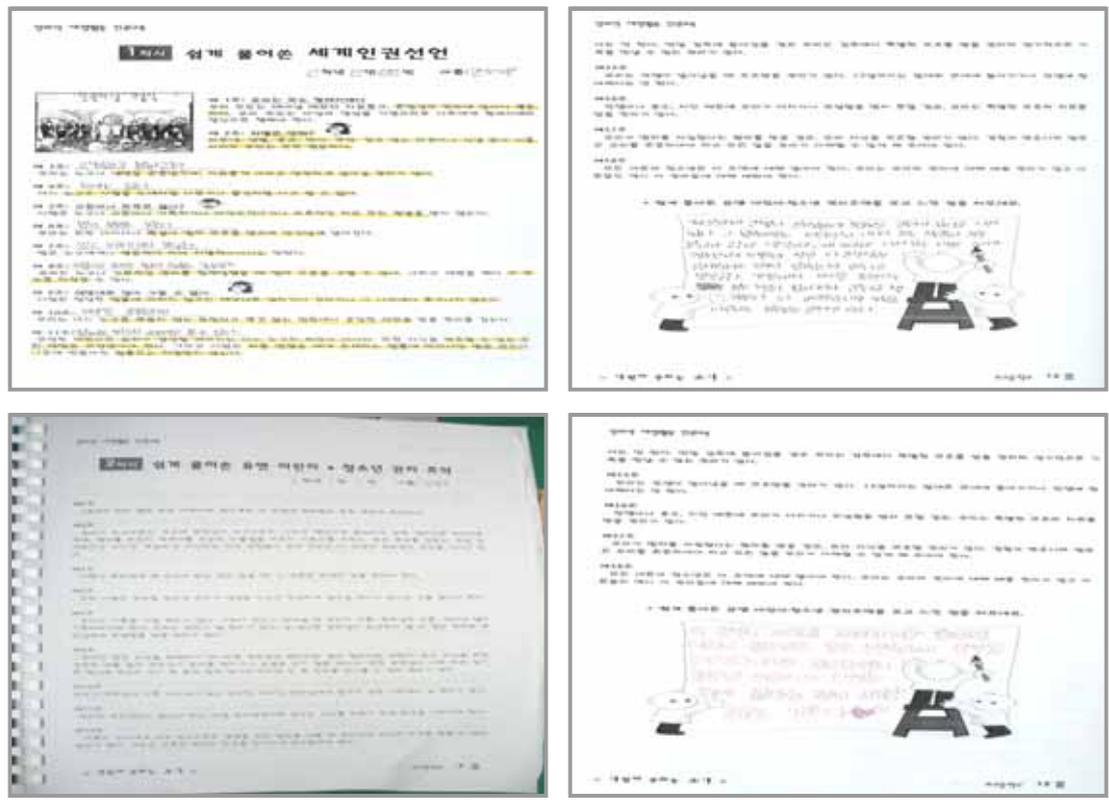
### 인권 is & 나의 자화상 그리고 소개하기

**인권 is** - 인권이란 무엇인가? 란 질문에 대해 아이들은 너무나 생소하게 생각 한다. 그동안 인권에 대해 특별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의 역사에 대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정리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나의 자화상 그리고 소개하기** - 매일같이 거울을 자주 보면서도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목표  
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청소년 권리협약**

지금껏 우리 아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보다 세계인권선언이 언제 발표되었는지, 그 연도가 시험에 나오는 지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만큼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해왔던 것이다. 인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가 시험점수만 잘 받아 사회에 나가면 결국 우리 사회는 또다시 인권이 숨을 쉬지 못한 사회가 될 것 같아,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을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런 조약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고 기쁘다.”고 한 승구의 말 속에서 인권교육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목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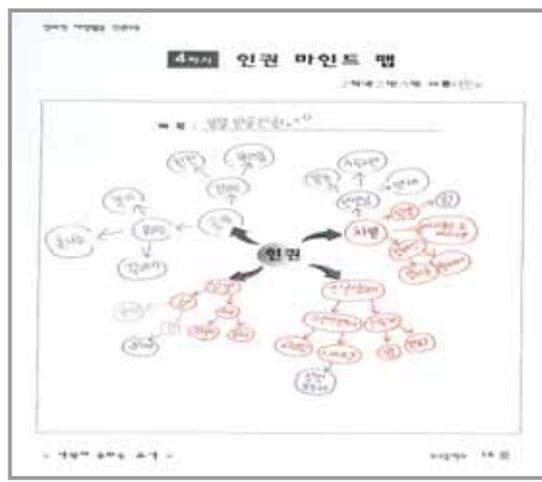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3차시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 나의 인권 진단하기 -

진단 영역	확인할 내용	목표 점
가 격	성인이 평등을 확보할 권리	31.1%
	불공평한 조건의 평등을 받을 권리	31.1%
	평등권이 대우의 평등과 실질을 평등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차별이 없는 평등,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을 받을 권리	31.1%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학 교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평등권이 대우의 평등과 실질을 평등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차별이 없는 평등,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을 받을 권리	31.1%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사 회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평등권이 대우의 평등과 실질을 평등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차별이 없는 평등,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을 받을 권리	31.1%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3차시 나의 인권, 이렇게 진단하고 대처해요!  
- 나의 인권 진단하기 -

진단 영역	확인할 내용	목표 점
가 격	성인이 평등을 확보할 권리	31.1%
	불공평한 조건의 평등을 받을 권리	31.1%
	평등권이 대우의 평등과 실질을 평등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차별이 없는 평등,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을 받을 권리	31.1%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학 교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평등권이 대우의 평등과 실질을 평등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차별이 없는 평등,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을 받을 권리	31.1%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사 회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평등권이 대우의 평등과 실질을 평등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의 철폐, 양성, 적화 등을 위하여 평등 할 권	31.1%
	차별이 없는 평등,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을 받을 권리	31.1%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차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권리	31.1%



5차시 내가 구조대라면

구조대 1명 1명 이름:

구조대 2명 2명 이름:

구조대 3명 3명 이름:

구조대 4명 4명 이름:

구조대 5명 5명 이름:

구조대 6명 6명 이름:

구조대 7명 7명 이름:

구조대 8명 8명 이름:

구조대 9명 9명 이름:

구조대 10명 10명 이름:

구조대 11명 11명 이름:

구조대 12명 12명 이름:

구조대 13명 13명 이름:

구조대 14명 14명 이름:

구조대 15명 15명 이름:

구조대 16명 16명 이름:

구조대 17명 17명 이름:

구조대 18명 18명 이름:

구조대 19명 19명 이름:

구조대 20명 20명 이름:

구조대 21명 21명 이름:

구조대 22명 22명 이름:

구조대 23명 23명 이름:

구조대 24명 24명 이름:

구조대 25명 25명 이름:

구조대 26명 26명 이름:

구조대 27명 27명 이름:

구조대 28명 28명 이름:

구조대 29명 29명 이름:

구조대 30명 30명 이름:

구조대 31명 31명 이름:

구조대 32명 32명 이름:

구조대 33명 33명 이름:

구조대 34명 34명 이름:

구조대 35명 35명 이름:

구조대 36명 36명 이름:

구조대 37명 37명 이름:

구조대 38명 38명 이름:

구조대 39명 39명 이름:

구조대 40명 40명 이름:

구조대 41명 41명 이름:

구조대 42명 42명 이름:

구조대 43명 43명 이름:

구조대 44명 44명 이름:

구조대 45명 45명 이름:

구조대 46명 46명 이름:

구조대 47명 47명 이름:

구조대 48명 48명 이름:

구조대 49명 49명 이름:

구조대 50명 50명 이름:

구조대 51명 51명 이름:

구조대 52명 52명 이름:

구조대 53명 53명 이름:

구조대 54명 54명 이름:

구조대 55명 55명 이름:

구조대 56명 56명 이름:

구조대 57명 57명 이름:

구조대 58명 58명 이름:

구조대 59명 59명 이름:

구조대 60명 60명 이름:

구조대 61명 61명 이름:

구조대 62명 62명 이름:

구조대 63명 63명 이름:

구조대 64명 64명 이름:

구조대 65명 65명 이름:

구조대 66명 66명 이름:

구조대 67명 67명 이름:

구조대 68명 68명 이름:

구조대 69명 69명 이름:

구조대 70명 70명 이름:

구조대 71명 71명 이름:

구조대 72명 72명 이름:

구조대 73명 73명 이름:

구조대 74명 74명 이름:

구조대 75명 75명 이름:

구조대 76명 76명 이름:

구조대 77명 77명 이름:

구조대 78명 78명 이름:

구조대 79명 79명 이름:

구조대 80명 80명 이름:

구조대 81명 81명 이름:

구조대 82명 82명 이름:

구조대 83명 83명 이름:

구조대 84명 84명 이름:

구조대 85명 85명 이름:

구조대 86명 86명 이름:

구조대 87명 87명 이름:

구조대 88명 88명 이름:

구조대 89명 89명 이름:

구조대 90명 90명 이름:

구조대 91명 91명 이름:

구조대 92명 92명 이름:

구조대 93명 93명 이름:

구조대 94명 94명 이름:

구조대 95명 95명 이름:

구조대 96명 96명 이름:

구조대 97명 97명 이름:

구조대 98명 98명 이름:

구조대 99명 99명 이름:

구조대 100명 100명 이름:

**나의 인권 이렇게 알고 대처해요!**

나의 인권 이렇게 알고 대처해요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인권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였다.

내가 구조대라면 -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4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도록 함으로써 차별적이지 않게 빵을 나누어 주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도록 하였다.

목표  
1

다시 쓰는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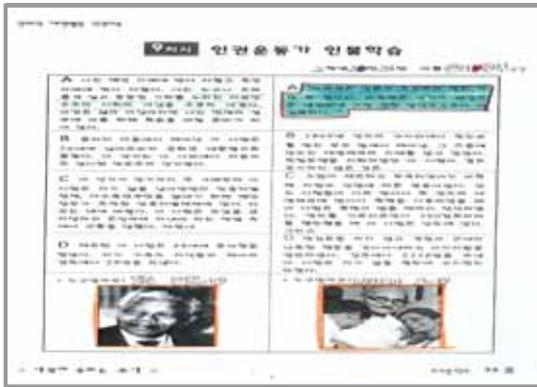
## 다시 쓰는 동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도무지 여유가 없다.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에 시달리고, TV와 컴퓨터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TV와 컴퓨터 대신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동화를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를 인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고, 동화 속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본 다음 다시 써 봄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목표  
1

인권운동가 인물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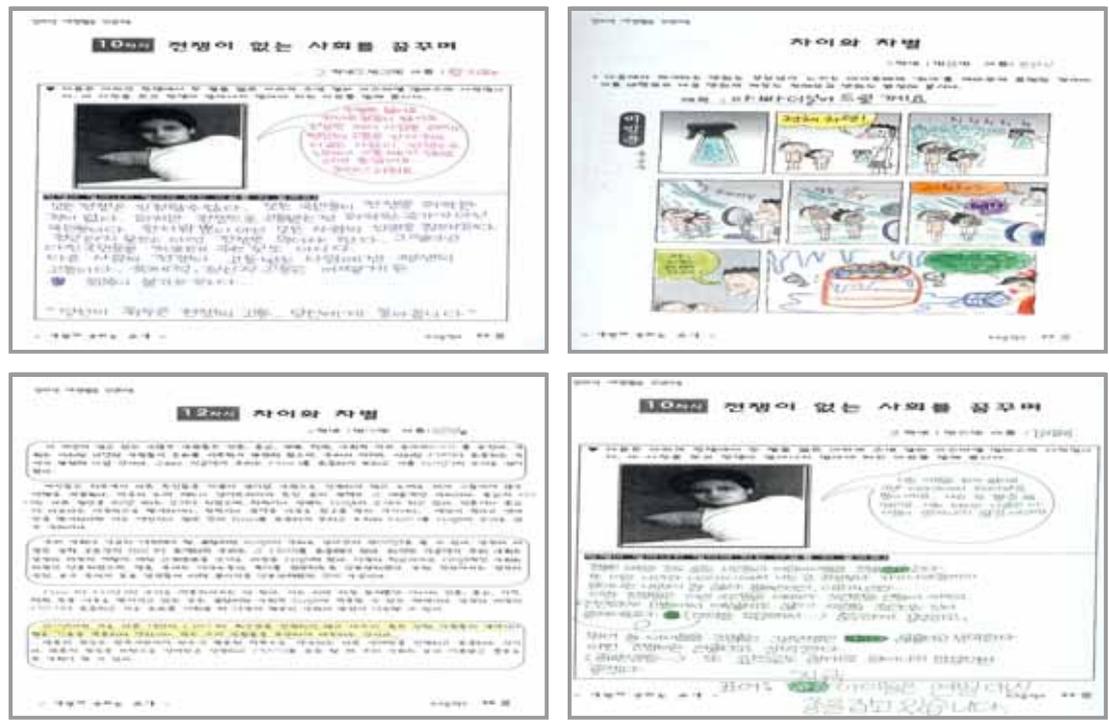
인권운동가 인물학습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각 나라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권 운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만큼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권운동가가 필요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였다.

우선 넬슨 만델라, 마하트마 간디, 아웅산 수지, 마틴 루터 킹목사 등의 인권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다음 미리 제작해 놓은 인권운동가 인물카드의 내용을 순서대로 맞추어보도록 하고, 그 카드내용의 인물이 누구인지 맞추어 보도록 하는 수업을 하였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카드를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 보며 고민한 만큼 아이들도 그 분들을 닮은 인권지킴이로 잘 자랄 것 같다.

목표  
1

차이와 차별 & 전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전쟁 없는 사회를 꿈꾸며 & 차이와 차별

**전쟁 없는 사회를 꿈꾸며** - 이라크전쟁으로 두 팔을 잃은 소년의 사진을 보고, 힘없는 어린소년은 물론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한 생명체이기에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였다. “지금 아이들은 연필대신 총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쓴 지해도 아마 전쟁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차이와 차별** - 가끔 아이들을 보면 차이와 차별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쓸 뿐만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 차이는 차이일 뿐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립해 두는 의미에서 차이와 차별에 대한 용어정의부터 예시까지 괄호 넣기를 통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 다음 만화의 빈 칸을 채워보고 제목도 직접 지어보도록 하였다.



목표  
1

그림으로 보는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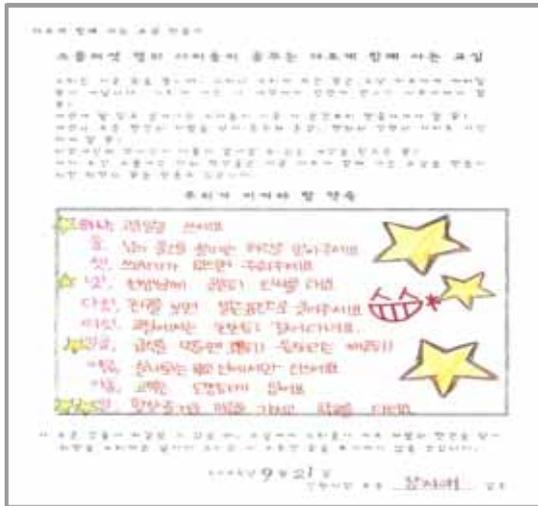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

아이들은 글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 내용을 한 사람에 한 조약씩 나누어 주고 그것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내용을 자신이 생각한대로 자유롭게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처음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목표 1**

**스물여섯 명의 아이들이 꿈꾸는 다르게 함께 사는 교실**



다르게 함께 사는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Best 7



**스물여섯 명이 꿈꾸는 다르게 함께 사는 교실**

스물여섯 명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실, 그리고 존중과 존엄, 평화와 생명이 있는 교실을 꿈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르게 함께 사는 교실에서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을 모듬별로 정해보도록 하였다.

하다보니 아이들이 “~하지 말자,” “~해선 안 된다,” 등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용어나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써 보도록 지도하였다.

목표  
1

등 뒤에 붙은 인권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서

승·소·해·증·증·가·증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차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중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새터민

왜소증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서

승·소·해·증·증·가·증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차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중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장애의 개념	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한센병 환자

척추후만증 장애인

**등 뒤에 붙은 인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차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중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 뒤에 소수자의 표찰을 붙이고 직접 소수자가 되어 어떤 차별을 당하는지 체험해보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차별의 언어를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목표  
1

북한 친구들의 인권은? & 침해하는 인권, 침해받는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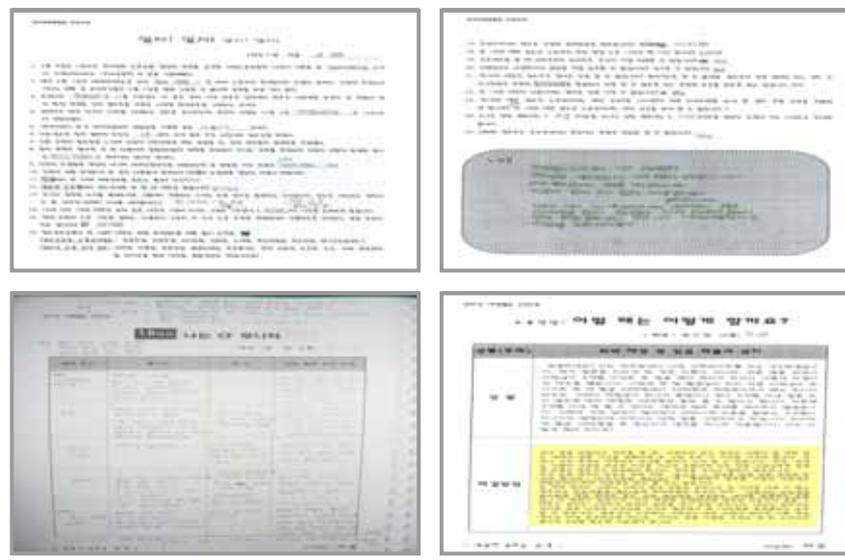
북한 친구들의 인권은? & 침해하는 인권, 침해받는 인권

**북한 친구들의 인권은?** - 북한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가깝고도 먼 북한 친구들의 인권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전에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 X퀴즈로 풀어보게 하였다. 생각했던 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한 문제씩 정답을 맞추어가며 설명을 하고 느낌일지를 써보도록 하였다.

**침해하는 인권, 침해받는 인권** - 자기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던 경우를 적어보도록 하였다. 친구의 일기나 휴대폰을 훑쳐보는 것, 힘이 약한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것 등으로 표현했고, 반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하였더니 동의 없이 일기검사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 휴대폰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는 것 등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 수업을 계기로 그동안 무의식중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행동들이 조금이나마 고쳐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표  
1

인권, 알자! 알자! 알자! 알자!



**알자! 알자! - 노동 상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CF 모니터**

**노동 상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의 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42시간이고 법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은 2,259원이고 만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원칙적으로 노동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수업을 해보았다. 또,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청소년 노동전문상담위원이 답변한 내용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아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근로기준법 등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고 느낀 점도 많았던 수업이었고, 무엇보다 실제 꼭 필요하고 유용한 수업이었다.

**나는 CF 모니터** - 아이들이 눈만 뜨면 접하는 TV광고를 보다보면 무의식중에 눈에 거슬리는 광고 카피가 의외로 많다. 아이들에게 직접 CF를 모니터해보도록 한 다음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 비판해보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인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본 CF에는 의외로 인권침해요소가 많았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인권을 무의식중에 침해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이 많았고, 외모지상주의 일색의 광고를 보며 외모가 예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인권의식이 그새 많이 자랐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목표  
1

인권영화제



**초원이 형에게.**

초원이 형! 안녕?  
 난 정현이라는 중학생이야. 형도 육상의 일종인 마라톤을 하지? 난 조금 다른 단거리 선수야. 난 육상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형은 마라톤이라는 더 어려운 운동을 끈기 있게 해낸 거 같아. 그러니까 마라톤을 끈기로 이겨낸 것처럼 형의 장애도 언젠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형! 용기를 잃지 말고 언제나랑 달리기 한 번 하자.  
 2005년 9월 3일  
 도고에서 정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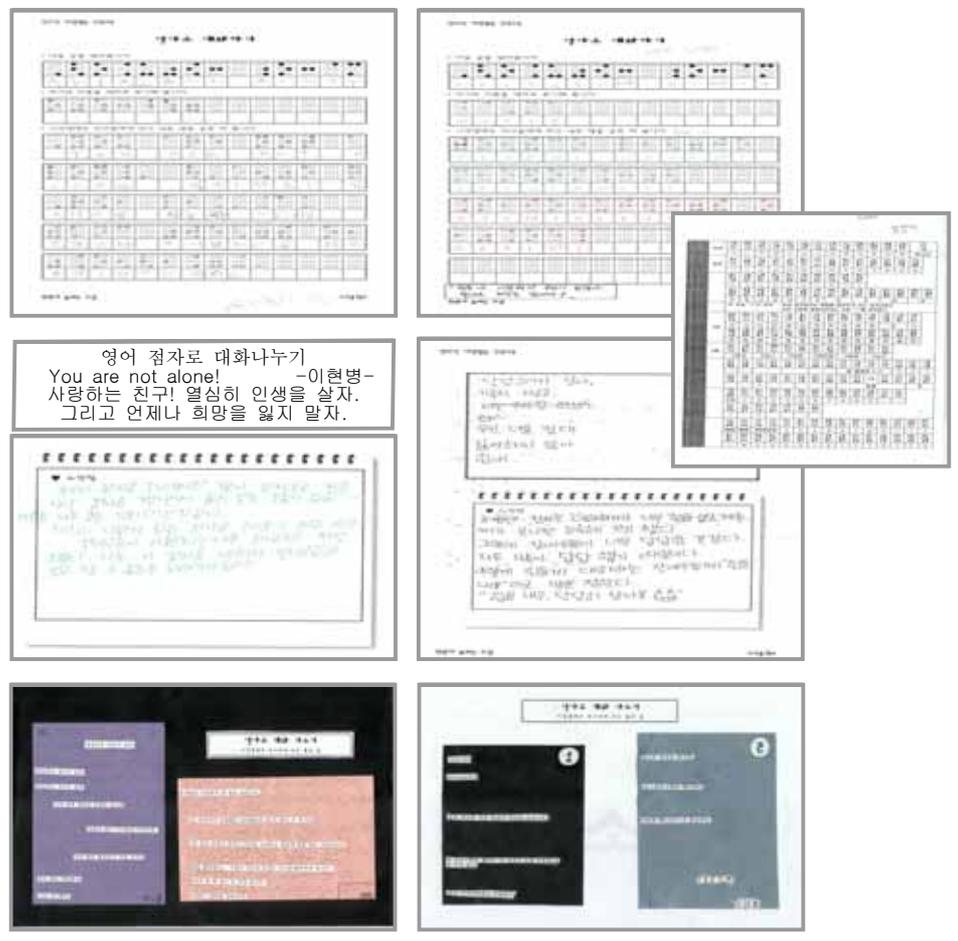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해요.^^  
 마라톤 성공을 축하드려요!**

초원이 오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스무 살이 되면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다섯 살 적 기억은 전부 까먹잖아요. 그리고 다섯 살의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고 지내기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다섯 살 아이의 순수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전 오빠가 다섯 살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길 바래요.♡  
 2005년 9월 3일  
 도고에서 은혜 울림



목표  
1

점자로 대화 나누기



**점자로 대화하기**

시각 장애우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직접 점자를 배워서 점자로 편지도 쓰고 좋은 글도 써보는 수업을 하였다. 이 수업은 인권수업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의 호응이 컸던 수업중의 하나였다. 처음 접하는 점자를 익히며 “이렇게 힘든 점자로 우리들의 시각장애우 친구들이 공부한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 점자도 배우고 수화도 배워서 시각장애우 친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영이의 느낌일지를 보며 우리 아이들이 희망임을 느꼈다.

목표  
2

인권학습장 <인권이 숨쉬는 교실> & 인권교육 개념 학습장 제작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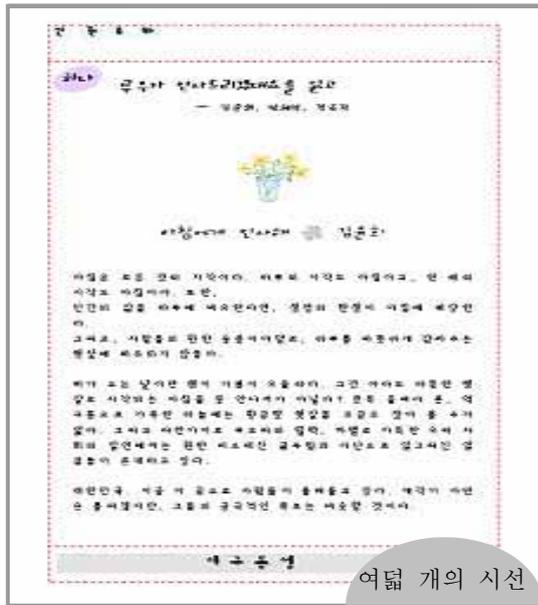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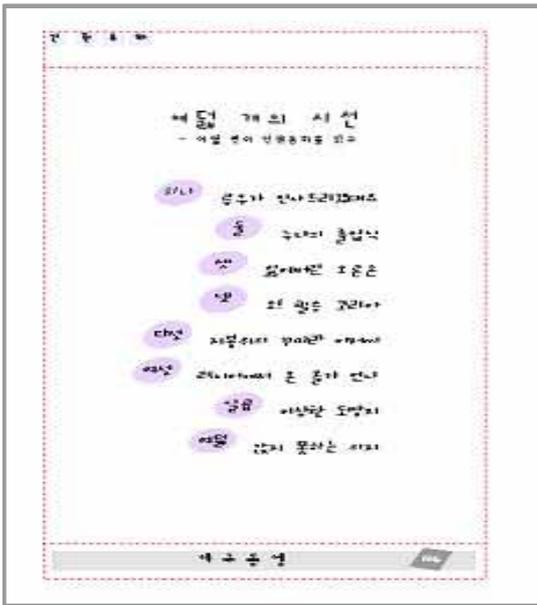


**인권학습장 <인권이 숨쉬는 교실> & 인권개념학습장**

우리 아이들 수준에 인권학습장 <인권이 숨쉬는 교실>을 만들어 학기 초에 배부하여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시작하였다. 연간계획에 맞추어 차시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중심의 인권교육 실시함으로써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직은 기초가 미흡한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 개념학습장을 만들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니 더욱 효과적이었고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였다.





여덟 개의 시선



편집 후기

### 창작인권동화 <이구동성> 만들기

학년 초에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동화반 <따로 또 같이>를 개설하여, 다양한 인권동화들을 읽어보고, 예전에 읽었던 전래동화나 명작동화 등에서 보이는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 자신의 생각대로 인권의 시각으로 다시 써보는 작업을 한 다음, 자신이 직접 인권을 주제로 한 동화를 창작한 것을 편집하여 동아리지 <이구동성>을 발간하였다.



### 찰칵! Welcome to 인권 동화반!

왼쪽부터 선생님, 선생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1학년 나현이, 뒤에 입 가리고 웃는 3학년 다운이, 1학년 귀염둥이 도형이의 얼굴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부반장 희재, 희재 옆에 장차 동화작가 지망생인 윤희, 윤희 옆에 송이, 그리고 가운데 정아를 두고 양옆에 걸모습은 비록 똑같이 보이지만 서로 많이 다른 민희와 서희. ♡



인권동화반에서 읽은  
인권동화 및 관련서적들



블루시아의  
가위, 바위, 보를 읽으며~~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이들이 모여 '인권'이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어 <이구동성>을 만들어내었다.



인권의 눈으로 '돼지책'을 읽어보는 희재

목표  
4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계지도- 인권동화방, 인권동화 다시쓰기, 자료실.



□□ 다시 쓰는 인권동화 - 4월 15일 현재까지 작업한 동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모두 열심히 하였네요. 그 중 3학년 다운이와 윤희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군요. ^^ 다른 회원들도 열심히 동화를 쓰고 있다고 믿어요.  
-임명진-

□□ 인권동화방 -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화를 읽으면 좋을텐데, 요즘 아이들은 책 읽는 것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동화를 탑재하여 컴퓨터로 동화를 읽어보도록 한 다음 인권동화방에 독후감을 써 보도록 하였다.



□□ 인권교육 자료실 - 인권교육 자료실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 등 인권관련 읽기 자료 등을 탑재하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시 쓰는 인권동화 - 여기서 주인공이 말하는 눈이란 현재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앞으로는 물이 되어 눈 속에 꽃을 피우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이랑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쓴 동화의 제목이 '눈이 꽃에게'입니다.  
-김윤희-



□□ **방명록** - 오늘은 하늘이 참 예쁜 날이었습니  
다. 구름도 하얗고 하늘도 파랗고~ 요즘에는  
하늘만 보면 꼭 빠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더라구요.

이제 6월이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겠죠? 여  
름에 하늘이 더 예뻐질지도 모르지만 하늘을  
보면서 잠시나마 하루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는 아니어도 쉬는 시간에 짬을 내서  
하늘 한 번 쳐다보면 기분이 상쾌해 진답니다.  
하하^^

그럼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권동화반 부반장 장희재-



가끔씩 짬을 내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한 자락의 여유가 있는 제자가 있어 기쁘다.  
이젠 하늘만 보지 말고 바람도 한 번 보렴.^^  
아마 잘 보면 보일거야.^^ 그리고 책도~~~

-임명진-



**홈** 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인권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에는 인권 동화방, 다시 쓰는 인권 동화방, 인  
권자료실, 방명록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  
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함께 나눔으로써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  
불어 살아야 더욱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인권 마당이 되도록 하였다.

## 5.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 남아서

새삼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즐겁고 유익한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나 지났다. 실은 작년에도 인권교육을 일년 간 실시하면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필요성을 느껴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연수 등에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권교육을 할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기존의 연구물이나 자료집, 또 연수 중에 배운 좋은 활동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인권학습장으로 수업을 하면서,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들을 하나 둘씩 버려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며 내 스스로 흐뭇한 마음을 가져본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선 모두 개성이 제각기 다른 스물여섯 명이 다르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기위해 오늘도 나는 교실에 남으려 한다.

- 가.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연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 침해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졌다.
- 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하나씩 버리게 되었다.
- 라. 등 뒤에 붙은 인권, 점자로 대화 나누기 등 다양한 장애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키워지게 되었다.
- 마. 인권을 주제로 한 동아리지 <이구동성>을 발간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 능력 신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돕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강순원, 김종수 외, 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해오름  
국가인권위원회, 2002, 우리 교과서 인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3, 십시일反, 창작과 비평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이용교, 2004,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 인간과 복지  
인권운동사랑방, 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2003, 애들아, 인권 공부하자, 사람생각

---

□□교실□□ 인권의 숲이 되다.

---

## I. 시작하며

“선생님. 올해도 인권교육 하실 건가요?”

가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동료 선생님이 나에게 물어왔다.

“선생님. 올해도 인권교육 하실 건가요?”

이 짧은 질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인권교육이라는 특정주제를 정해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은 나에게 학교와 교실이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탐문을 하게 하였다.

눈을 감고 학교 복도에 서면 많은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 지나가는 소리, 저 멀리 앞서가는 아이를 쫓아가는 소리, 저 너머 교실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 아이들의 노래 소리. 그렇게 각 교실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소리로 가득하고 그 소리가 모여 학교를 이룬다.

학교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공간일까?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배려하는’ 속에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은 이해와 깨우침을 통해 진실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실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교실은 학교의 근본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의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이 있다. 즉 아이의 성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공간으로서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수업과 일상생활 등 교실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교육적 관계를 맺고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적 경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실은 인권의 숲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있는 이 학교가 인간으로서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

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많은 교사들의 인권교육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 기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힘들다. 현재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전 근대적 학교 문화가 팽배하고 인권교육 또한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 지식을 강조하는 단순한 인권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근본적 학습인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맺어지는 교실이 인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형성하는 “인권의 숲”이 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인권교육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인권으로 호흡하고, 인권을 지켜갈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숲**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올해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인권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을 저해하는 문화에 대해 바람막이가 되는 인권의 숲을 만드는 것을 인권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실은 “인권의 숲”이어야 한다.

## II. □□인권의 숲□□ 디자인

### 가. 함께 하는 어린이들

백성초등학교 4학년 3반 35명

### 나. 교육 활동 기간

2005년 3월 ~ 2006년 2월<sup>1)</sup>

### 다. □□인권의 숲□□ 활동 절차

---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실천사례는 9월 30일까지의 실천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인권의 숲□□으로서 교실 만들기는 2005학년도에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인권의 숲□□을 위한 인권에 대한 기초 이해 조사

- 학 생 : 기초이해설문지, 학급어린이회의, 면담
- 학부모 : 기초이해설문지, 면담
- 교 사 : 기초이해설문지, 학교·교실 문화에 대한 교사토론

\***깊이 새겨야할 점**

- “선생님. 인권이 뭐예요?”라는 질문에서 초등학교의 인권교육이 학생의 이해에 이르도록 깊이 다루어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음
- 학부모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함
- 학교·교실문화의 변화에 대해 동의하나 학생의 인권 존중방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② □□인권의 숲□□을 만들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

- 단편적, 일회적 프로그램을 지양하는 인권적 교실문화
- 고립된 교실을 벗어난 인권을 위한 교사연대
- 평화로운 가족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

\***깊이 새겨야할 점**

-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인권적 교실문화를 지향함
- 단일교실에서의 인권교육활동의 한계를 탈피하여 학교문화와 지역의 교육 흐름을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함
- 인권교육을 가정으로 확산하여 인권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존엄과 자유, 정의, 평화가 함께 하는 사회를 생각함

③ □□인권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존중받고 배려하는 인권이 숨쉬는 교실
- 함께하는 인권교육
- 인권교육과정 편성 운영
- 아픔을 함께 해요!

\***깊이 새겨야 할 점**

- □□인권의 숲□□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일상생활, 특별활동, 재량 활동, 교과교육의 조화를 통하여 교육 과정 운영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통합적 운영을 함
- 학교 구성원의 효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가 아닌 인권에 반하는 일상의 문화를 논의하도록 하여 인권교육의 확산을 꾀함.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한 준교과 활동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통합반의 학급 특성을 살려 학생의 일상경험에서 출발하도록 장애, 이주 노동자, 제 3세계, 탈북아동 등 소외된 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탐색

### Ⅲ. □□인권의 숲□□ - 인권교육 실천

#### 가. 인권이 숨쉬는 교실

- ▶ 존중받고 배려하는 교실
- ▶ 참여와 토론이 있는 수업
- ▶ 인권의 울림이 있는 개똥이반<sup>2)</sup>

2) 개똥이반은 4학년 3반의 별칭으로서 옛날에는 소중한 이를 개똥이라 불렀음을 알려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권교육 1차시에 교사의 제안과 학급토론을 통해 개똥이반으로 이름을 정함

## 1) 존중받고 배려하는 교실

분명히 아이들은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삼십 오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동일한 학습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수업 속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는 힘들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 싶은 교사인 나의 바람은 서로 빗나가고 있었다. 인권의 잣대 속에 엄밀히 볼 때 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협박과 회유, 심지어 다양한 형태의 폭력까지 가해지면서 교사인 나는 권력을 지닌 자로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학생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아가 서로를 향해 배려하는 교실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의 약속을 정해 실천하였다.

### ❁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의 작은 약속

- 학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 학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학급 활동은 구성원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한다.
- 학생들을 칭찬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한다.
-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도록 기회를 준다.

지금까지 존중을 위한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존댓말과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것이며,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서 그 잘못됨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의 약속을 정해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에 앞서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익혀갈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가치와 태도의 형성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 3월 친구가 자신을 때렸다고(?) 울면서 그 아이를 마구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던 아이가 있었다. 5월까지 이어졌던 이 아이의 싸움에서 나는 속도 많이 상하고 화도 났지만 아이를 꼭 안아주고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도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나쁜 것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툼은 일어나지만 서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그러나 좀처럼 배려의 태도는 형성하기 어려우며 특히 청소, 좌석 배치, 급식실 가는 순서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긴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비록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성숙치 못할지라도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통해 배려의 습관을 익혀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 2) 참여와 토론이 있는 수업

오래전 내가 배워왔던 교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진지한 탐색 없이 가르쳐왔던 인습적인 ‘나’의 교실은 교사중심의 전달위주 수업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전달위주 수업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을 따로 떨어뜨려놓고 권위적 체도에 강제된 채 수동적인 활동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 학생들을 교실의 학습과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탐구자로 존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 자유로운 탐색 활동과 참여

- 학습주제에 대해 학생들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과제 해결을 위해 학습공간의 활용 또한 도서실과 정보실, 학교 운동장 등을 넘나들었다.
- ‘학습목표도달’을 위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과 교사의 대화와 공동탐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효과적 수업을 위한 방법적 논의를 한계를 벗어나 ‘학생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서 출발하였으며, 학생을 변화되어야 하는 사물에서 사고와 인성, 감정 그리고 존엄성을 갖춘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 \*가르침을 준 수업

- “동물의 임신” 단원에서 코끼리와 캥거루, 사람의 임신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아이들은 나에게 교과서에 사진이 제시된 ‘양’의 임신기간을 물어왔다. 나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인터넷 검색을 하자고 성화인 아이들에게 우리가 추론해보자고 하였다. 그때부터 이미 설명된 코끼리, 캥거루, 주머니 쥐, 말, 사람의 임신기간 특징을 해석하고 저마다 ‘양’의 임신기간을 정해 친구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알렸다. 이로서 나와 아이들은 공동의 탐구자가 되었다.

❁ “우리 토론해요.” – 작은 토론과 집중 토론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사안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토론을 통하여 함께 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중요성, 학생의 참여도, 결정의 시기 등에 따라 한 시간이내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작은 토론과 의견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논쟁적 사안일 때는 글쓰기, 의견나누기, 학급회의의 과정을 거쳐 몇 주간의 집중토론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학년 초 왜 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던 학생들은 어느새 학급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 토론해요.”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중앙현관으로 다니면 안 되지요? 어~ 왜 안 되나요?

여러분이 정했나요? 아닐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규칙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먼저 우리 학급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 주장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안 되까요?

(카페 게시판에 올린 토론을 제안한 교사의 글)

다음은 주요 토론 주제이다.

주제명	토론내용	결정사항	시기	비고
일기는 검사를 받아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적인 일기검사는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li> <li>일기쓰기는 검사가 아닌 글쓰기공부이며, 선생님과 대화방법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기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을 쓰고 원하는 사람은 주석샘에게 낸다.</li> <li>학교에서 글쓰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li> </ul>	4월	집중 토론
실내화는 꼭 흰 실내화를 신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에서는 흰 실내화를 신으라고 하지만 더운 여름에도 꼭 흰실내화를 신어야 하는 법은 없다.</li> <li>슬리퍼형태의 실내화는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으며 흰 실내화가 안전한 편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화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li> </ul>	6월	집중 토론
청소당번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당번을 희망대로 정하자.</li> <li>희망대로 할 경우에 쉬운 곳만 많이 모이고, 어려운 곳은 하지 않게 되니 공평하게 정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대로 정하되, 청소 구역별로 인원을 정한다. 인원이 많을 때에는 청소담당별로 대화를 통하여 조정한다.</li> </ul>	5월 9월	작은 토론
급식실 가는 순서를 정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로 순번을 정하거나, 주석샘이 스티커를 쥐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li> <li>번호순으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실 수 있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스티커에 의해서 순번이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번호순으로 순서를 정하자.</li> </ul>	9월 1주	작은 토론

주제명	토론내용	결정사항	시기	비고
9월 9일 캔디데이 사탕을 가져와도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날이라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것은 바르지 않다.</li> <li>▪ 사탕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들간의 우정이 커질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탕을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주고 싶은 사람은 주도록 한다.</li> </ul>	9월 2주	집중 토론
이름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불편한 이름표는 달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li> <li>▪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을 때 벌을 받으니 이름표를 달고 다니자.</li> <li>▪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름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토론 진행중</li> </ul>	9월	집중 토론

나는 우리반이 일기를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일기를 쓰고, 주석쌤께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기를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다면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주십니다  
 그때 잠시 동안이라도 자기의 일기를 보셨다면 자기의 일과 겪은 일이 다 알려지기 때문 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장에 중요한 내용이나 비밀을 쓰고, 선생님이 검사 하셨다면 비밀이 폭로되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김동선3), 4 .11)

### \*“자유”라는 외침

● “자유”, “자유” 서른 다섯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였다. 내뺨에 아이들에게 자유로움을 준다고 생각해왔던 내게 아이들이 자유라고 외치는 소리는 충격적이었다. 여름 실내화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결정 후 아이들이 외치는 “자유”라는 구호는 통제와 규율에 익숙해있던 교실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 자유로운 토론 활동

3) 본 글에서 나온 모든 아동의 인명은 가명임을 밝힙니다.

### 3) 인권의 울림이 있는 교실환경

교실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움을 주는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인권에 대한 기초 이해와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항 안내, 인권관련 도서 안내에까지 학생들이 생각하고 게시하는 복합적인 울림이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 ❁ 똑딱똑딱 인권 짓기

- 학생들이 드나드는 교실 뒷문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월 2회 인권관련 만화, 그림 게시하기



▲ 똑딱똑딱 인권짓기

#### ❁ 소중한 내 생각

- 똑딱똑딱 인권 짓기에 게시된 만화를 보고 내 생각을 작은 종이에 적어 교실에 전시하기

#### ❁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 개똥이반 달력

- 특별한 날만 적힌 달력이 아니라 할머니 생신, 우리 삼촌 결혼, 현장학습 등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적도록 한 달력

#### ❁ 생활속의 인권

-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게시판 걸어놓기
- 쉽게 풀어 쓴 <유엔아린이청소년권리조약> 책받침 선물하기
- <<개똥이반의 인권선언>> 약속 정하여 게시하기
- 평화와 인권이 함께 하는 <<특별한 세상>>
-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알림판 부착하기



▲ 소중한 내 생각



▲ 개똥이반 달력



▲ 특별한 세상

## 나. 함께 하는 인권교육

- ▶ 지역의 교사들과 함께
- ▶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 ▶ 학부모와 함께

인권교육은 우리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종, 국가,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을 추구하는 인권교육에서는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 1) 지역의 교사들과 함께

지역교육청에서 개최하는 연수, 회의 때 만나 뵙는 몇몇 선생님들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공감하는 교사들과 소모임을 꾸려 인권교육에 대한 기초이해, 인권적 학급운영, 학생과의 인권적 대화법과 관련된 연수를 가졌다. 특히 지역교사와 함께 하는 모임은 학생을 존중하는 집단상담, 마음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등 학생을 존중하는 학급운영에 대해 연수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지역교사모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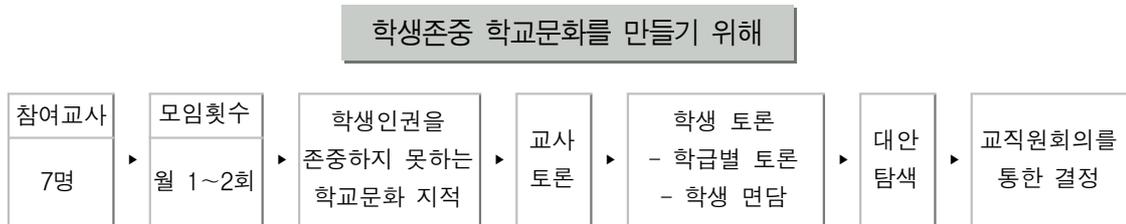
순	월 일	주제명	참가자수	비고
1	2.11	▪ 하나원(탈북자정착지원시설)내 하나둘학교 졸업식 참관	4	
2	2.25	▪ 푸른 숲학교(대안학교) 교사 초청 강연 - 푸른 숲 학교의 일년살이 - 교사와 학생의 관계 - 교육관 및 학급 운영에 대하여	6	푸른숲학교 김은석 선생님
3	3.31	▪ 교실 안의 인권교육, 인권적 대화법 - 인권적 대화법 -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본 학교, 학급 문화	11	인권교육을 위한 이기규, 정용윤선생님
4	4.14	▪ 인권적 학급운영 및 연간 교육활동	12	참가자 발표
5	4.28	▪ 집단상담 1	10	
6	5.12	▪ 글쓰기 교육 -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 아동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글쓰기 교육	30	글쓰기교육연구회 이주영선생님

## \* 참여하는 선생님의 말씀

● **지난번 강의를 듣고 교실에 가서 당장 막대기를 버렸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약속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평상시 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더 관계를 맺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인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2)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의 생활은 우리 학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된다. 제도적인 학생생활규정에서부터 학교 규칙, 교문 앞 생활도우미 등 암묵적인 통제에 이르기까지 학생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 또는 존중하지 못하는 제도와 학교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
- 교사, 학생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공동 탐색
- 비인권적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권적 시각으로 재해석
-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혜택을 주는 일방적 관계에서 학습의 주체, 생활의 주체로 받아들여지게 됨
- 교직원의 학생인권을 의식하는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 의견 수용 및 절차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위한 노력

시기	주제	인권적 시각으로 논의	대안 탐색	결정사항
3월	중앙현관 학생 통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행금지에 대한 이유 알아보기</li> <li>자유로운 통행의 당연함 찾기</li> <li>문제를 의식하지 못했던 교사-학생의 인권을 의식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식실 통행시 중앙현관 집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통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통행은 자유롭게 하되, 급식실 통행시 중앙현관으로 집중되지 않는 통행</li> </ul>
4월	생활도우미의 교문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도우미의 필요성 토론</li> <li>필요성에 알맞은 도우미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도우미가 저학년 등교를 도움</li> <li>폐지에 대한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도우미제도는 유지하되, 벌칙은 주지 않기로 함</li> </ul>
8월	학생 이름표 달고 다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름표 착용의 필요성</li> <li>이름표 착용의 부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기 중 변경은 부담이 있으니 학년말 폐지</li> </ul>	현재 교무회의 논의 중
9월	청소년 단체의 급식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급식 봉사</li> <li>현실적인 학생 봉사자의 필요성</li> <li>소수 학생에게 집중되는 봉사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당 배식을 줄이고 교실 배식을 늘려 봉사자 없는 학교 급식</li> <li>희망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교실 배식</li> </ul>	현재 우리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구체적 대안을 논의 중
9월	“저는 효자입니다.” 인사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인사말 사용의 비교육성</li> <li>학교 특성인 인사말의 타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의견의 수용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ul>	현재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논의 중

3)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과 인권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언제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인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학생들은 가정에서 인권지식과 가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때 학부모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을 때는 곧 암묵적인 반대에 접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동의와 지지가 있을 때 인권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은 더욱 신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3월부터 인권교육활동, 인권지식 등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할 수 있는 인권교육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내용	효과	비고
학부모통신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활동을 지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중한 나”를 이해하는 교육활동</li> <li>- “소중한 나”를 알게 하는 인권교육</li> <li>- 아동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 안내</li> <li>- 교실에서 학생들을 존중해주는 문화 : 인권교육</li> </ul>	인권교육의 필요성 공감	연중 월 1~2회
아동인권 안내	아동인권의 내용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인권적 시각에서 교육활동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li> <li>- 인권의 역사와 기본적인 원리 안내</li> <li>- 국제인권선언과 UN아동청소년권리협약 안내</li> <li>▪ 개똥이반의 인권 선언</li> <li>- 개똥이반의 인권교육활동 안내</li> <li>- 개똥이반이 만든 인권선언 책자 제작 및 배부</li> </ul>	학급의 인권교육 활동 지지 및 후원	학급인권교육 활동안내책자 제작
인권수첩 & 평화가족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수첩 만들기</li> <li>-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세요!”</li> <li>- “나는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li> <li>▪ 평화가족 만들기</li> <li>- 평화가족 만들기 수첩 10가지 안내</li> <li>- 우리 가족의 바램 들어보기</li> <li>- 우리 가족 약속 정해보기</li> </ul>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가족의 상황에 적절한 활동 안내

다. □□인권의 숲□□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 ➡ 인권교육활동을 계획하며
- ➡ 재량활동을 활용한 인권의 숲 만들기
- ➡ 인권으로 따뜻한 교실

1) 인권교육활동을 계획하며

교실이 인권의 숲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교실문화와 함께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않았던 우리 반 학생들에게는 기본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법과 제도, 가치 태도, 현실참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도서와 인권교육단체 자료, 인권교

육관련 논문, 인권교육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다음과 같은 편성 원칙을 세웠다.

❁ 4학년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인권교육활동 계획<sup>4)</sup>

- “소중한 존재인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갖기”를 위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형성

❁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출발하기

- 학생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반으로서 장애아동 이해, 내가 받은 차별, 선생님께 당한 폭력 등 학생의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교육내용으로 구성

❁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기

- 일상생활의 문제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현실의 실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내용 구성함
- 제시된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 교육활동 단계형으로 운영하기

- 인권의 기본적 원리에 기반해서 원리별로 교육활동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형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발달수준, 인권의 이해수준에 적합한 교육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1학기 장애이해교육 후 2학기 보다 심화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배려 등 심화된 학습을 위해 단계형으로 운영함

❁ 학생의 인권교육활동 결과물을 널리 알리기

- 사회참여활동이 쉽지 않은 4학년어린이들의 인권교육활동의 현실참여 대안으로서 인권교육활동 결과물을 홍보하도록 함
- 책자, 영상, 노래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제작과 학생들의 학습활동 결과를 각종 대회의 출품작품으로 제출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함

---

4) 인권교육 전문가들은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보통 5~6학년 정도)의 경우 인권과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이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발달이 가능한 시기로 규정하며, 이 시기부터 인권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구정화 외, 2004)

2) 재량활동을 활용한 □□인권의 숲□□ 만들기

□□인권의 숲 만들기□□ 교육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학교 행사, 수업 시간, 특별활동과 통합하여 인권교육활동을 심화 운영하였다.

인권의 숲 만들기 - 재량활동

기간	관련 교과	활동주제	활동내용	비 고
3월	재량	▪ 나: 자기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중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중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li> <li>-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li> </ul> </li> <li>▪ 차별은 싫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받은 차별</li> <li>- 외모, 성별, 나이에 의한 차별</li> <li>- 차별이 없는 세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존중</li> <li>▪ 국제인권 선언</li> <li>▪ 유엔아동 청소년 권리협약</li> <li>▪ 개똥이반 인권선언</li> </ul>
4월	재량 특활	▪ 너: 타인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으면서도 달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같음과 다름</li> <li>- 정민이, 하늘이 그리고 우리들의 똑같음과 다름</li> </ul> </li> <li>▪ 하늘이는 아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이의 탄생과 아픔</li> <li>- 계속되는 하늘이의 아픔</li> </ul> </li> <li>▪ 수화로 배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과 평등</li> <li>▪ 장애</li> </ul>
5월	재량 특별	▪ 평화·생명 ▪ 북쪽 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은 싫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으로 인한 아픔</li> <li>- 이라크와 미국, 남한과 북한의 전쟁</li> <li>- 우리들의 폭력 : 사랑으로 대해주세요.</li> </ul> </li> <li>▪ 북쪽에서 온 하나원 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기까지의 어려움</li> <li>-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li> <li>-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요!</li> </ul> </li> <li>▪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li> <li>▪ 더불어 사는 세계</li> <li>▪ 사회보장 제도</li> </ul>
6월	재량 특별 미술	▪ 나의 권리 ▪ 미술전시회 나&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li> <li>-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li> <li>- 내 일기는 내 허락을 받고 봐야 합니다.</li> </ul> </li> <li>▪ 미술작품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amp;너 : 소중한 나와 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문화 생활</li> <li>▪ 노동</li> <li>▪ 사생활보호</li> </ul>

기간	관련교과	활동주제	활동내용	비고
9월	재량 과학	▪ 우리반 하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이는 우리와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정보다는 존중받기를 원해요.</li> <li>- 차별이 아닌 차이+배려</li> </ul> </li> <li>▪ 우리반 하늘이, 정민이 영상 제작</li> <li>▪ 피부색으로 우리를 가를 수는 없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함께 읽기</li> <li>-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문예작품 대회 참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과 평등</li> <li>▪ 차이에 대한 관용</li> </ul>
10월	재량 특별	▪ 까마귀 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마귀 소년 함께 책읽기</li> <li>- 까마귀 소년의 아픔 이해하기</li> <li>- 내가 까마귀 소년이라면?</li> </ul> </li> <li>▪ 백성초등학교 학예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마귀 소년을 각색한 연극 참여</li> <li>- “아름다운 세상” 수화 공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과 평등</li> <li>▪ 인권침해에 민감해지기</li> </ul>
11월	재량	▪ 세계의 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말로 배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여러나라의 인사</li> <li>- 이라크 어린이의 아픔</li> <li>- 캄보디아, 북한, 파키스탄 어린이의 아픔</li> </ul> </li> <li>▪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인종, 국가의 매직박스 종이 뽑기</li> <li>- 내가 겪을 아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li> </ul>
2월	교과 통합	▪ 통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로 가득한 학급마무리 잔치</li> <li>▪ 문집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li> <li>▪ 사랑과 관용</li> </ul>

### ❁ 3월 나 : 자기존중

#### ● 소중한 나의 권리

- 나에게 필요한 권리
-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아동청소년권리협약
- 인권 책받침 만들기

#### ● 내가 받은 차별

- 학생들이 겪는 차별 : 성차별, 외모, 나이, 생일, 성적, 형제간 차별, 어린이로서 받은 차별
- 차별받는 사람들
- 차별이 없는 세상 꿈꾸기



❁ 4월 타인존중 수화 배우기 사례

- 수화 배우기 사례 소개
  - 지역 내 인근 대학의 수화동아리 연계
  - 재량활동시 수화 도우미로 참가
- 수화 공연
  - 다른 학급 대상으로 한 수화 공연



❁ 5월 북쪽에서 온 하나원친구들

- 선발된 소수의 학생 참여가 아닌 다수의 학생 참가를 통한 본래의 의미 찾기
- 평화누리상 및 예쁜 글귀상 수상



❁ 6월 미술전시회 :



- 자기존중과 타인존중 공부를 통해 똑같으면서도 다른 나와 친구들을 이해하는 활동을 재량, 특별, 미술 교과를 통합 운영하여 미술전시회 개최
- 학교 공개와 조화를 이뤄 관내 지역 선생님들과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 안내 팸플릿, 홍보 펼침막, 초대 리플렛, 방명록 등의 제작
- 주제를 나&너 로 설정, “나”를 주제로 한 아름다움 탐색

❁ 개똥이반 인권선언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어린이이다.

1조. 우리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조. 우리는 즐겁게 공부할 권리가 있다.  
 3조. 폭력과 따도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조. 학교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5조.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조. 나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7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8조.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9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10조. 우리는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해요!



##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함께 읽기
- 블루시아의 아픔 이해하기
- 2005 Migrant Arirang 영상물 시청 및 기념품(열쇠고리) 배부
- “피부색으로 가르지 말아요!” : 블루시아 아저씨께 쓰는 편지

블루시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날 것처럼 슬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하여 너무 창피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까?

정말 맞도 안 돼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고통을 받은 나라인데, 그래서 폭력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잘 알면서,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그런 차별을 한 것인지 참 어이가 없네요.

(최지민)



### 3) 인권으로 따뜻한 교실

창의적 재량활동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교과활동 이외 잠재적 교육과정의 인권 교육활동을 위해 인권과 관련된 감성적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함께 책읽기, 책 돌려 읽기, 감동을 주는 영화보기, 노래 부르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인권교육활동을 늘 따뜻한 감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 ◆ 함께 책읽기

인권과 관련되어 모든 학생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그림동화 위주로 선정하여 교사의 구연으로 함께 책을 읽었다. 짧은 그림동화는 작은 그림 몇 부분을 스캔한 후 전체 화면을 통해서 보여 주었고, ‘엄마 엄마’,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와 같은 장편 동화는 몇 주의 시간을 두고 하루에 단편 분량씩 읽어주었다. 책을 읽은 후 느낌을 써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책 돌려 읽기

만화로 되어 있거나 학생들이 꼭 집에 가서 읽고 싶어 하는 책은 교사의 구연이 아닌 희망 자순, 변호순 등으로 돌려가며 함께 읽었다. 특히 아이들의 흥미가 있는 책은 자신의 순서를 손꼽아 기다렸으며, 다 읽은 후 학생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 아름다운 노래 뮤직 비디오 만들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을 담고 있는 좋은 노래와 동요를 학생들과 함께 자주 불렀다. 그 중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연출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학년 초 학급 교육활동 사진을 연속 재생하던 영상이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뮤직비디오를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게 되었다.

인권으로 따뜻한 교실 활동

구분	제목	학급활동	비고
함께 책읽기	까마귀 소년	까마귀 소년을 읽고 그 동화를 연극대본으로 각색하여 학예회 공연 예정	학예회 연극 공연
	엄마 엄마	‘나영이네집’ 동화읽기를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인권협약에 대한 조항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블루시아의 가위바위 보	외국인 노동자인 블루시아와 준영이 고모의 이야기를 통해 피부색으로 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함	국가인권위원회 행사 참가
	돼지책	학생의 일상생활과 유사한 이야기로서 성역할의 구분에 따른 차별의 잘못됨을 지적	
	지각대장 존	존을 믿지 못하는 선생님과 존의 이야기를 통하여 학교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이해하게 됨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반 하늘이와 정민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르지만 또 똑같은 이해하게 됨	
	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책으로 세계의 평화와 남북의 분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음	남북어린이 어깨동무행사 참가
책 돌려 읽기	똑똑똑 인권짓기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된 인권관련 만화를 엮은 책으로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음	
	고래가그랬어 15-23호	월간지 “고래가 그랬어”를 학급 어린이들이 돌려 읽음	
	함께 읽은 책	“함께 읽은 책” 중 희망하는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읽도록 함	
감동을 주는 만화영화 보기	도토리의 집	장애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기	일본 실화 - 실사포함
	나무를 심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	애니메이션
뮤직 비디오 만들기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소중히 존재인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개인별 사진을 묶은 아름다운 세상	
	큰 길로 가겠다	백창우 곡의 “큰 길로 가겠다.”를 나머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연출한 뮤직 비디오	

◆ 엄마 엄마를 읽고

콩나물집 엄마에게...

안녕하세요??

전 백성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최미수라고 해요. 전 콩나물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콩나물을 특별히 많이 키우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12명의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하 생략

(최미수)

◆ “큰 길로 가겠다” 뮤직 비디오



집에 가려는데 저 앞에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날 보며 나머리라 할 까봐 아무도 없는 좁은 길로 간다. 왜 요런 좁은 길로 가야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하나? 난 이제부터 누가 뭐래도 큰 길로 가겠다.

라. 인권적 감수성을 기르는 특별활동

- ▶ 초등학생의 인권적 감수성
- ▶ 아픔을 함께 해요!
- ▶ 학교를 넘어 세계를 만나는 아이들

1) 초등학생의 인권적 감수성

초등학교의 인권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초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인권의 기본 개념과 지식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인권을 의식하는 기본 생활 태도, 즉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침해에 민감해지는 인권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을 특별활동의 행사활동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외부 강사초빙 등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호기심이 충만한 수업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였다.

2) 아픔을 함께 해요!

인습적인 학교의 계기교육은 형식적, 행사위주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인권 교육의 취지를 잘 실천하는 특별활동을 위해 학생의 정서에 부합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외부의 교육자원을 학교 안으로 초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폐쇄적인 학교의 경계를 무너 뜨리면서 학생들에게 감수성을 넓히도록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 북한이 아니라 북쪽이라고 이야기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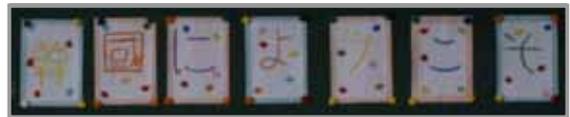
- 일시 : 5월 14일 토요일
- 초빙교사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위원 허지연 선생님
- 내용 :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순회 평화교육, 북쪽 동무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우리와 같고도 다른 점을 알게 됨, ‘남쪽’과 ‘북쪽’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해할 수 있게 됨
- 특징 : “친구야! 안녕” 행사 참여



▲ 남과 북을 오가는 통일버스

❖ 오하요 고자이마쓰 캉코쿠니 요우코소

- 일시 : 6월 17일
- 주제 : 일본인과 재일동포 문화체험단의 교실방문
- 방문자 : 일본인 다나카 노부에씨 외 1명, 재일동포 김령순씨 외2명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체험단 교실로 초대
- 내용 : 한국과 일본의 문화소개 교류, 재일동포가 일본에 가서 남아있게 된 이유, 지금도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재일동포가 직접 설명을 해주으로써 아이들이 재일동포의 아픔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음.
- 특징 : 학생과 방문자들의 문화 공연



▲ 환영행사

❖ 새터민 어린이(탈북 어린이)의 교실 방문

- 일시 : 7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방문자 : 새터민 어린이 7명, 지도교사 2명
- 내용 : 안성 인근에 위치한 하나원에 임시 거주중인 새터민 어린이들을 교실로 초

대, 방과후 방문이라 직접 만남은 이루어지  
지 못했으나, 새터민 어린이들에게 남쪽 어  
린이의 그림을 선물로 주고, 사진으로 남김

- 특징 : 만남을 기대한 학생들이 무척 아쉬워했지  
만 남쪽에 살게 된 북쪽의 어린이들이 우  
리 교실을 방문한 것에 대해 기뻐함.



교실을 방문한 새터민어린이<sup>5)</sup>

❖ 캄보디아를 만나러 갑니다.

- 일시 : 9월 3일
- 초빙교사 : 백성초등학교 이옥라 선생님
- 내용 : 캄보디아 의료봉사와 교육봉사 활동 소개,  
캄보디아가 겪었던 킬링필드의 아픔을 이  
야기 들음,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재능들을 들으면서 같으면서도  
다른 어린이들의 모습을 느끼게 됨, 캄보디아 노래 배우기
- 특징 : 의료봉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경험들을 들으면서 “세계와 함께 하는 인  
권”에 대한 감수성을 열어줌



캄보디아 왕국을 만나러 가요

❖ 하늘이와 정민이는 우리반 친구입니다.

- 일시 : 9월 28일 수요일
- 초빙교사 : 도움반 하늘샘 장무숙 선생님
- 주제 : 하늘이의 생활을 직접 도와주시는 하늘샘  
을 교실로 초청하여 하늘이의 병과 아픔  
들어보기
- 내용 : 하늘이와 정민이가 겪는 어려움과 희망, 4  
학년 3반이 겪는 어려움과 하늘이와 정민  
이에게 바라는 것, 하늘이 그리고 정민이와  
함께 생활하는 4학년 3반의 생활은 일방적  
인 지원에서 벗어나 함께 서로를 이해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과정
- 특징 :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하늘이와 정민이  
를 소개하는 영상<sup>6)</sup>을 제작함



▲ 하늘이의 출생과 우리와의  
만남 안내



5) 새터민 아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였다.

6) “하늘이와 정민이는 우리반 친구입니다.” 영상은 ‘공평세상’ 모두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하늘이와 정민

우리반에는 서른 다섯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늘이와 정민이는 같으면서도 다른 특별한 친구입니다.  
 같은 4학년이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화장실에도 가고 급식실에서 밥도 잘 먹고  
 가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정민이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간처럼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도움반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놀 때 말을 잘  
 합니다. 너무 떠들어서 혼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선생님을 만날 때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말을 안합니다.  
 하늘이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여러 번 했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휠체어 위에 있어야만 하고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묶어줘야 합니다.  
 혼자서 가방을 열수도 없고 알람장도 쓰지 못해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듯이 정민이와 하늘이도 권리가 있습니다.  
 정민이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정민이를 사랑해주세요.  
 그런데 하늘이는 다니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늘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교실문이 좁아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교실에서는 늘 문 앞의 책상에만 앉아야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좁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도서실과 컴퓨터실은 문턱이 높아 휠체어가 가기에 위험합니다.  
 또 연결통로도 이용하기 어렵고 혼자 급식을 먹기에도 불편합니다.  
 우리반이 산책을 하는 스탠드에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정민이와 하늘이는 우리반 친구입니다.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듯이 정민이와 하늘이도 권리가 있습니다.



### 3) 학교를 넘어 세계를 만나는 아이들

학생들의 가르침과 배움의 장은 학교라는 경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부족한 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던 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시작된 학교의 경계를 무너뜨린 “안과 밖을 넘나들기”로 시작된 외부인사 초빙은 점차 재량활동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특히 활동중심의 재량활동과 달리 특별활동은 ‘아픔을 함께 해요’라는 주제를 가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가 읽고(듣고), 제작을 승낙한 후 함께 찍도록 하였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학생들은 비록 뛰어난 솜씨는 아니지만 직접 디지털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시나리오에 맞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다.

이 만남은 평화교육자, 일본인, 재일동포, 새터민, 해외봉사활동가, 사회복지활동가 등을 교실로 초대한 것에서 나아가 아이들과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를 넘나든 만남은 이제 세계를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다.

**학교를 넘어 또다른 세계를 만나는 아이들**

주제	일시	초빙 교원	활동 내용	비고
북한이 아니라 북쪽이라고 이야기 해볼까요?	5월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li> <li>같음과 다름의 이해</li> <li>북쪽 소학교 어린이들의 생활</li> </ul>	북한: 같음과 다름
오하요 고자이마스 캄코쿠니 요우코소	6월	재일동포와 일본 문화교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문화</li> <li>재일동포의 어려움</li> <li>한국과 일본</li> </ul>	일본: 평화
새터민 어린이의 교실 방문	7월	새터민 어린이 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쪽 어린이의 학교 생활</li> <li>북쪽에서 온 어린이들의 희망</li> </ul>	북한·중국: 같음과 다름
캄보디아를 만나러 갑니다.	9월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캄보디아에 대한 이해</li> <li>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생활</li> </ul>	캄보디아: 세계를 향한 인권
하늘이와 정민이는 우리반 친구입니다.	9월	하늘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늘이와 정민이의 어려움</li> <li>하늘이와 정민이의 희망</li> <li>4학년 3반 학생과의 이해를 통한 성장</li> </ul>	또다른 세계: 같음과 다름

#### IV. 훌쩍 커버린 아이들, 변화하는 교사

교실을 인권의 숲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의 성장과 동일한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교육은 존엄한 인간을 대상으로 그의 성장을 돕는 활동으로서 언제나 인권과 함께 있어야 하며 교실은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기르는 인권의 숲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시작한 인권교육활동은 학생들을 훌쩍 커버리게 하였다.

“인권이 뭐예요?”라고 되묻던 아이들이 어느새 “주석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왜 남자 부반장, 여자 부반장 이렇게 이야기하지요?”라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 해요!□□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를 넘나들어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 나와 다른 또 다른 나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인권의 숲 만들기 교육활동은 ‘같음’과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름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계관을 형성해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을 느끼게 된다. “아니거든~ 내 말이 맞거든~”하는 유행어 속에 담긴 다른 존재에 대한 부정이 갖는 폭력성과 하늘이와 정민이에 대한 배려가 자신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때 아직은 아이들과 내가 가야할 길이 더 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짜피 안달아봤자 쓰레기는 주워야하고, 안한다고 해봤자 우리반뿐인데.. 복잡해 지기만하니깐요^^;; 만약 다른반도 다안붙이고 다닌다고해도 그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것같고...

일단 그게 규칙이니깐 우리들이 규칙에 맞게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민호)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름표를 달고 다녀야 하나?”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에서 인권적 감수성은 향상된 듯하지만 인권을 제약하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이름표 달기를 수용하는 모습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의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실천이 계속될수록 교사인 내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교육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인습적인 교실의 교사로 제자리에 맴돌던 나는 교육이란 어떠한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이라는 전달적, 지시적 관계를 거부하고 ‘주석쌤’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난 처음 우리반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라고 했다. 그때 주석쌤은 날 선생님말고 주석쌤으로 부르라고 하셨다. 난 가끔 선생님이라고 그럴 때가 있다. 근데 왜 주석쌤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김동순)

관계의 변화는 주체의 변화를 중용하기에 이르렀고 어느새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면서 교사인 나도 성장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존엄을 이해하고, 지식을 전달받는 도구적 인간관에서 존엄한 학습의 주체로서, 교실의 생활인으로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득문득 권위적 태도로서 학생들을 강제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매만지는 교사이고 싶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 또 다른 시작

학교의 2학기는 늘 바쁘다. 운동회, 학예회, 그리고 현장학습 사실 이렇게 보면 학교는 늘 바쁘다. 지금까지의 **□□인권의 숲□□**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이 지속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렵다. **나 스스로 교사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 늘 되묻지만 답할 수 없다. 누군가는 “그렇게 묻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격려해주지만 이미 몸소 실천하고 계신 동료교사를 볼 때 부끄럽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다만 현재까지 함께 쌓은 교실 문화가 보다 더 성숙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라는 존재를 학습자로, 교실의 생활인으로서 존중하고 자치와 민주, 상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학교의 권위적 문화를 좀더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노력이 아닌 동료 교사들과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위해 토론하고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 또 다른 시작

구분	주제	활동 계획	시기	비고
인권이 숨쉬는 교실	모듬의 자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로 구성된 모듬 : 현재 역할별 구분</li> <li>역할별 구분에서 모듬별 운영 활동 선택 후 자치 활동으로 성장</li> </ul>	10월	
	동화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화를 돌려 읽기</li> <li>함께 읽고 싶은 동화를 교사가 읽어주고 토론함</li> </ul>	항시	아침활동
재량활동	다름에 대한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까마귀 소년을 연극대본으로 각색하기</li> <li>학예회시 연극 공연</li> </ul>	10월	학예회 공연
특별활동	자원 봉사자와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자원봉사자</li> <li>지역복지기관 봉사활동 참여</li> </ul>	11~12월	봉사활동참여
학부모와 함께	평화가족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가족 만들기 수칙 10가지 안내</li> <li>우리 가족의 바램 들어보기</li> <li>우리 가족 약속 정해보기</li> </ul>	11월	
선생님들과 함께	이름표와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름표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학교문화</li> <li>인권적 시각에서 학생이름표와 인사말을 이해하고 대안 탐색</li> </ul>	10~11월	우리학교선생님들과 함께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미래교육의 모습 찾아보기</li> <li>- 일본 자유학원, 영국슈타이너학교, 일본 키노쿠니 학교, 러시아 톨스토이 학교, 태국 무반텍 학교</li> </ul>	10~11월	지역 교사들과 함께

■ 참고문헌 ■

- 강순원 외(2003),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해오름
- 강순원 외(2005), 아래로부터의 한일평화교육, 커뮤니티
- 광주교대초등학교문화연구소(2003), 초등학교 일상문화, 양서원
- 구정화 외(2003),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3), 인권교육모범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3), 인권교육현장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4), 월간 인권 통권 7호, 국가인권위원회
- 김동희 외(2003), 더불어 함께 하는 교실 만들기,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 다산인권센터(2002), 인권과 함께하는 선생님 워크숍 자료집, 다산인권센터
-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서근원(2003), 수업을 왜 하지, 우리교육
- 야간비행(2005), 고래가 그랬어, 야간비행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9), 아시아의 인권교육, 사람생각
- 인권교사모임(2003), 애들아, 인권공부하자, 사람생각
- 인권운동사랑방(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 인권운동사랑방(2005), 똑딱똑딱 인권짓기, 야간비행
-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2003), 땅콩 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 부 록

- 1. 까마귀소년 동극 대본
- 2. 우리반 인권 선언 - 동영상 파일
- 3. 큰길로 가겠다 - 동영상 파일
- 4. 아름다운 세상 - 동영상 파일

까마귀 소년 동극 대본

나오는 사람 : 해설 및 연출, 까마귀소년, 이소베선생님  
 선생님 마귀, 나무  
 여자친구 남자친구  
 학예회 사회자

**#1 입학식장**

노래 : 학교종

입학식을 알리는 대형 간판과 학년 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고,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어린이들이 학년반을 알아 보고 있다.

선생님 : (지시봉을 들고 위압적으로) 자! 지금부터 백성초등학교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신입생들을 데리고 이 앞으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1 : (신입생의 손을 잡고)이리와. 얼른 줄서자

부모님 2 : 너! 선생님 말 안들으면 안돼. 큰 일난다.

부모님 3 : 칠판에 이름 적히지마. 적히면 나중에 혼난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조희대앞에 줄을 선다.

까마귀소년 : (두리번거리며 들키지 않게 마룻바닥 밑으로 들어가 숨는다)

해설 : 학교에 간 첫날. 아이 하나가 없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학교 마룻바닥 밑에 숨어 있어서. 깜깜한 곳에 말이야. 우리는 그 애를 '땅꼬마'라고 불렀지. 이 낯선 애는 선생님을 아주 무서워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 아이들도 무서워했어. 그래서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했지.

**#2 운동장**

여자 어린이들은 운동장에서 꼬마야 꼬마야를 하고 놀고 있고, 남자 어린이들은 말타기 놀이를 하고 있다. 말타기 놀이에서 문철이가 달려가자 찌부가 된다. 이때 물끄러미 까마귀소년이 쳐다보며 지나치고 간다.

친구 1 : 땅꼬마다. 오늘도 학교에 왔어.  
 친구 2 : 재는 말도 안해.  
 친구 3 : 바보 멍청이라서 그래.  
 친구 4 :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선생님이 등장하며 아이들이 선생님 주위로 몰려든다.  
 친구들 : (선생님 주위로 몰려들며)선생님  
 선생님 : 하하하.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이 오니까 신나지. 오늘 숙제 다 해왔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자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줄 맞춰라. 공부하러 가자. (자신있는 모습으로 아이들 데리고 간다.)  
 친구들 : (군대식 목소리로) 네. 선생님.  
 까마귀소년 : (아무말 없이 뒤에서 멀찌감치 쫓아간다)  
 노래 : “펼쳐를 위하여” 1절.  
 해설 : 그 애는 공부할 때도 따돌림받고 놀때도 따돌림받았어. 땅꼬마는 늘 뒤처지고 펼쳐라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톨이였어. 땅꼬마는 사팔뜨기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 보기 싫은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말이야.

### #3 비가오는 숲길

빗소리가 들리며 아이들이 하나둘 씩 집으로 향한다.  
 노래 : 비가온다  
 부모 1 : (우산을 쓰고 아이를 데리고 온다)  
 친구 1 : 아빠  
 부모 2 : 아이구. 우리 강아지. 공부 열심히 했어.  
 친구 2 : 엄마. 나 오늘 상받았어.  
 친구 3,4,5 : 우산을 펴고 집으로 향한다.  
 까마귀 소년 : (도롱이를 쓰고 묵묵히 집으로 간다.)  
 숲길을 걸어가며 숲에 있는 모든 것들과 친구가 된다. 나무밑에 앉아 있기도 하고 벌레들과 이야기 하기도 한다. 나무들이 다가와 포근히 감싸안아준다. 벌레도 기어온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노래를 들려준다. 까마귀 소리를 들으며 까마귀 소년은 그 소리를 따라한다.  
 엄마 : 애야~  
 까마귀 소년 : (엄마를 향해 달려간다.)  
 아빠 :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런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숲 구우러 가는데 도와줄수 있겠니?  
 까마귀 소년 가족 :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

### # 4 이소베 선생님의 등장

해설 :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 다섯 해가 흘렀어. 그리고 우리는 6학년이 되었지 졸업반이 되고 이소베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 얼굴에 늘 웃음기가 가지지 않는 다정한 분이셨지. 이소베 선생님 자주 학교 뒷산에 올라갔어요. 땅꼬마는 뒷산

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꽃밭을 만들 때도 모든 꽃이란 꽃은 죄다 아는 걸보고 선생님 눈이 등그레 졌어.

친구 1 : 이소베 선생님 제 그림좀 봐주세요.

이소베 : 우. 정말 잘 그렸구나. 이렇게 너의 모습을 나타내다니. 훌륭하다.

친구 2 : 이소베 선생님. 우아한 저의 모습이랍니다.

이소베 : 오 공주님. 진짜 공주병에 걸린 네모습을 잘 그렸구나.

친구 2 : 아이 선생님!

땅꼬마 : (머뭇거리며 그림을 살짝 들고 있다.)

이소베 :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아름답구나. 우리 교실 벽에 걸어놔야 겠다.

이소베 선생님과 땅꼬마는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땅꼬마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도 하고, 땅꼬마를 일어나서 안아주기도 한다.

해설 : 이소베 선생님은 땅꼬마랑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그해 학예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 # 5 학예회

사회 1 : 지금부터 백성초등학교 학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순서는 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회 2 : 네. 이번 순서는 4학년 소퐁이반의 몸짓공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몸짓 : 얼굴찌푸리지 말아요 노래에 맞춰 몸짓을 한다. -1절

사회 1 : 다음은 다음 순서는....

사회 2 : 아니 저게 누구냐? 저 멍청이가 무얼 하러 저기 올라갔지?

이소베 : 땅꼬마는 까마귀 울음 소리를 흉내낼 것입니다.

친구 1 : 울음소리?

친구 2 : 까마귀 소리?

이소베 : 땅꼬마는 새끼까마귀소리, 엄마 까마귀 소리, 아빠까마귀 소리, 홀로 고목에 앉아 우는 까마귀 소리를 흉내낼거예요.

까마귀 소년 : 소리를 흉내낸다.

이소베 : 땅꼬마는 이 소리들을 동틀무렵부터 타박타박 하루도 빠짐없이 타박타박 걸으면서 숲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의 놀림. 괴롭힘, 선생님의 무관심속에서 땅꼬마는 학교로 왔습니다.

친구들 : 땅꼬마 미안해. 선생님 죄송해요.

부모님들 : 함께 박수를 친다.

## #6 아름다운 세상

수화 공연 아름다운 세상.

우리 모두 소중한요. - 가림판

아이들 한명 한명의 얼굴이 담긴 큰 걸개그림을 흔들.

---

인권! 나부터 지킬래요.

---

경기도 고양시 저동중학교/신일중학교 교사  
어깨동무 팀 (박세현/김은영)

## I.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학생들의 학력 경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준비한 학원가에서 아이들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집단 따돌림, 지나친 입시경쟁, 갈등의 폭력적 해결,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친구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며, 생명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평화와 연대를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인권이 무엇이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접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선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직접 나서본다면, 인권교육은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II.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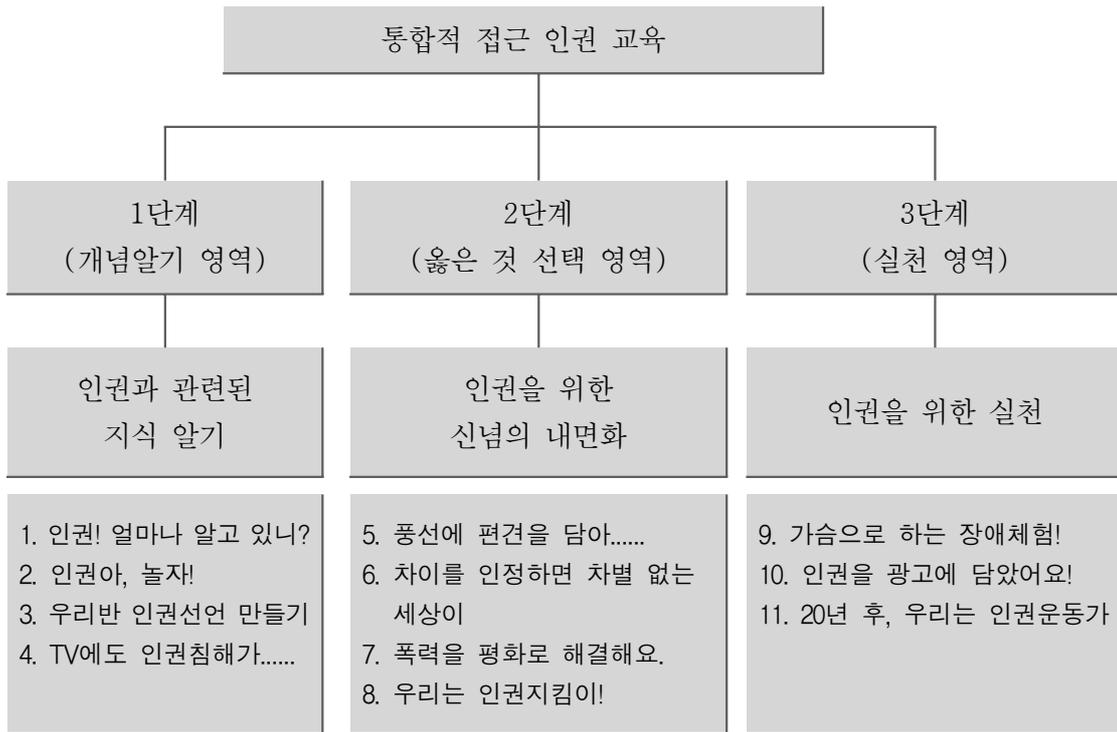
인권을 생활 속에서 지키기 위해 알고, 느끼며, 실천하는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권교육의 방향을 잡았다 다음은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첫째, 인권의 의미, 인권 침해사례, 세계인권선언 등을 알고,

둘째,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을 버리기 위해 역할극, 토론 등을 통해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셋째, 다양한 장애체험, 인권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제작, 인권명함 만들기 등을 통해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III.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 계획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 계획

인권교육영역	프로그램	주요방법
1. 인지적 영역	1. 인권! 얼마나 알고 있니?	마인드맵 / 학습활동지
	2. 인권아, 놀자!	인권 퀴즈만들기
	3. 우리반 인권선언문 만들기	협동학습 / 학습활동지
	4. TV에도 인권침해가.....	사례발표 / 학습활동지
2. 정의적 영역	5. 풍선에 편견을 담아.....	체험학습 / 학습활동지
	6.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역할극 / 학습활동지
	7. 폭력을 평화로 해결해요.	미완성자료완성 / 협동학습
	8. 우리는 인권지킴이!	탐구공동체토의학습 / 학습활동지
3. 실천적 영역	9. 가슴으로 하는 장애체험!	체험학습 / 학습활동지
	10. 인권을 광고에 담았어요!	미디어활용미제작 / 학습활동지
	11. 20년 후, 우리는 인권 운동가	인권명함만들기 / 학습활동지

## IV.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 실천 사례

### A. 실행 대상, 기간

- 1) 대상 : ○○중학교, 2학년 7반 39명
- 2) 기간 : 2005. 3. ~ 2005. 7.

### B. 실행 전 설문조사

조사 내용	방 법	대 상	시 기
인권의식 실태 조사	질문지법 이용	○○중학교, 2-7, 39명	2005. 3.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전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이다.

질 문	응 답 수 (N = 39)
1. 최근 인권에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졌는데, 자신도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1 ② 14 ③ 19 ④ 5
2. 자신의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어떤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①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장애인 차별 ③ 양성 평등 ④ 아동 학대 ⑤ 외국인 노동자 차별	① 8 ② 14 ③ 8 ④ 3 ⑤ 6
3. 자신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0 ② 14 ③ 24 ④ 1
4. 자신은 평소에 인권 관련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① 1 ② 21 ③ 14 ④ 3
5.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진다면 어떤 수업방법이 좋겠습니까? ① 강의법 ② 시청각 교육법 ③ 토의법 ④ 토의+자료탐구	① 4 ② 20 ③ 3 ④ 12

질 문	응 답 수 (N = 39)
6. 인권교육을 받고 나면 자신의 생활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 될 것 같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1 ② 27 ③ 10 ④ 1
7.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어떤 노력을 하고 싶습니까? ① 인권 관련 서명운동 ②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활동 ③ 인권 침해 당한 사람들에게 후원금 보내기 ④ 인권 침해 문제 항의메일, 게시판 글올리기	① 10 ② 10 ③ 6 ④ 13
8. 인권단체 회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참여한다. ③ 참여하지 않겠다. ④ 모르겠다.	① 8 ② 2 ③ 1 ④ 28

질문1> 학생들의 인권의 관심은 ‘그렇다’ 14명, ‘그저 그렇다’ 19명으로 나타나 예전보다는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질문2> 학생들은 우리사회의 인권문제 중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질문3>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은 ‘그저 그렇다’가 24명으로 나타나서, 인권존중 생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질문4> 인권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조금 알고 있거나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다.

질문5> 학교에서 인권수업은 시청각 교육법과 토론+자료탐구 등 방법을 선호하였다.

질문6> 인권 교육을 하고 나면 생활 속에서 더 많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7> 인권존중을 위해서는 서명운동 캠페인, 게시판 글 올리기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질문8> 인권단체 회원으로 활동할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르겠다’ 28명으로, 아직은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인권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우선 인권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지키도록 의지를 심어주며, 타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천해야겠다는 결과를 얻었다.

## C. 실행 사례

### 1. 인권! 얼마나 알고 있니?

#### 학습목표

- ① 인권의 개념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다.
- ③ 인권의 발달을 촉진시킨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용 강의 자료, 유니세프-권리를 위한 만화, 전지, 필기구

#### ● 주요 활동 과정

- 도입(5분)
  - 인권의 소중함 알리기 : 유니세프-권리를 위한 만화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전개(35분)
  - 인권 개념 알기(교사용 강의자료)
  -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및 의무 파악하기
  - 인권 발달을 촉진시킨 역사적 사건
  - 인권 주요 내용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 정리(5분)
  - 마인드 맵 자료 게시판에 부착하기
  - 차시 예고 : 인권아, 놀자!

#### ● 학습 활동지

- 권리와 의무가 만났을 때



### 1. 인권이 뭐야?

#### 1) 인권이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성별, 인종별, 계급별,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 2) 특징

- 사람이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권리
-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어느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음
- 인권과 자유, 정의 그리고 평등은 나누어질 수 없는 공통의 목적성을 지닌 것으로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함

### 2.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자유권으로 분류됨. 자유, 안전, 고문과 노예화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참여, 의견 사상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
- 2) 경제적 사회적 권리 : 사회권으로 불림. 노동권, 교육권, 자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과 음식, 주거,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지권.
- 3) 환경 발달권 : 지구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보존하여 지나친 개발을 막고 모두가 적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 3. 우리의 사회적 의무

- 1) 가정 : 자녀출산 및 양육, 교육할 의무
- 2) 학교 : 교칙을 준수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히 이수할 의무
- 3) 국민 : 조세, 국방, 시민, 환경보전의 의무 등

인권에서는 자기권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 함께 지켜주는 사회적 의무가 중요함

▶ 활동사례



◀ 권리보호를 위한 만화보기

마인드맵을 제작하는 학생들 ▶



◀ 교실 게시판에 붙여진 마인드맵

## 권리와 의무가 만났을 때...

학번: 201111 이름: 정민경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이런 의무가...
▶ 나는 말할 권리가 있어요.	▶ 친구가 말할 때 잘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싶어요.	▶ 내가 떠들어서 친구들이 수업듣는 것을 방해하면 안돼요.
▶ 돈이 없어도 점심 먹을 권리가 있어요.	▶ 점심 굶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야해요.
▶ 나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 놀이전에 항말을 하고 놀아야해요
▶ 장애인을 도와 권리가 있다	▶ 내 주변의 장애인을 도와줘야
▶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 약속과 시간을 맞추어야 해요
▶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 내가 친구들이랑 떠들면 안돼요

권리

의무

## 2. 인권아, 놀자!

### 학습목표

- 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알 수 있다.
- ②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다.
- ③ 지금까지 배운 인권 내용으로 퀴즈를 만들 수 있다.

### ● 준비물

- 국가인권위원회 CF, 인권퀴즈 만들기 위한 필기도구

### ● 주요 활동 과정

#### ➤ 도입(5분)

- 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국가인권위원회 CF)
- 학습목표 확인하기

#### ➤ 전개(35분)

- 생활 속 인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찾기
  - 어린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철없는 부모
  - 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 아저씨
  - 점심 굶는 학생을 방치하는 학교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
  - 킹목사,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탈렌트 김혜자,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기독교 단체
- 인권 관련 퀴즈 만들기(조별)
- 인권 의미, 권리와 의무, 역사적 사건, 노력한 분들을 모두 포함하여 인권퀴즈 만들기

#### ➤ 정리(5분)

- 인권퀴즈 풀고, 게시판에 부착하기    - 차시 예고 : 우리반 인권선언문 만들기

### ● 학습 활동지

- 퀴즈! 퀴즈! 인권을 정복하자



◀ 인권퀴즈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학습활동지>

### 퀴즈! 퀴즈! 인권을 정복하자

조별로 발표한 인권관련 내용을 이용하여 퀴즈 문제를 만든 다음, 퀴즈 출제 용지에 퀴즈를 내고 다 같이 풀어 봅시다.

퀴즈! 인권, 아마 이런 것은 모를거야

출제 : 7 반 4 조 이름 :

문제	권리 중 자유, 안전, 고문에 자유의 권리는?
정답	자유권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중, 사회권으로 불리고, 노동권 교육권 지체 없음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불리며 적절한 생활수준과 음식물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권리는?
정답	경제적 사회적 권리
문제	인권이란
정답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써 누구나가 지는 기본적인 권리
문제	인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 두가지는?
정답	권리, 의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는?
정답	사회적 권리, 정치적 사회의 권리, 환경보존 권리
문제	권리의 3요소는?
정답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환경적 권리

### 3. 우리반 인권선언문 만들기!

#### 학습목표

- ①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 ②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우리반이 지킬 인권선언문을 만들 수 있다.

#### ● 준비물

- 세계인권선언 애니메이션자료, 전지, 필기도구,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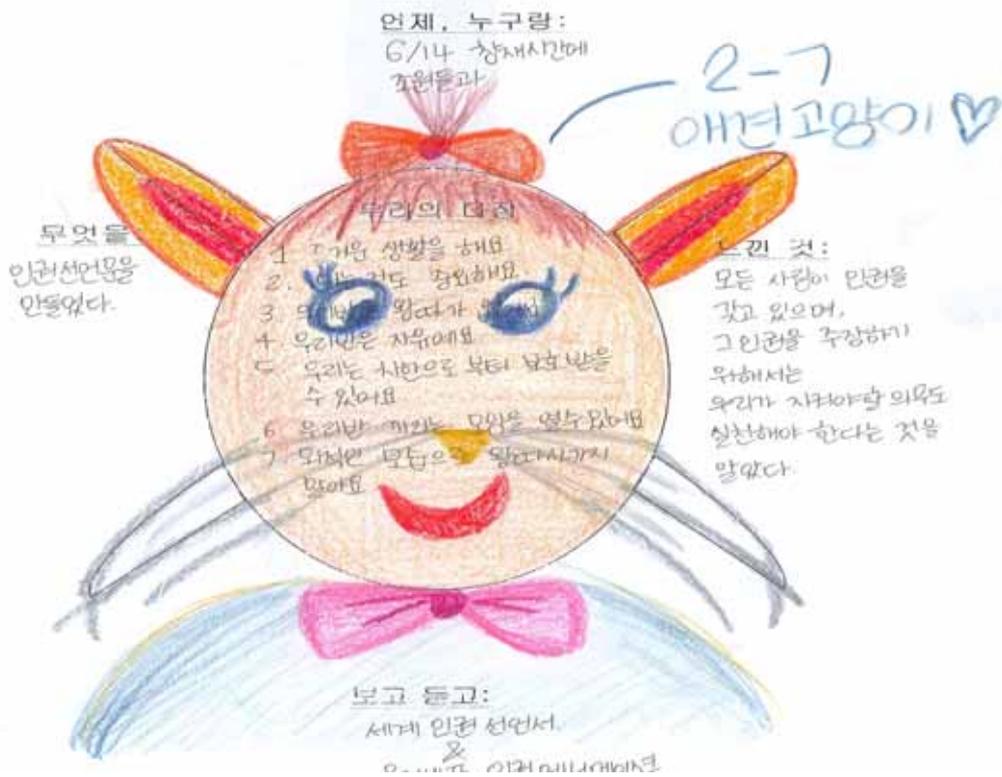
- 도입(5분)
  - 인권선언 등장 배경(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전개(35분)
  - 세계인권선언 내용 확인(인권선언 애니메이션)
  - 우리반 조별 인권선언 만들기(전지)
  - 조별 인권 선언 모으기
  - 완성된 우리반 인권선언 발표하기
- 정리(5분)
  - 조별로 협동 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 : TV에도 인권침해가...

#### ● 학습 활동지

- 우리반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우리반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프로그램명	우리반 인권선언 만들기
2학년7반	조이름   4조 (이강하, 명찬영, 이시은, ...)
	조원   이강하, 명찬영, 이시은, 장승욱, 김형환, 이상승, 권희관



<우리가 만든 우리들만의 인권선언문>

## 4. TV에도 인권침해가.....

### 학습목표

- ① TV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인권침해 사례들을 비평하고, 개선점을 발표할 수 있다.

### ● 준비물

- TV드라마 보기, 비평자료, 필기도구,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 ➤ 도입(5분)

- TV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소개(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이혼하게 함)
- 학습목표 확인하기

#### ➤ 전개(35분)

- TV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드라마, 오락프로 등)
- 조별로 인권침해 대표사례 선정 및 발표(조별로 대표 사례 선정)
- 내가 PD라면! - 인권침해 사례 수정해 보기
- 자신들이 조사해 온 인권침해 사례들을 인권존중 장면으로 바꿔보기
- 완성된 우리반 인권선언 발표하기

#### ➤ 정리(5분)

- 인권존중 장면 발표 및 게시판 부착
- 차시 예고 : 풍선에 편견을 담아

### ● 학습 활동지

- TV 속 인권 침해 사례 비평하기

## TV 속 인권 침해 사례 비평하기

일자 : 2005년 6월 19일 학번: 200702 이름: 김서영

구 분	기 록 내 용
프로그램 제목	제 5공화국
프로그램 분야	드라마
주제와 주요 내용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독재정치를 실시한 전두환 정권에 실망을 널리 말리고 대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제작.
내가 본 인권 침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잡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것.</li> <li>•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첩죄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한 것.</li> </ul>
바꿔 본 인권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보다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li> <li>• 추호 시에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간첩죄도 묻 것은 잘못된 모욕기에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li> </ul>
소감 및 제언	<p>예전에는 내가 무심코 봤던 드라마에서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조그마한 말쑥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더욱더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내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점을 알게 되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p>

# TV 속 인권 침해 사례 비평하기

방송 일자 : 2005년 6월 19일 학번: 20737 이름: 김지숙

구분	기록내용
프로그램 제목	개그콘서트 <뽕숭아 학당 2005> KBS
프로그램 분야	코미디.
주제와 주요 내용	<p>개그콘서트의 &lt;뽕숭아 학당 2005&gt;는 시청자나 방청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목적의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p> <p>개그맨들이 연기를 해서</p>
내가 본 인권 침해 사례	<p>① 뽕숭아 학당 3번째 쯤 미래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제너퍼가 연예인들 사진을 반씩 섞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이것이 보는 사람은 즐겁겠지만 그 연예인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p> <p>② 제일 끝에 나오는 타산의 상징, 뽕뽕고 곡 출산드라 퇴장할 때 박준형에게 그의 마누라인 김지혜를 모욕한다.</p>
바꿔 본 인권 존중	<p>① 브레인 세이버 (MBC)에서는 사진들을 반씩 나누는 게 아니고 DNA를 조합해서 보여준다. 그것이 더 인권 침해가 더 적다고 생각한다.</p> <p>② 출산드라는 인기가 좋을 대로 좋아서 김지혜를 욕되게 하는 말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p>
소감 및 제언	<p>이것을 작성하고 나서와 준비과정에서 그냥 재미로 봤던 TV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p> 

## 5. 풍선에 편견을 담아.....

### 학습목표

- ① TV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인권침해 사례들을 비평하고, 개선점을 발표할 수 있다.

### ● 준비물

- 풍선3개, 매직(색별로), 싸인펜,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 도입(5분)
  - 장애인들의 고용 차별 소개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전개(35분)
  - 우리생활 주변에 있는 편견들(남녀,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생각해보기
  - 풍선에 나의 편견 그려보기
  - 풍선 터트리며 자신의 편견 날려 보내기
- 정리(5분)
  - 조별로 협동 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 :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 ● 학습 활동지

- 내 마음이 이만큼 자랐어요!

## 내 마음이 이만큼 자랐어요

7 번 3 번 이름 : 김아람

### 1.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편견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언니가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어서 무슨여자가 게임을 한다고 알았다  
그리고 남동생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있어서 무슨남자가 인형을 가지고  
노냐고 알았다  
나는 남녀를 차별하고 있었다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

### 2. 풍선을 터트리고 난 후 나의 느낌과 편견을 벗기 위한 나의 다짐은?

나는 남자가 인형놀이를 하면안된다는 편견과 여자가 컴퓨터게임을  
하면안된다는 편견을 풍선에 그림으로 표현하여 풍선을 터트리니  
기분이 시원해졌다. 남녀는 차별을 받아선 안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 앞으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편견을 벗기 위해서 나는 친구들을 차별하거나  
가족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자신의 편견을 풍선으로 표현한 모습>

## 6.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 학습목표

- 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 ②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 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 준비물

- 역할극 대본, 왕따 체크리스트, 조별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 ➤ 도입(5분)

- 왕따문제는 인권문제와 연결됨
- 왕따의 개념, 특징, 문제점 설명
- 학습목표 확인하기

#### ➤ 전개(35분)

- 왕따 체크리스트 실시, 점수별로 환산, 점수는 비밀로 함
- 왕따의 유형 살피기(소외형, 협박형, 조롱형, 장난형, 강제형)
- 왕따 역할극 배분, 각자 역할 이해 하기
- 즉흥 역할극 실시
- 조별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느낌 발표

#### ➤ 정리(5분)

- 조별로 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 : 폭력을 평화로 해결해요.

### ● 학습 활동지

- 왕따 체크리스트
-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 왕따 체크리스트

### 학교적응력

1.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어 등장 또는 세명을 부린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2. 학교 초 반이 바뀌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3. 전학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한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 자기통제력

1. 잘 울고 짜증을 부린다.

자주    ②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2. 친구가 놀리면 화를 잘 낸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3. 거짓말을 잘 한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4. 하지 말라고 꾸중해도 소용이 없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 감정관리

1. 사소한 일로 토라진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2. 화가 나면 오래간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3. 겁이 많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 한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4. 친구와 가끔 싸움을 벌인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 친구사귀기

1. 새로운 친구를 잘 못사귀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2.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3.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4. 자기만 알고 질투가 많다.

자주    ②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 책임감

1. 자기 방을 정리정돈하지 못한다.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2. 공부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3. '이거하면 안돼?' '친구와 놀면 안돼?'란 말을 자주 한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4.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자주    ②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 발달과정

1. 자기보다 어린 아이하고만 놀려고 한다.

① 자주    ② 때때로     그렇지 않다.

2. 신체정서 발달상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주    ②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3. 감정표현이 서툴고 상황관단을 잘 못한다.

① 자주     때때로    ③ 그렇지 않다.

## 나도 친구하고 싶어

□ 대화 순서(11)

왕 따: 내가 이거 좋게 받아!!!

친구1: 싫어, 니가 그렇게 잘났어.

왕 따: 점심 같이 먹자

친구2: 안돼. 다른 친구랑 먹기로 했어.

왕 따: **학교 끝나고 전화할게**

친구3: 내가 학교에서도 너 북괴 때문에 짜증나는데 또 들으라고?

왕 따: **우리 집에 놀러와**

친구4: 니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나에게 악몽과 같아.

왕 따: **책 좀 같이 보자.**

친구5: 내가 알아서해 내가 안 가져 온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그걸 부탁하지마.

왕 따: **컵 좀 빌려줄래?**

친구6: 너랑 간접키스하라고? 웬

나도 친구하고 싶어!  
내가 이거 좋게, 받아!  
영화 보러 같이 가자

넌 지지분해, 우웬!  
냄새나! 너 그 패션이 뭐야?  
잘난척 하지마, 제수없어.



▶ 조별소감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조어름 : 뒷간의똥파리

조원들 : 이해린, 김보경, 박수정, 송치권, 조주원, 유영준

송치권: 내가 만약 왕따가 된다면 시는 맛도 재역도 없고 학교도 다니기 싫었을 것이다. 지름 왕따인 나도 그런 느낌이있을까? 아이부터는 왕따를 만들지도 않대로 안겠다.

박수정: 내가 왕따가 된다면 학교도 가기 싫고 죽고 싶을거 같다. 지금 왕따인 친구에게 왕따인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잘 대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했다. 내가 왕따가 되기 싫은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왕따와 같이 놀며 왕따하는 학교생활을 해야겠다

김보경: 내가 왕따였다면 어떤 이세상에 살고있을까? 너무나 공부 재능하거나 가솔하거나했을것이다. 학교를 인기는 방향까지 않았을까? 그런내가 진짜 왕따처럼 느껴져보내자 정말. 슬픈것으로 힘들었다. 조금 힘기다했다. 왕따타 어울리는 교실을 만들고싶은생각이들었다.

이해린: 내가 왕따라면 난반에서 재능했을 것이다. 재능한게 내 친구가 날 뒤에서 왕따했을때 정말 성격이 화한남정도로 화내고 견디질 못했는데 이렇게 심한 내가 무시당하는여기를 넘어난 정말.. 앞으로 왕따를 만들지않고, 나도 왕따가 되지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조주원: 만약 내가 왕따였으면 학교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온대도 곧바로 집에 갈것이다. 이제부터 왕따인 아이에게 잘 해 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유영준: 내가 왕따였다면 벌써 리포를 때려치고 집에서 컴퓨터놀이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제 부터 왕따를 잘대려 줄 것이다.

## 7. 폭력을 평화로 해결해요.

### 학습목표

- ① 폭력으로부터 평화를 이끌어 낸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다.
- ②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완성 만화, 편지쓰기, 평화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용 강의자료, 미완성 만화, 편지지, 전지, 색연필

### ● 주요 활동 과정

- 도입(5분)
  - 폭력을 평화로 이끈 사례(교사용 강의자료)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전개(35분)
  - 폭력을 평화로 이끈 사례 발표, 조별 1명씩
  - 진정한 해결책은 폭력이 아니고 평화임을 강조
  - 폭력을 당했을 때 평화롭게 이끄는 방법
    - 미완성 만화그리기(1,2조)
    - 미운사람에게 용서의 편지쓰기(3,4조)
    - 학급과 학교의 평화를 위한 평화기도문 쓰기(5,6조)
- 정리(5분)
  - 평화를 위한 기도문 게시판 부착
  - 차시 예고 : 우리는 인권 지킴이!

### ● 학습 활동지

- 미완성 만화, 용서의 편지, 평화의 기도문



사례 1. 은 훗대도 가져가세요!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을 선고받은 장발장은 점점 사나운 죄수가 되어 갔다. 주먹 싸움에서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 그의 의지를 꺾어 놓을 사람도 없었다. 드디어 출소의 날이 왔다. 그러나 당시 죄수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에 어느 여관 주인도 이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굶은 날씨에 목을 곳을 찾아 나홀 간 시골 길을 헤매던 그에게 마침내 어느 친절한 신부가 자비를 베푼다.

그 날 밤 장발장은 너무 편안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신부와 그 누이가 잠자리에 들자 침대에서 일어나 찬장을 뒤져 가족 은잔을 훔쳐서는 어둠 속으로 슬며시 달아난다.

이튿날 아침 경찰 세 명이 장발장을 끌고 와 신부의 집 문을 두드린다. 훔친 은잔은 들고 달아나던 범인을 붙잡은 것이다. 그들은 이 악당을 평생 사슬에 묶어 놓을 태세였다. 그러나 신부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장발장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오셨군요!” 신부는 장발장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훗대까지 드렸던 걸 잊어버리신 모양이죠? 그것도 은이라서 족히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깜박 잊고 놓고 가셨나요?”

장발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눈빛에 담아 노신부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사례 2.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남부 폭동 때의 일이다. 두 남자가 벽돌로 트럭 유리창을 부수고 레지널드 테니를 운전대에서 끌어내 얼굴 한쪽이 움푹 파일 때 깨진 병으로 때리며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헬리콥터 비디오에 잡힌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법정에서도 범인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고자세로 앉아있었다.

전세계 대중 매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직도 부어 올라 흥한 얼굴을 한 레지널드 테니가 변호인단의 만류를 뿌리치고 두 범인의 어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껴안고는 자기는 두 사람을 용서했노라고 말했다. 범인의 어머니들은 테니를 끌어안았다. 그 중 한 어머니는 테니에게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다.

▶ 학습활동지 1 - 미완성 만화

다음의 방법으로 협동 만화를 그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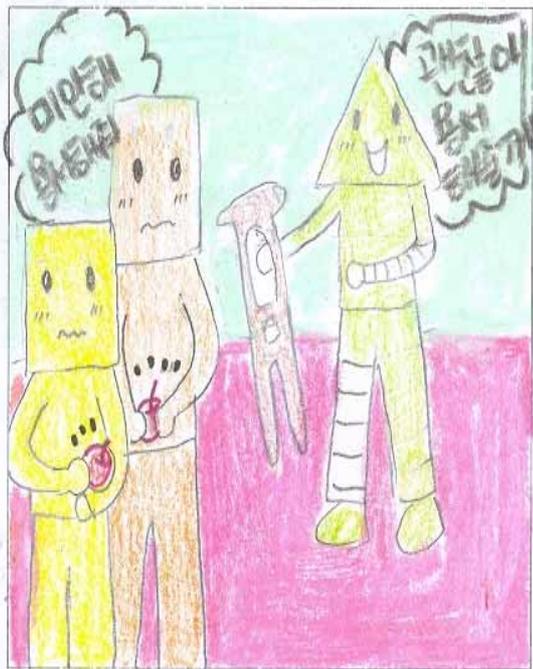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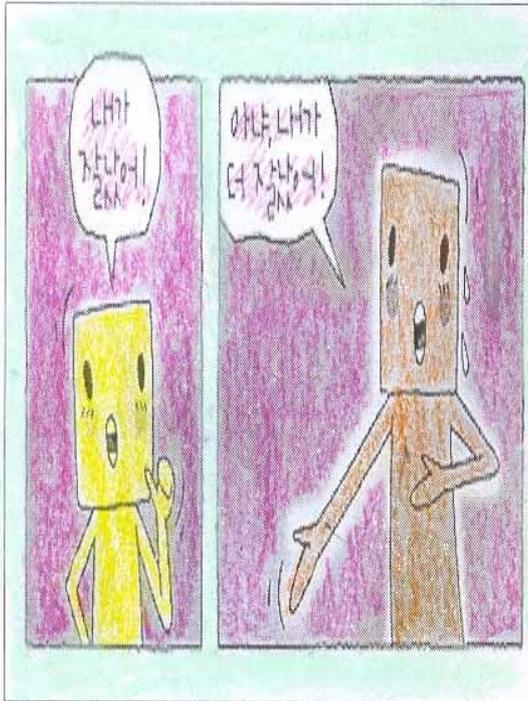
- ① 구상하기 : 먼저 표현할 줄거리를 정리함. 다음으로 문단을 나누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면 구상함. 형식은 네 칸으로 함.
- ② 그리기 : 구상에 따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즐겁게 그리도록...
- ③ 발표하기 : 그리기가 끝나면 그림을 들고 조원이 작품, 느낌 설명함.

▷ 주제 : 용서해주세요  
▷ 제목 : 사과와 밴드(반창고)



▷ 주제 : 용서

▷ 제목 : 용서받을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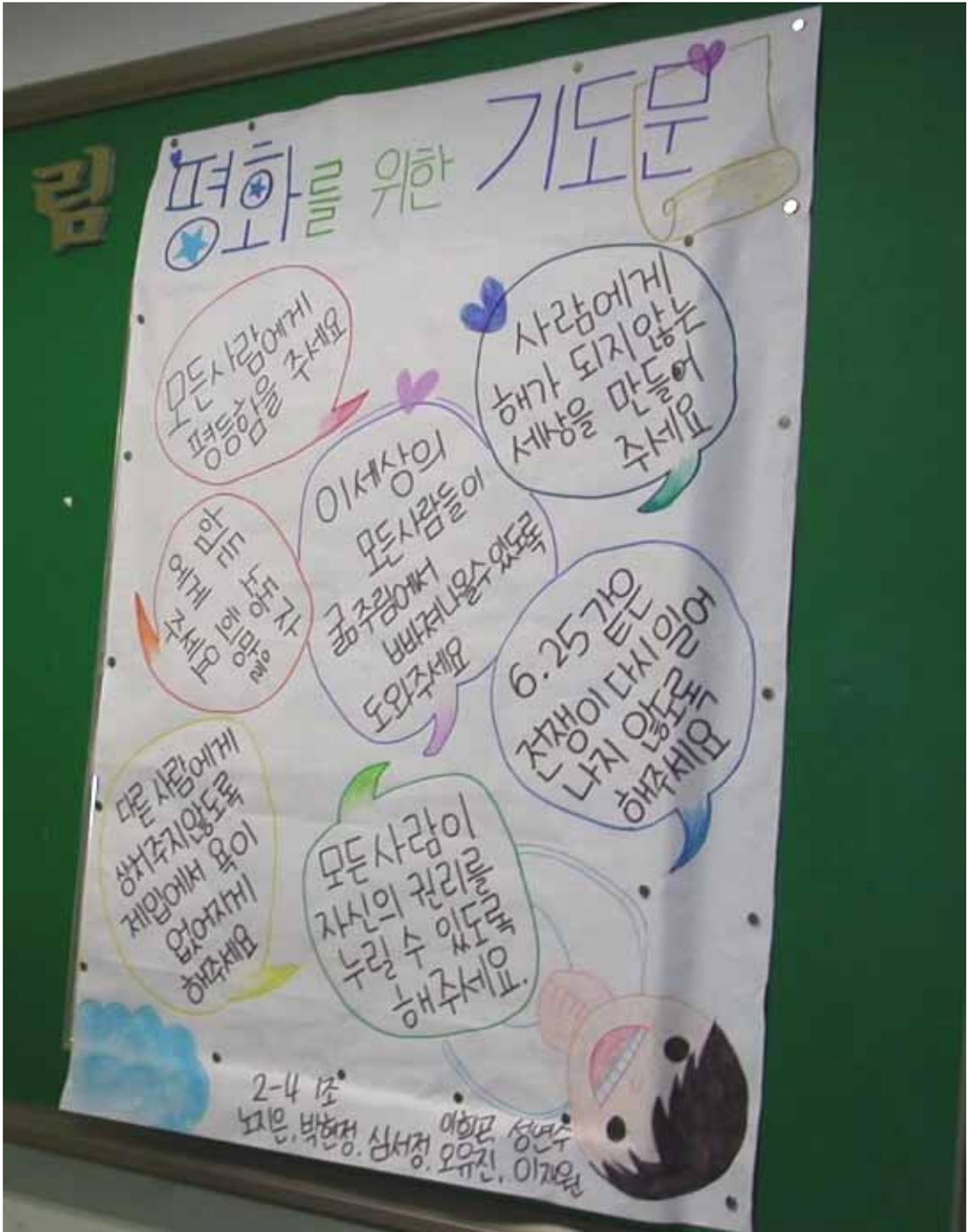
# 세계

〈합성〉

나를 상처받게 했던 아이에게...

나를 무시하던 아이야  
 안녕하 처음으로 인사를 해 보는구나. 정식으로  
 솔직히 용서가 안되고 너도 날 용서 못할 것 같아.  
 넌 처음부터 날 싫어했고 돌맹이 같은  
 존재로 여겨온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접어야겠어.  
 더 악화되어만 가니까  
 그리고 너만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나도 약간 어기적이고 용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전학은 왜 갔냐?  
 정말 짜증났단다. 그래도 너때문에 심심  
 하지는 않았고 니가 아무리 표권지로  
 너의 아이큐를 빌려 나를 비하하고 나를 놀렸어도  
 난 니가 가끔은 좋았단다. 나중엔 잠 싸웠어도  
 친구였으니까. . . . .  
 지금은 너를 좋은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친구관계가  
 특이해서 좋았어. 잘 지내지? 잘 놀고  
 넌 나보다... ~~어~~ ~~어~~ 머리도 좋고... ㅋㅋ  
 너처럼  
 From. 널 용서하는 아이

### 평화를 위한 기도문



## 8. 우리는 인권 지킴이

### 학습목표

- 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 ②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 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 준비물

- 탐구공동체 토의 학습지, 미완성 시나리오, 인권서약서

### ● 주요 활동 과정

#### ➤ 도입(5분)

- 인권침해 사례, 느낌표! 외국인 노동자 사례 소개
- 학습목표 확인하기

#### ➤ 전개(35분)

- 인권침해 내용 토론하기, <읽기자료1>읽고 토론하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부당 대우
- 동남아인과 백인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
- 미완성 시나리오 작성하기: 외국인 노동자가 길을 물었을 때
- 생활 속에서 실천할 인권서약서 작성

#### ➤ 정리(5분)

- 완성된 시나리오, 인권서약서 게시판에 부착
- 차시 예고 : 가슴으로 하는 장애 체험!

### ● 학습 활동지

- 탐구학습지, 미완성 시나리오, 인권지킴이 서약서

▶ 학습활동지 1

프로그램	우리는 인권 지킴이							
학습목표	① 미완성 시나리오 작성으로 인권의식을 다질수 있다. ② 생활 속에서 실천할 인권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학년 반	이 름							
조 원								
역할	번호	이름	역할	번호	이름	역할	번호	이름
사회자(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기록자(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탐구학습지 (학생자료1)

<읽기자료 1>

LCD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 근로자들이 하반신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다발성 신경장애에 집단으로 걸리고도 치료는 고사하고 산재보상도 받지 못한채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나 장갑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하루 15시간씩 독성의 유기용제인 노말헥산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가 앓은뱅이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이런 몹쓸병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

코리아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와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며밤낮으로 땀 흘리게 일하던 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해야 하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앓은뱅이병 발병 과문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부랴부랴 노말헥산 사용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 모양이다. 경찰수사 결과 문제의 업체에서 일하다 노말헥산에 중독되거나 앓은뱅이병에 걸린 태국인 여성 근로자 8명 모두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근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한채 기업주의 불법체류자 약점잡기에 몰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작업환경을 감수하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한때 살기 어려워 외국에 나가 돈 벌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따위는 무시하고 착취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연합뉴스 2005-01-16>



탐구질문지



※ 탐구 질문

1. 위 글을 읽고 기사의 제목을 작성 하시오.

외국인 노동자, 그 실태

2.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과 선진국에서 온 백인들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그렇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게 생겼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것이 이해가 안된다.

3.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할 점과 우리가 노력할 점을 적어 보세요.

예)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저저분하다고 홍보지 않는다.

① 사회가 노력할 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 준다.

② 우리가 노력할 점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

4. 외국인 노동자가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자료 3>을 완성하시오.

5. 이제 인권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 <학생자료 4>의 인권지킴이 서약서를 작성하시오.

이유

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

② 피부색깔과 그사람의 인권과는 아무상관이 없으니까

③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미완성 시나리오 완성하기

### “학생! 인천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장인물: 외국인 노동자 불랑카, 동준, 진경, 유진.

상황 -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러 가는 도중

(동준이와 진경, 유진이는 MBA 농구 선수들의 멋진 덩크슛에 대해 이야기하며 농구장을 가고 있다. 이 때 길을 몰라 찾아 헤매는 약간 검은 피부의 외국인 노동자를 길거리에서 만난다.)

동준: 진경아! 저 외국인 노동자 얼굴이 너무 까맣다. 정말 웃기게 생겼다.

진경: 셋! 동준아, 우리쪽으로 걸어온다. 우리가 한 얘기 들었으면 어떡하지? 하긴 우리말 모를꺼야. 빨리 저쪽으로 그냥 가자.

유진: 야,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거 같은데, 그냥 가면 어떡해

불랑카: (서툰 한국말로) 학생들, 혹시 인천공항에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 인도네시아에서 친구가 한국에 오는데 마중을 가야해. 그런데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알려줄 수 있나?

동준: 아워야. 그냥 가자~

유진: 아 그래도,, 그냥 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동준: 그냥 가. 뭐어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피부색도 틀린데.

유진: 피부색깔 달라도 사람이잖아.

진경: 맞아. 피부색깔이 검정이라도 같은 인간한테..

동준: 그런가? 그래도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

진경: 그렇게 치면 너랑나도 다르게 생겼잖아.

동준: 그렇긴 그렇네. 인천공항 어떻게 가더라?

유진: 그거 인천공항 가는 공항리무진 타거나 인천공항 전용버스 타면돼.

진경: 아저씨~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서 인천공항이라고 써진 버스 타면 바로 인천공항 가요.

불랑카: 고맙습니다~

동준, 유진, 진경: 친구 잘 만나고 오세요~



# 인권지킴이 서약서

나 이해린 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명예와 의지력을 결고, 생활 속에서 인권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이유

1.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
2. 피부색깔과 그사랑의 인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3.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와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 의

이름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5년 7월 13일

성명: 이해린 

## 9. 가슴으로 하는 장애 체험!

### 학습목표

- ① 장애체험에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②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인권존중의 자세임을 알 수 있다.

### ● 준비물

- 압박붕대, 부목, 안대, 화장지, 필기구, 도화지,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 도입(5분)
  -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사례 소개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전개(35분)
  - 시각장애 체험하기(안대로 눈가리고 과자먹기, 화장실 다녀오기)
  - 언어장애 체험하기(낱말 카드 읽고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기)
  - 발장애 체험하기(부목대고 걷기)
  - 손장애 체험하기(두 손 뒤로 하고 입으로 글씨쓰기)
- 정리(5분)
  - 자신이 겪은 체험 발표하고 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 : 인권을 광고에 담았어요!

### ● 학습 활동지

- 가슴으로 하는 장애 체험!



활동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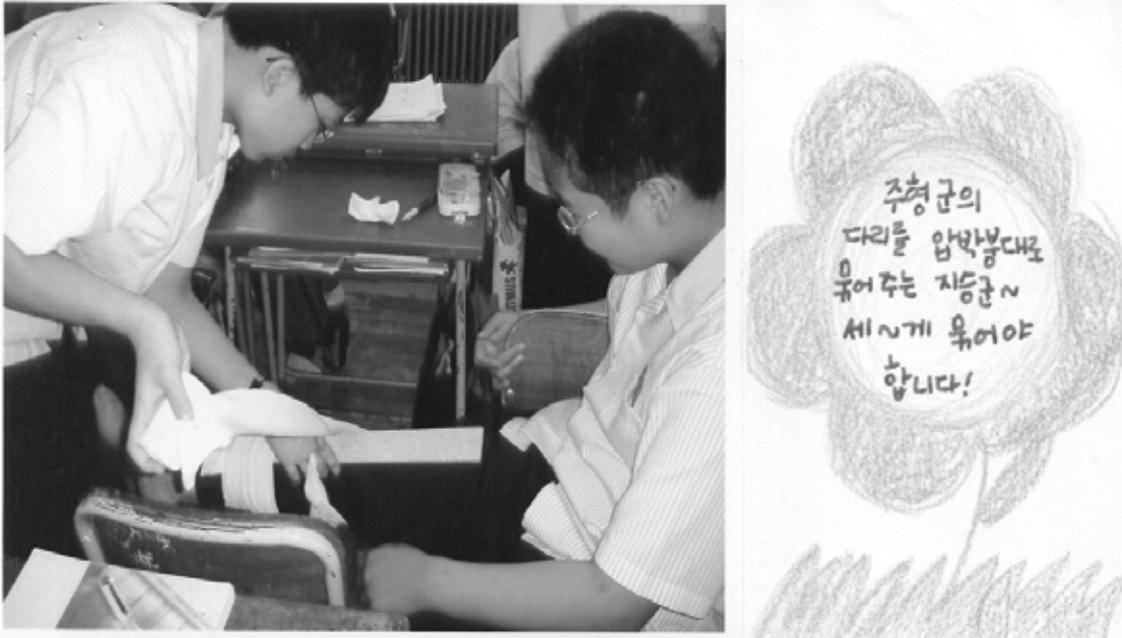
1. 시각장애 체험하기



2. 손장애 체험하기



### 3. 발목장애 체험하기



### 4. 언어장애 체험하기





### 가슴으로 하는 장애체험!

2학년 7반 이름 : 김아람

언제 했나요?

함께 한 사람은?

도덕시간에

정민경, 풍민지, 유지승, 김지수, 김민기, 김주영



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손장애와 지체장애였다 그 이유는 하면서 가장 힘들었기 때문이다 손장애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으로 쓰는 것이 힘들었고, 지체장애는 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힘들었다

② 장애체험 하면서 느낌 점은?

잠깐동안 느낄 장애체험은 많이 힘들었다 내가 직접 장애체험을 하고나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되었다. 이렇게 직접 장애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앞으로 장애인을 많이 도와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③ 앞으로 내 생활 속에서 바꿀 점이 있다면?

장애인을 보면 쳐다보거나 손짓을 하지 않고 보통사람에게 대하듯이 해야 겠다 그리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겠다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

## 10. 인권을 광고에 담았어요!

### 학습목표

- ① 생활 속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인권 주제를 생각할 수 있다.
- ② 인권 광고를 찍으면서 인권 지키는 자세를 생활화 할 수 있다.

### ● 준비물

-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인권 광고 시나리오,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 도입(5분)
  - 공익광고 소개, 광고의 효과와 특징 설명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전개(35분)
  - 인권 광고 만들기
  - 조별로 찍고자 하는 인권 주제 선정
  - 감독과 배역 결정, 시나리오 익히기, 광고 찍기
  - 인권 광고 상영, 감독은 조별 주제 발표
- 정리(5분)
  - 인권 광고 만들면서 느낀 소감문 작성
  - 차시 예고 : 20년 후, 우리는 인권운동가

### ● 학습 활동지

- 인권 광고를 만들면서.....



### 인권 광고를 만들면서.....

프로그램명	왕따도 사랑입니다.
학번, 성명	20707, 노혜은.

제 목 : 왕따도 사랑입니다.

#### 1. 인권 광고 만들기 과정

(계획 짜기-주제, 등장배역, 찍기, 편집과정 등)

제일 처음 시나리오를 짜고 배역을 정하였다. 배역은 왕따가 이장호, 그리고 나서 다른 아이들은 왕따를 시키는 아이역을 맡았다.

총 4번 만나서 사진을 찍고 연습했다.

마지막 다 찍었을 때 편집을 맡기러 갔다. 그곳에서 또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쓰고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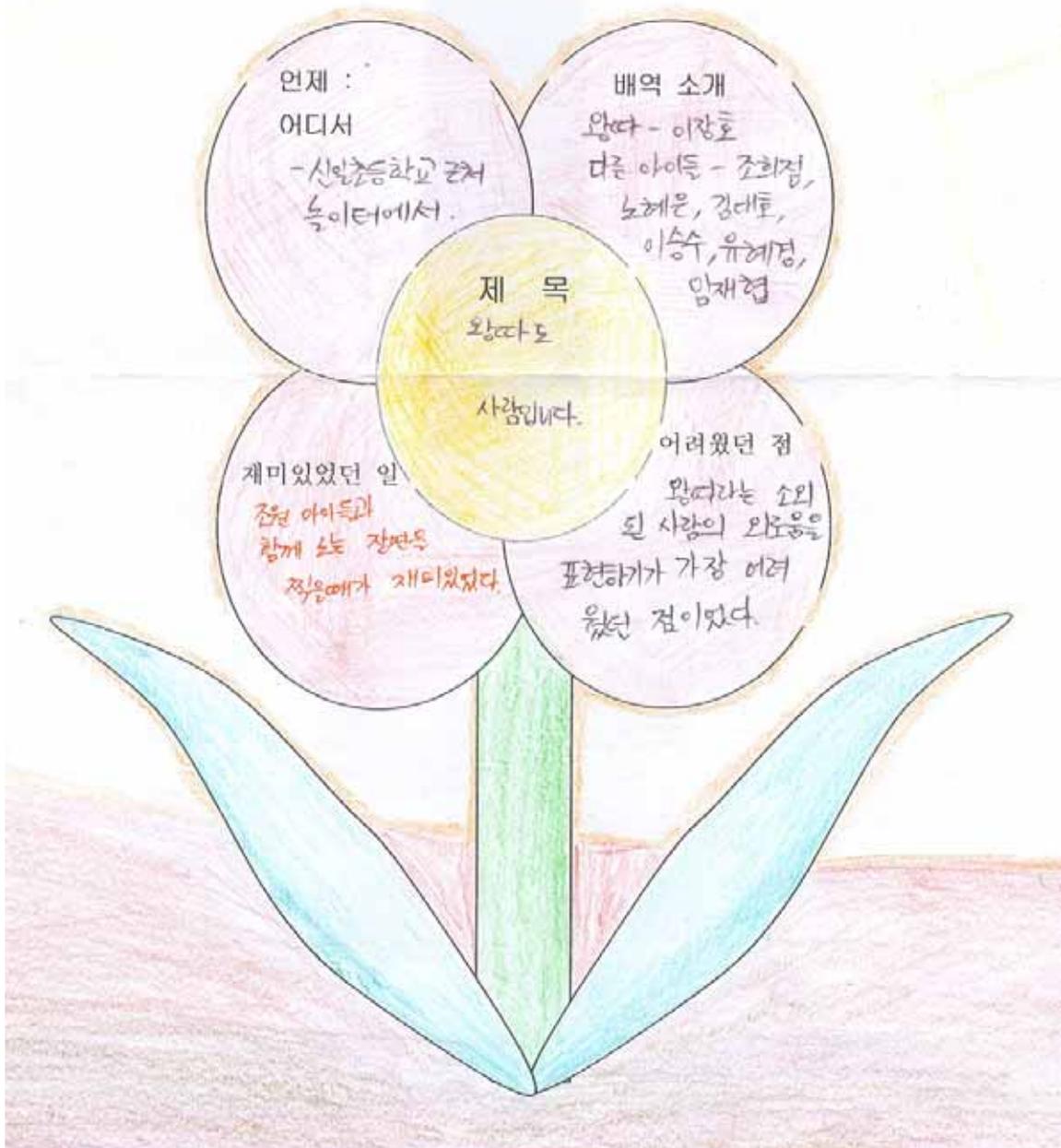
#### 2. 인권 광고를 만들고 난 후 느낌과 나의 다짐

처음부터 컴퓨터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진으로 광고를 찍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적잖아 있었다. 특히 편집까지 끝냈지만 '광고'라고 볼수 없는 우리들의 작품에 티없이 허무함을 느꼈다. 비록 생동적으로 광고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서로 함께 노력하면서 '인권'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되새기면서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랑을 충분히 예민하고 차별하지 않는 '인권' 존중의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 인권 광고 만들기 조별 소감문

프로그램명	왕따도 사랑입니다.			
2학년 7반	조이름	1조		
	조장	노혜은	조원	조희정, 이정호, 이승수, 유혜정, 임재현, 김태현



## 11. 20년 후, 우리는 인권운동가

### 학습목표

- ①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말할 수 있다.
- ② 20년 후 인권운동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권명함을 만들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용 강의자료, 명함샘플, 소감문

### ● 주요 활동 과정

#### ➤ 도입(5분)

- 인권침해시 나타나는 문제점(교사용 강의자료)
- 학습목표 확인하기

#### ➤ 전개(35분)

-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와 그영향 작성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 알아보기
- 참신하고 개성있는 나의 명함 만들기(명함샘플 제시)
- 인권운동가로서 할 일과 다짐 발표하기

#### ➤ 정리(5분)

- 지금까지 인권수업을 받고나서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인권이 지켜질때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

### ● 학습 활동지

-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들
- 나의 인권명함 만들기

##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들

\*예시 자료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	나에게 끼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사람사이 갈등이 심해진다.
남녀차별이 심해진다.	여자로 태어난 걸 후회한다.	남여사이 갈등이 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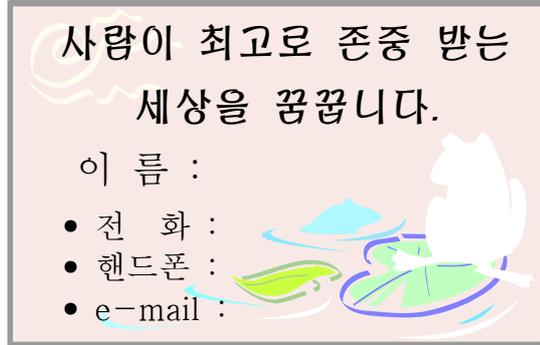
### <우리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	나에게 끼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왕따 문제가 심해진다.	나도 당할 수 있다.	학교사회분위기가 나빠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부모님이 없으면 불행하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한다.	길거리에서 나를 때릴 수 있다.	국가이미지가 나빠진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나도 데모를 할 수 있다.	대화가 없는 사회가 된다.

## 나의 명함 만들기 예시



▲ 개성 있는 명함 예시



▲ 명함 샘플

## 인권명함 만들기 학생작품



#### D. 실행 후 설문조사

인권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변화된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이다.

조사 내용	방 법	대 상	시 기
인권의식 실태 조사	질문지법 이용	○○중학교, 2-7, 39명	2005. 7.

질 문	응 답 수 (N = 39)
1. 인권수업을 하고 난 후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5 ② 25 ③ 8 ④ 1
2. 인권수업은 인권에 대해 이해하기에 유익하였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5 ② 29 ③ 5 ④ 0
3. 인권수업을 받은 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인권존중을 예전보다 더 실천하고 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2 ② 25 ③ 10 ④ 2
4. 인권수업을 하고 난 후 가장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① 아동 학대 ② 장애인 차별 ③ 양성 평등 ④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⑤ 외국인 노동자 차별	① 2 ② 3 ③ 5 ④ 7 ⑤ 22
5. 인권수업 내용 중 가장 흥미 있고, 유익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① 우리반 인권선언문 만들기 ② 폭력을 평화로 ③ 가슴으로 하는 장애 체험 ④ 인권을 광고에 담았어요. ⑤ 인권명함 만들기	① 7 ② 0 ③ 4 ④ 18 ⑤ 18
6. 인권수업을 하고난 후 친하지 않던 친구도 존중하게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 0 ② 22 ③ 15 ④ 2
7.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어떤 노력을 하고 싶습니까? ① 인권 관련 서명운동 ②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활동 ③ 인권 침해 당한 사람들에게 후원금 보내기 ④ 인권 침해 문제 항의메일, 게시판 글올리기	① 16 ② 15 ③ 1 ④ 7
8. 인권단체 회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한다. ② 참여한다. ③ 참여하지 않겠다. ④ 모르겠다.	① 10 ② 22 ③ 5 ④ 2

- 질문1> 인권수업을 하고 난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그렇다’이상이 30명으로 사전조사 15명보다 2배가 상승 하였다.
- 질문2> 인권수업은 인권에 대해 이해하는데 유익하였다는 반응이 34명으로 나타났다.
- 질문3> 인권수업 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인권존중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실천하고 있는 학생이 27명으로 사전조사 14명보다 훨씬 많아졌다.
- 질문4> 인권수업 후, 관심을 갖게 된 인권분야는 사전조사 장애인 차별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로 이동하였음 알 수 있었다.
- 질문5> 인권수업에서 흥미 있고 유익했던 점으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는 장애체험과 인권광고를 꼽았다.
- 질문6> 인권수업 후, 친하지 않던 친구를 존중하게 된 학생도 20명이나 되었다.
- 질문7>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캠페인 활동, 게시판 글 올리기 등의 순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질문8> 인권단체 회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2명이 ‘그렇다’이상으로 대답하여 사전조사 10명에 비해 월등히 향상 되었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보면, 인권교육은 먼저 인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알고, 인권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길러주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V.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을 마치며...

### A. 결 론

지금까지 인권에 관련된 지적·정의적·실천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인권교육을 그 목적과 계획에 맞춰 실천해 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권 관련 개념과 내용을 학생들 수준에 맞춰 다양한 방법(읽기자료, 동영상자료, 신문자료, 만화 등)을 제시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 되었다

둘째, 인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신념을 내면화 시키는 방법으로 친구들과 토의하여 결정하기, 미완성 시나리오 완성하기, 인권지킴이 서약서 작성하기, 친구들과 앞에서 자신의 선택 발표하기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아졌다

셋째, 자신이 직접 장애인이 되어서 불편함을 체험해 보는 장애체험, 인권지키기를 홍보하는 인권광고, 인권단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인권명함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인권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먼저이고, 남이 아닌 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알게 되었다.

끝으로 인권교육을 실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 B. 제 언

첫째, 인권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인권 관련 교육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권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인권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었다. 늘어나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가 많이 개발 되었으면 한다

셋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한 점도 사실이다. 자료의 부족과 함께 인권을 지켜나가는 삶이 생활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인권관련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함께 맞잡은 손으로  
만드는 동그라미

---

경상북도 구미 해평초등학교 교사 이 선 아

# I. 장애인 인권 교육의 실천 개요

## 1. 태권 소년과의 첫 만남

2005년 3월 개학날,

연구자는 작년과는 또 다른 색깔의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였다.

작은 규모의 농촌 학교라 한 학급이 20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6학년이라서 그런지 20명의 아이들은 큰 교실을 가득 채웠다.

우선 '나의 소개'를 하며 분주한 아이들을 잠시 조용 시킨 후에, 아이들의 자리 배치를 위해서 남녀별로 키순서대로 세워보았다. 순간 나는 태권 소년 앞에서 잠시 주춤했다. 태권 소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천성 장애(오른팔이 팔꿈치에서 손목 부분이 없는)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다. 보통 선천성 장애를 지닌 아이라고 하면 체구도 왜소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태권 소년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태권 소년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격짱·몸짱·힘짱인 아이였다. 그날 태권 소년은 체구가 워낙 커서 맨 뒷줄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마치 우리 반 보디가드처럼 느껴졌다.

3월의 어느 날, 태권 소년이 사고(?)를 치고 말았다.

사고의 내용은 옆 신문기사와 같다.

태권 소년은 3월에 있었던 경북신인선수권 태권도 대회에서 남자초등부 헤비급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순간 '인간승리' 라는 말이 떠올랐다. TV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한 인물이 우리 반의 한 구성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느 한 순간 태권 소년이 세상의 벽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태권 소년과 같은, 아니 태권 소년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알차게, 당차게, 힘차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요즘 TV를 보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권을 누리고자, 적극적으로 멋진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개그맨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한때 유명한 가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가수 강원래,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배형진,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한 김진호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V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영화나 동화, 교과서 등 많은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흔히 아이들은 누군가가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끄럽게도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는 연구자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장애인이 장애를 가져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전에 앞서 우리는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아이들이 체험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울러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모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함께 맞잡은 손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인권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본 실천 과제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장애 아동 태권 소년의 진로도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 2. 장애인 인권 교육 실천의 방법 및 목적

본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 교육 실천 과제를 구안하였다.

첫째, 강의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교수방법보다는 **시청각중심의 매체를 활용**하여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소함을 친숙함으로 바꾸어 장애인 인권 이해를 도모했으며 둘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구현**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데 그 지향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까닭을 말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3.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4. 장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알고, 장애 아동의 미래의 진로도 탐색해 본다.

## II. 장애인 인권 교육의 필요성

###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현재 우리 나라에는 400만이 넘는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치룬 나라여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로 3만여 명, 각종 질병 및 의료사고로 인해 2만 7천여 명, 그리고 기능장애를 수반한 기형아 출산율이 2.7%로 매년 2만여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된다고 한다.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거리,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의무교육이 7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직도 50%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장애인교육의 현 주소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선언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장애인 인권현장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 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뒷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현실을 비판한 장애인들의 삶의 포기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장애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전체의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의 96.3%, 시각장애의 92%, 청각장애의 84.7%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있고,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96%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이 발생은 정신지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각종질환 및 사고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나 또는 가족이 언제든 장애 범주에 들 수 있는 상황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으며 후천적일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장애가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 곁에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지를 떨쳐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 장애 아동의 진로 탐색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개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사회 성원으로 사회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대부분 직업생활을 통하여 충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 각자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한 직업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상당 기간의 학교교육을 받고 나면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평생동안 그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각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학교교육의 핵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합리적인 진로 탐색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지능, 적성, 능력, 욕구, 인성적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의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사회 변화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게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의 의미를 깨달아 합리적인 진로 탐색을 통해 진로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체부자유 경우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직업 훈련기관이나 가정에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설령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이직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생들의 장애가 점차 중증화, 중복화되어가면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에서도 나름대로의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 초등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등부에 진학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 시간에 제공하는 단순 기술 습득 정도의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 교육이 제공되는 분야도 현대 사회에 변화에 걸맞지 않은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 교육 양성 인력과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 기자재 등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민과 탐색의 기회가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는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평가로 인하여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진로 탐색은 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에 대한 초등학교 진로 교육의 부재 속에서 장애 아동의 진로 탐색은 무척이나 낯설고 어렵다. 미래에 자신의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 장애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 또한 장애 아동에게 있어 무척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 아동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개척해 나간다면 장애 아동의 진로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확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Ⅲ. 장애인 인권 교육의 설계

#### 1. 실천 주제 선정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장애 아동의 올바른 진로 탐색

※ 매체 활용의 의미

아동들이 쉽게 접하고 관심 있어 하는 영상(영화, TV 프로그램), 동화, 교과서 매체에 나타난 인권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실천

#### 2. 실천 기간 및 대상

가. 실천 기간 : 2005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간)

나. 실천 대상 : 구미 해평초등학교 6학년 2반 태권 소년과 19명의 아이들

#### 3. 실천 과제의 설정

실천 과제	1. 알차게	2. 당차게	3. 힘차게
실천 목표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체험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	장애인 인권의 보호 실천 및 태권 소년의 진로 개척
실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피 인권 바이러스와의 접촉</li> <li>▪ 숨은 인권 찾기</li> <li>▪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매체의 활용</li> <li>▪ 동화 매체의 활용</li> <li>▪ 교과서 매체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야, 작은 인권 운동가</li> <li>▪ 나는야, 미래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li> <li>▪ 함께 맞잡은 손</li> </ul>
인권 교육 영역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인권 교육 방법	인권에 '대한(about)' 교육	인권을 '위한(for)' 교육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

## IV. 장애인 인권 교육의 실천

### 실천 과제 1 알 차 계

####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체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장애 아동의 울곧은 진로 탐색’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장애인 인권의 이해 및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천 과제 1 알차게 -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체험은 이러한 맥락으로 계획·접근하였으며 아이들이 인권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장애인 인권의 현 주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알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권 소년들이 겪는 아픔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실천 과제 1 알차게 실천 내용 -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체험은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를 위한 ‘해피 인권 바이러스와의 접촉’, 장애인 인권에 관한 현황 및 장애를 극복한 인물을 알아보는 ‘숨은 인권 찾기’, 직접 몸으로 장애를 체험해보고 장애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는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로 구성하였다.

#### ● 실천 과제 1 알차게 -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체험

세부 주제	해피 인권 바이러스와의 접촉	숨은 인권 찾기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
실천 목적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 마인드 형성	장애인 인권에 관한 현황 및 장애 극복 인물조사로 장애인 인권개선의 필요성 및 인식전환의 기틀 마련	장애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의 생활 및 어려움 이해, 생활 공동체 형성
실천 방법	활동 중심	조사 학습 중심	체험 중심

인권이라는 말을 낯설어 하는 아이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아이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인권에 관해 살펴 보았다.  
활동의 기본적인 기틀과 아이들의 인권 마인드 형성을 위해 실시하였는데, 전반적인 인  
권에 대한 이해,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세계 인권 선언문 낭독하기
- 놀이 활동을 통한 인권 감수성 키우기
- 우리 몸 각 부분의 인권 알기
- 인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단체 조사하기
- 인권 관련 뉴스 찾기

### 1. 세계 인권 선언문 낭독하기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 인권이 뭐예요?”

인권이라는 말부터 생소해하는 아이들……. 이런 질문을 던졌던 나조차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단어이기에 아이들의 반응은 당연하였다. 먼저 인권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한 후에 □□세계인권선언문□□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가졌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낭독하면서 아이들은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 2. 놀이 활동을 통한 인권 바로 보기

앞에서 낭독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익히기 위하여 재미있는 활동으로 재구성 해보았다. 먼저 각 조항과 그 조항과 관련된 설명을 종이에 따로 따로 준비하고 아이들의 등 뒤에 각 조항과 관련된 설명을 붙이고서는 관련된 것들끼리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은 친구들의 등 뒤에 붙어있는 조항과 설명을 연결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갔다.



## 3. 우리 몸 각 부분의 인권 알기

인권의 출발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과 관련된 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먼저 큰 전지에 사람을 그려서 각 신체 부분과 관련있는 인권에 대해 아이들이 직접 여백에 쓰고 발표하는 활동을 가져보았다. 아이들은 예상외로 우리 몸 각 부분의 인권에 대해 잘 생각하였는데, 가슴의 한가운데 마음이라고 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권리' 라고 쓰는 것을 보고 나는 순간 아이들이 하나같이 천사들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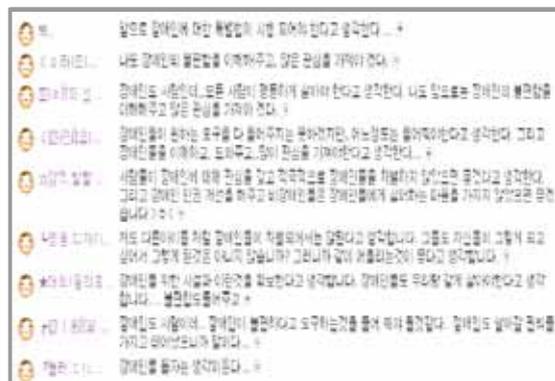
#### 4. 인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단체 조사하기

앞의 활동들을 통해서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들의 머릿속에 스케치되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 상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는 활동을 가짐으로 인권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인권 관련 사이트 내용과 인권 관련 단체에서 하는 일을 조사하여 인권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게 되었다.



#### 5. 인권 관련 뉴스 찾기

인권 관련 뉴스는 TV속의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권 관련 뉴스를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뉴스 속에 나타난 인권의 문제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고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

가깝게 태권 소년과 함께 지내지만 장애인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고 올바른 장애인 인권의 이해를 위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 봄으로써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를 극복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애 극복의 위대함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관점을 조금은 돌려주었다.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장애인 인권을 숨은 그림 찾듯 다양한 조사 활동으로 찾아보았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황 및 실태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하기
- 장애를 극복한 위인 및 인물 보고서 작성하기
- 장애인의 불편한 일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탐색하기

### 1. 장애인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황 및 실태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하기

우리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인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조금만 옆을 둘러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을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들의 대부분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의 인권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애인이 받는 혜택도 그렇게 많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장애인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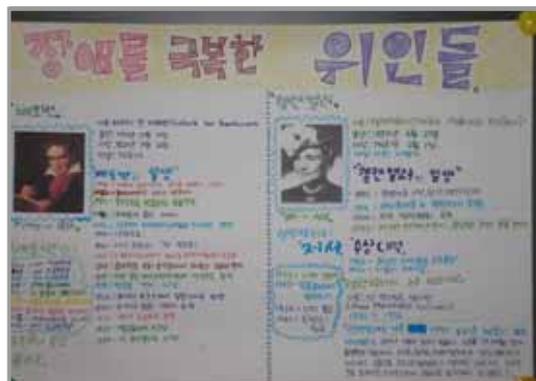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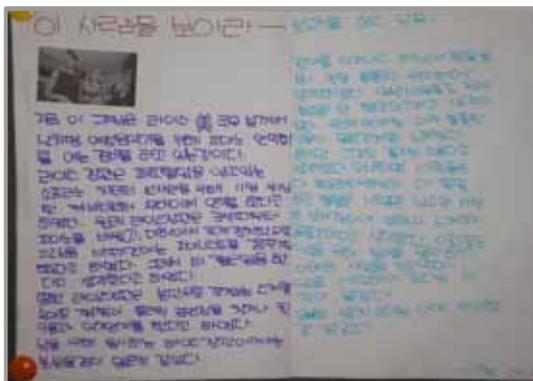
#### 1.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전화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돈의 점자

<p>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번역 지체장애인을위한 휠체어리프트 지체장애인을위한 엘리베이터 버튼 지체장애인을위한 휠체어용 길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p> <p>2.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이동통신 요금</p>	<p>할인, 교통요금과 공공시설 이용요금등의할인, 무료 법률 구조제도 등</p> <p>3.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2004년 6월 현재 전체 장애인의 수는 1,532,421명</p> <p>4.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건 교통시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건 사람들의 편견이다.</p>
---	--

## 2. 장애를 극복한 위인 및 인물 보고서 작성하기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런 장애가 그들의 삶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유명한 헬렌켈러나 베토벤,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말아톤 영화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자폐증을 극복하고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김진호, 유명한 가수에서 한순간의 사고로 휠체어 신세가 된 가수 강원래 등 아이들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한 위인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생활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장애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장애인의 불편한 일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탐색하기

장애인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인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들에게는 쉬운 일상 생활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장애인들이 겪을 불편함을 생각하고 그들이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을 찾아 보았다. 아울러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함께 방안을 생각하는 활동도 가져 보았다.

<p>1.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때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p> <p>: 우선 버스의 구조는 보통버스처럼 앞문은 비장애인들이 타고, 뒷문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자동으로 기계가 내려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한다.</p> <p>2. 시각 장애인들을 컴퓨터 사용 개선 방안</p> <p>: 내가 개발한 것은 컴퓨터 화면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고 종지로 되어 있어서 시각 장애인용 글이 떠 있고, 컴퓨터 화면 옆쪽에는 사람귀와 생김새가 비슷한 기계가 스피커 역할을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때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내가 커서 어른이되면 이런</p>	<p>컴퓨터를 꼭 개발할 것이다.</p> <p>3. 지체장애인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개선 방안</p> <p>: 일반 화장실보다 일단 공간을 2배로 더 넓고, 장애인들이 지루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화장실 내부를 꾸미면 좋을 것이다.</p> <p>4.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TV 개발</p> <p>: TV의 구조는 일단 직사각형 모양에,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양쪽에 소리가 나는 것을 빼고, 화면을 좀더 넓고 크게 만드는 것이다. 오른쪽에 별도 양은 수화를 보는 곳이고, 별 위에는 글씨가 나타나게 꾸미면 좋을 것 같다.</p>
--	---

##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

장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함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은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장애를 가진 이에게는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하고 때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 장애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아픔이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아동들이 장애인 인권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 발가락으로 쓰는 글씨 (신체 장애 체험)
- 눈 가리고 계단 걷기 (시각 장애 체험)
- 손으로 전하는 말 (청각 장애 체험)
- 입으로 그리는 그림 (신체 장애 체험)
- 온 몸으로 말하기 (청각 장애 체험)



▲ 우리 반 인권 체험의 날



▲ 신체 장애 체험



▲ 시각 장애 체험



▲ 청각 장애 체험

실천 과제 2  
당 차 계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

매체는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매체를 장애인 인권과 연관한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운영·실시하였다.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개선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의 길을 모색해 보았다. 실천 과제 2 당차계 -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은 다양한 매체 속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개념을 찾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장애인 인권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매체 속에 나타난 장애 극복 사례를 바탕으로 태권 소년의 진로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본 실천 과제에서는 영화 말아톤과 TV 프로그램(바퀴 달린 사나이 박대운)과 같은 영상 매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와 『오체불만족』이라는 동화 매체, 6학년 국어·사회·도덕·미술 교과서를 활용한 교과서 매체, 총 3종류의 매체를 선정하여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을 실천하였다.

영상, 동화, 교과서 매체는 아이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며, 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것으로 써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였다. 매체를 바탕으로 실시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가졌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으며 태권 소년 또한 다양한 장애 극복 사례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실천 과제 2 당차계 -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

세부 주제	영상 매체 ◦ 영화 (말아톤) ◦ TV 프로그램(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동화 매체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 오체불만족	교과서 매체 ◦ 국어: 왼손잡이 ◦ 사회: 인권 조사 활동 ◦ 도덕: 장애인 의무 고용제 ◦ 미술: 장애인 표지 마크
실천 아동 태권 소년	매체 속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을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장애 극복 인물을 찾아 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		
실천 방법	영상 매체 시청 후 활동 중심	동화 매체 읽은 후 활동 중심	교육 과정 중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특성 중 한가지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권 개선 활동과 연계하였는데 그 소재는 영화 ‘말아톤’과 TV 오락프로그램에 나오는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이다.

영화 ‘말아톤’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장애인 인권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웃음으로 승화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이 두 영상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태권 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모하였다. 영화가 전해주는 감동과 TV 프로그램에서 전해주는 웃음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아이들의 변화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1. 영화 - 말아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진이에게 줄 선물, 상장, 응원가, 플랜카드 만들기</li> <li>▪ 형진이에게 격려의 편지 쓰기</li> <li>▪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인권 침해된 부분 각색하기</li> <li>▪ 형진이가 되어 달려보기</li> </ul>
2. TV 프로그램 -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10행시 짓기</li> <li>▪ 방송국 게시판에 시청 소감 남기기</li> <li>▪ 다른 닉네임 또는 별명 지어보기</li> </ul>

### 1. 영화 - 말아톤

활동을 위해 영화 ‘말아톤’을 시청하였다.

아이들은 기대감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영화를 시청하였다.

영화 시청 전 영화와 관련된 인권적 요소를 설명하고 바른 시청 태도 및 관점을 알려 주었다. 또한 시청 후 이루어질 다양한 활동을 사전에 안내하여 아이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사후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고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 형진이에게 줄 선물, 상장, 응원가, 플랜카드 만들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끝까지 완주한 형진이를 축하·격려하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아이들 마음 속에 내면화하기 위해 형진이에게 줄 축하 선물, 상장, 그리고 형진이에게 들려줄 응원가, 격려의 플랜카드를 만들어 보았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장애를 극복한 형진이의 땀과 수고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형진이에게 격려의 편지 쓰기

형진이에게 격려의 편지 쓰기 활동은 보다 깊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편지글 속에서 담긴 아이들의 반성하는 모습되는 마음을 변화를 발견하였고, 아이들의 다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형진오빠  
 저는 해평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진경이라고 해요.  
 오빠가 겪으신 일들을 영화로 만든 영화 말아톤을 감상 후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영화내용 중 42.195km를 완주하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TV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서도 봤어요.  
 저는 오빠가 가진 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지. 저희 반에도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랑 다르게 없는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그 친구를 분별해야 할 것 같아요.  
 결코 장애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한 것 뿐이에요.  
 형진이 오빠 힘내세요!!!



■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인권 침해된 부분 각색하기

영화 ‘말아톤’에서 나타난 장애인 인권 침해 부분을 먼저 찾아보고 그 부분을 직접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각색해 보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안목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각색전>

형진이가 열룩말무늬에 유달리 집착을 보이는데, 어느날 길을 가다가 열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다. 결국 그 여자의 신고로 경찰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경찰이 형진이의 엄마를 보고 이런 아이는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한다.

<각색후>

형진이 엄마 : 고맙습니다.

경찰 : 괜찮아요, 뭐 그럴수도 있죠!



■ 형진이가 되어 달려보기

‘말아톤’ 영화를 본 느낌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태권 소년의 또 다른 다짐을 위해 형진이가 되어 직접 운동장을 달려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달려봄으로써 아이들은 형진이의 마음을, 그리고 태권 소년은 장애 극복의 의지를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모두가 하나였던 소중한 이 시간은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인식 전환,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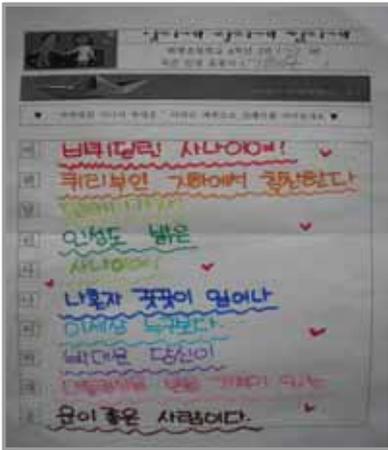


## 2. TV 프로그램 -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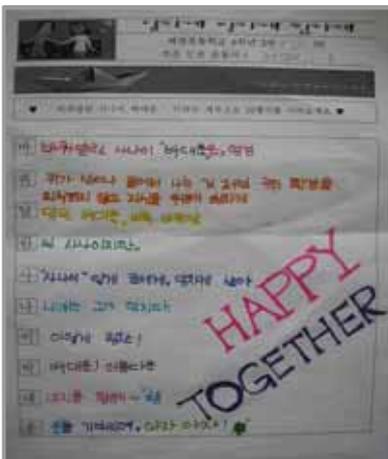
### ■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10행시 짓기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이라는 제목의 10행시 작성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웃음으로 생활하는 박대운의 삶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아이들은 웃음과 자신감으로 생활하는 박대운의 삶 속에서 장애는 하나의 단순한 작은 불편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태권 소년은 자신 또한 미래의 삶 속에서 웃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글자 운 속에 나타난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애 극복의 가치와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TV 프로그램 매체를 통해 아이들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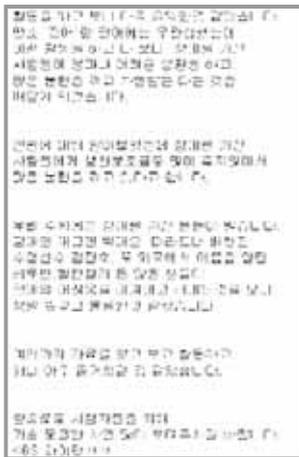
바퀴달린 사나이여  
 귀부인이 지하에서 칭찬한다  
 달려 나가자  
 린 성도 밝은  
 사나이여  
 나 혼자 곳곳이 일어나  
 이 세상 누구보다  
 박대운 당신이  
 대통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은 영경  
 귀가 산이나 들에서 사는 것처럼 주위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힘차게  
 달려 박대운, 비록 바퀴달  
 린 사나이이지만,  
 사나이답게 굳세게 당차게 살아  
 나가는 그가 멋지다  
 이렇게 힘찬,  
 박대운, 아름다운  
 대지를 향해 행  
 운을 기다리며, 아자아자!!!

■ 방송국 게시판에 시청 소감 남기기

방송국 게시판에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 프로그램 시청 소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장애 극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고 능동적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작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반은 “장애를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를 극복한 사람”에 대해 보고서도 써보며, 포스터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에 대해 10행시도 지어보았으며 심지어 노래가사짓기, 닉네임과 그에 대한 캐릭터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평소 “장애”란 단어에는 무관심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나 보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차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극장에서 시청했던 박대운은 그런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을 위해 가슴 뭉클한 사연 많이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른 닉네임 또는 별명 지어보기

박대운의 새로운 닉네임 또는 별명을 지어봄으로써 장애 극복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태권 소년에게도 새로운 별명을 지어 주었다. 태권 소년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처럼 태권 소년도 자라서 ‘미래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작은 소망과 태권 소년의 다짐을 담아 보는 또다른 시간도 함께 가졌다.



**'힐체어 탄 왕자님 박대운'**

박대운 아저씨도 이제 어언 30대 초반 이뿐 이모랑 결혼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유명하다. 박대운 아저씨는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없다.

동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준다.

장애인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화책을 찾던 중 6학년 아이들의 수준에 맞고 TV 프로그램에서의 소개 등으로 유명해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와 ‘오체불만족’이라는 동화책 두 권을 동화 매체로 선정하였다.

두 동화 책 주인공 모두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당당한 삶을 살아간 인물들이다. 동화 매체로 선정한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p>손가락 네 개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네 손가락이라는 불완전성으로 자신의 연주에 대해 고민하고 좌절하지만 음악을 통해 꿈을 얻게 되는 희아. 그리고 그 희망을 다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주인공을 통해 어린이들은 꿈이란 무엇인지 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p>
오체불만족	 <p>사지절단증이라는 희귀한 병을 안고 태어난 작가가 세상의 소외받는 모든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감동을 건네주는 이야기.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는 교훈과 함께 희망차고 따뜻한 이야기를 독자로 하여금 그 따스함과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잔잔이 전해준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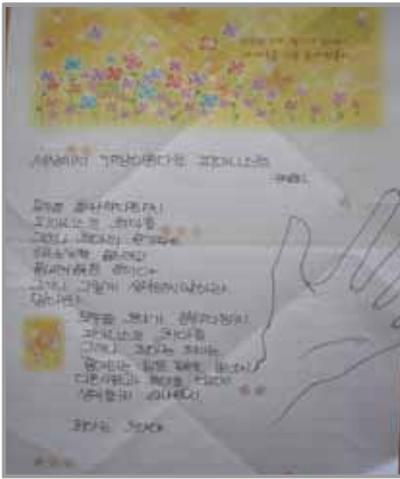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학습 과제로 두 권의 동화책을 아이들 모두가 읽도록 하였으며 9월 아침 자습 시간 및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동화 매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활동 가운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장애를 극복한 주인공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장애는 하나의 편견일 뿐이라는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었다. 태권 소년 또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를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li> <li>▪ 이희아의 연주곡 함께 감상하고 감상 소감문 작성하기</li> </ul>
2. 오체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를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기</li> <li>▪ 글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li> </ul>

## 1.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 ■ 동화를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

짧은 시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동화를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의 시는 이희아가 장애를 극복하고 연주하는 노래가 되어 우리들 곁에 다가왔다. 이희아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이 동화의 내용은 태권 소년에게 태권 소년 또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자신있게 해 나간다면 태권 소년 또한 당당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모두들 불쌍하다하지 / 피아니스트 희아를  
그러나 희아의 손가락은 / 하느님을 돕느라고  
못내려왔을 뿐이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아라.

모두들 희아가 장하다하지 / 피아니스트 희아를  
그러나 희아는 희아는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지.  
다른사람과 희아를 다르게 / 생각할 것 하나없지.  
희아는 희아야.

### ■ 이희아의 연주곡 함께 감상하고 감상 소감문 작성하기

직접 이 동화의 주인공인 이희아의 피아노 연주곡들 듣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더 깊이 이희아의 삶을 이해하고 장애 극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유명 음악가의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 속의 주인공의 삶을 이해하고 듣는 피아노 연주곡은 더욱 깊은 감동을 선물해 주었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하였다.



우리 반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라는 전원 다 읽어보았다. 그런 후에 선생님께서 이희아의 연주곡을 들려주셨다. 책을 읽고 난 후에 이희아의 연주곡을 들으니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다. 불편한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연주가 나올 수 있을까?  
이희아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늘 투덜거리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아마도 이희아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저런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도 오늘부터 투덜거리지만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 2. 오체불만족

### ■ 동화를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기

‘오체불만족’의 주인공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삶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직접 그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주인공의 삶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나뭇잎 배'를 바꾸어 표현

팔없지만 멋있는 오토다케는-  
언-제나 웃-어요 멋있는오토-  
예쁜 얼굴 웃는 얼굴 아-름다-워라-  
언-제나 웃-어요 멋있-는 오토-  
  
다리없어 힘들지만 멋있는오토-  
-제나 웃-어요 멋있는 오토-  
웃는 얼굴 언-제나 희-망가-져요-  
언-제나 웃-어요 희망-가져-요-  
오토다케 히로타다 !!!

### ■ 글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는 교훈을 준 글 속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봄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다 확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오토다케형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해평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전재영이라고 합니다. 형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형을 이야기로 담은 책을 보았습니다. 형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셨습니다.

형의 그런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구요.

그래서 모든일이 주위에서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형은 최선을 하고, 또 하여서 저는 형의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형이 무엇을 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룰때

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매일 포기하며 단절하며 살아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거예요.

형의 책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네요.

형! 저 이제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할게요.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권과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엮음(2003년)’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가르치는 교사가 쉽게 간과하지 않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아이들의 인권 개선, 특히 장애인 인권 개선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매체는 아이들과 가까이 있기에 그리고 당위성 및 필요성에 의해 접근하기에 아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실천에서는 국어, 사회, 도덕, 미술 교과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 내용 및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어	▪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장애 인권 침해 사례 조사하기
2. 사회	▪ 장애인에 대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하기
3. 도덕	▪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하기
4. 미술	▪ 장애인 인권 개선 신문 만들기      ▪ 장애인 보호 표지 마크 바꾸기

### 1. 국어 -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장애 인권 침해 사례 조사하기



- 왼손으로 자동차를 그려보기
  - 왼손으로 자동차 그리기
  - 자동차의 몸통에 자동차의 특징과 이름 저기
  - 왼손으로 가위질하기



- 여러분이 왼손잡이라면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싶는지 발표하기  
위와 관련된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을 예로 들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습관,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는 즉 장애인 인권 침해의 사례 조사해보기
-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를 발표하며 장애인들의 고통을 공감하기

2. 사회 - 장애인에 대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하기



- 인권의 소중함 생각해보기
  - 왜 인권이 소중한지 모둠별 토의하기
  - 인권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 발표하기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
  - 인권 보호 대상자들의 어려움은?
  - 인권 보호 대상자들이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방안 발표하기
- 장애인에 대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모둠별 조사보고서 작성하기
- 인권 지킴이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접 선출하기

3. 도덕 -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하기



- “최선을 다한 기쁨”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표하기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일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고 발표하기
-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해 조사해보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하기



4. 미술 - 장애인 인권 개선 신문 만들기 / 장애인 보호 표지마크 바꾸기



-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 여러 가지 책표지, 신문, 포스터 등을 수집하고, 내용을 알리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 가장 효율적으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기
- 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신문 만들기
- 기존의 장애인 표지 마크를 새롭게 디자인 해보기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하기

실천 과제 3  
힘 차 게

장애인 인권 보호 실천 및 태권 소년의 진로 개척

실천 과제 3 장애인 인권 보호 실천 및 태권 소년의 진로 개척은 인권에 대해 눈을 뜨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게 된 장애인 인권의 이해와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이다. 또한 태권 소년 또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권적 행동과 사고를 습관화하여 지속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실천 과제 3 장애인 인권 보호 실천 및 태권 소년의 진로 개척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다짐하고 생활 속에서 인권 보호 활동을 하며 작은 인권 운동가 되기와 태권 소년의 구체적인 진로 개척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맞잡은 손으로는 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던 이희아를 떠올리며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모여 ‘꿈의 피아노’를 만들었다. 장애 극복의 의미와 태권 소년과의 진정한 하나됨을 되새기며 만든 ‘꿈의 피아노’.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 장애의 슬픔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울리기를 기도하였다. 태권 소년이 자원하여 아침 일찍 나와 ‘꿈의 피아노’를 지키는 모습은 이희아의 피아노 연주곡 보다,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의 웃음 보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김진호의 금메달 보다, 마라톤 완주한 배형진의 백만불짜리 다리 보다 우리들에게는 소중하였으며 빛나 보였다.

● 실천 과제 3 힘차게 - 장애인 인권의 보호 실천 및 태권 소년의 진로 개척

세부 주제	나는야, 작은 인권 운동가	나는야, 미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함께 맞잡은 손
실천 목적	장애인 인권 보호를 다짐하고 생활 속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 전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갖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없이 함께 어울려 우정을 나누는 추억 및 꿈 다지기
실천 방법	활동 실천 중심	활동 실천 중심	활동 실천 중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된 인권과 장애인의 삶의 이해, 그리고 그 가운데 바뀌게된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해 나갔다.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함께 하는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은 확고해져 갔으며 더 나아가 인권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작은 인권 운동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 반 실천 지침서 만들기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표어, 포스터 만들기
- 우리 학교 장애인용 화장실 청소 및 환경 재구성하기
- 1일 인권 운동가 되기 : 아침 등교시 홍보

## 1.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 반 실천 지침서 만들기

작은 인권 운동가가 되어 맨 처음 활동한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 내용은 우리 반 실천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았다. 하나의 의미 있는 약속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권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었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6학년 2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지침서를 만들었다.

첫째, 주위에서 장애인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둘째, 무엇을 바라는 마음은 버리고, 남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며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관심과 마음으로 그들을 아껴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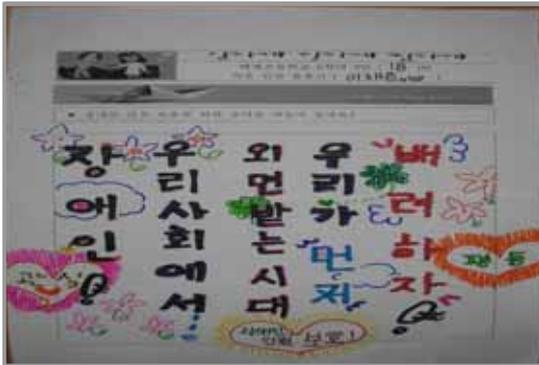
넷째, “사랑”이란 단어로 따뜻한 마음 모두 베풀겠습니다.

다섯째, “평등”이란 단어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위의 지침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표어, 포스터 만들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표어와 포스터를 만들었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갖게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의 내용을 담아 보았으며, 교실 및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여 그 마음을 전파하였다.



## 3. 우리 학교 장애인용 화장실 청소 및 환경 재구성하기

우리 반 청소 담당 구역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더욱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새롭게 꾸미자는 제안도 하였다. 아이들 스스로 화장실 벽면에 다양한 글귀와 무늬를 오려 화장실을 꾸며 놓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아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학교에는 특수 학급이 있다. 특수 학급 아이들에게 새롭게 바뀐 화장실을 깜짝 선물로 보여 주었다. '러브 하우스'처럼 자신을 위해 바뀐 화장실을 보고 아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며 화장실 환경을 꾸미는 아이들



▲ 아이들이 직접 꾸민 러브 하우스 우리 학교 장애인용 화장실



▲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

#### 4. 1일 인권 운동가 되기 : 아침 등교시 홍보

‘세상으로의 작은 외침’

1일 인권 운동가가 되어 장애인 인권 개선과 관련된 전단지를 작성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아침 등교 시간에 전단지를 전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짧은 30분 동안의 활동이었지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힘찬  
작은 인권 운동가 되기  
두 번째 걸음

## 나는야, 미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천성 장애(오른팔이 팔꿈치에서 손목 부분이 없는)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고 웃으며 사는 태권 소년.

우리 모두는 태권 소년에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 주었다.

‘미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꿈을 향한 지도를 함께 그려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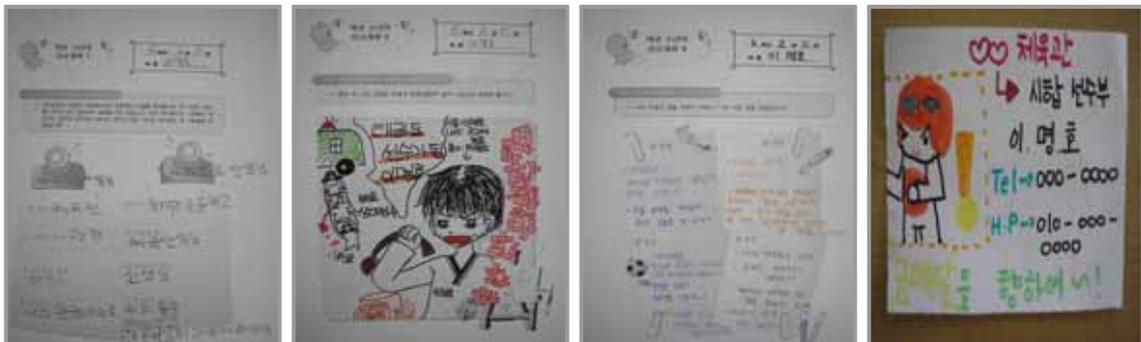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실력을 다지고 자신의 진로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미래를 자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래의 자신의 명함 및 프로필을 만들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져 보았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자신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태권 소년의 모습이 ‘미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를 기대해 본다.

▪ 각종 대회 출전하여 실력 다지기    ▪ 나의 진로 계획서 작성하기    ▪ 미래의 명함, 프로필 만들기

### ■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쌓은 태권 소년의 실력



- 2005년 제15회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배 태권도대회 품새부문 6학년 3위
- 2005년 경북태권도협회주최 경북신인선수권대회 남초부 헤비급 1위
- 2005년 경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부 구미시 대표 선발대회 초등부 2위



▲ 태권 소년의 진로 계획서와 미래의 명함

모두가 함께 맞잡은 손으로 꿈의 피아노를 만들었다.

태권 소년과 함께 만드는 꿈의 피아노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선물해 주었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피아노 전개도를 그리고 함께 우유곽을 모으고 자르고 오리고 붙이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만든 꿈의 피아노.

비록 오른팔이 팔꿈치에서 손목 부분이 없는 태권 소년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꿈의 피아노에서는 다른 아이보다 두 배, 세 배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자진하여서 아침 일찍 나와 ‘꿈의 피아노’를 지키는 태권 소년의 모습은 어느 덧 우리들이 태권 소년에게 기댈 만큼 커져 있었다.

### • 태권 소년과 함께 꿈의 피아노 만들기



▲ 함께 모여 꿈의 피아노를 설계하고 만드는 모습



▲ 꿈의 피아노를 지키는 태권 소년과 완성된 꿈의 피아노

## V. 장애인 인권 교육의 효과 및 결론

### 1. 장애인 인권 교육의 효과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 교육의 실천 과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 정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사후 설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면담 및 관찰, 일지 작성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권 소년의 올바른 진로 탐색을 꾀할 수 있었다.

#### ■ 설문 조사를 통한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변화 분석

(장애인 인권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 / 문항당 5가지의 보기 - 1번 체크 2점, 2번 체크 4점, 3번 체크 6점, 4번 체크 8점, 5번 체크 10점 / 문항당 10점 만점으로 점수 변환하여 전체 평균 작성 비교)

성격	부정				긍정
보기	1	2	3	4	5

순	설문 내용	사전	사후	변화정도
1	▪ 인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나요?	3.6	8.4	+ 4.8
2	▪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나요?	4.6	9.3	+ 4.7
3	▪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있나요?	5.5	9.2	+ 3.7
4	▪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나요?	4.3	8.9	+ 4.6
5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4.6	8.8	+ 4.2
6	▪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3.4	8.8	+ 5.3
7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잘 실천하고 있나요?	4.0	9.2	+ 5.2
8	▪ 장애를 극복한 인물을 잘 알고 있나요?	5.4	9.6	+ 4.2
9	▪ 매체 속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하고 이해하나요?	3.2	8.8	+ 5.6
10	▪ 태권 소년과 잘 어울리나요?	6.4	9.4	+ 3.0
평 균			4.50	+ 4.5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 교육의 실시로 + 4.5 크기 만큼 아이들의 생각은 자랐고 태권 소년과도 더욱 잘 어울리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지 작성을 통한 아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변화 분석

조○○	나는 지금까지의 인권 교육 활동을 통해 사람의 권리는 참 소중하다고 느꼈다.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하면서 장애인들의 힘든 점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외 공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였다. 나는 인권은 참으로 소중하며 침해당하거나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만약 길을 가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	여러 가지 인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깐 마음아 아팠다. 장애인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고, 마라토너, 국가대표 수영선수도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일반사람들을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라는게 부끄럽다. 장애인 차별하지 말아요!
김○○	우리 반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장애인 인권에 관해 공부했다. 마라토너 형진이는 장애인이지만 뛸 수 있다는 권리가 있고 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도 개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네 손가락을 가진 희아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은 더더욱 소중히 여기며 장애인을 보면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박○○	오늘까지 우리는 다양한 인권 교육 활동을 해보았다. 장애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이 있으며 그 인권을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장애인도 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훌륭한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태권 소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나는 이번 인권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내 꿈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한 10년 뒤 쯤 세계대회에 나가 당당히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상상하며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도 참기로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 장애인 인권 교육의 결론

인권교육.

순간 나는 물음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로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나 또한 생소하고 새로운 느낌이었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권에 관한 참고서적을 찾아 탐독했으며 관련 논문도 수 차례 뒤적여 보았다. 예상외로 관련 서적도 많았으며, 논문 또한 이미 인권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머리 속에는 인권에 관한 그림이 나도 모르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실천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씩 하나씩 펼쳐갔는데, 처음에

는 아이들 또한 휘둥그레한 눈으로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아이들은 그 다음 펼쳐질 그림을 궁금해 하였다.

‘말아톤’ 영화를 보고 주먹 불끈 쥐고 다같이 기뻐했던 일, 러브하우스처럼 우리 학교에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꾸며 공개하던 날 너나 할 것 없이 감동 받아 영영 울었던 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전단지를 만들어 아침 일찍 등교해 홍보하던 일 등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러 모습이 기억해 본다.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 네모 났던 아이들의 마음이 어느 덧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다.

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 아동의 울곧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게 여겨지고 그 마음을 함께 맞잡은 손으로 그리는 동그라미에 담아 본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1.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아침이슬, 2004
2. 우리 교과서의 인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실, 2003
3. 인권교육 실천사례,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2004년
4. 6학년 국어, 사회, 도덕, 미술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5.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윤리전공, 신호선, 2003
6. 인디스쿨 : <http://211.47.69.143>
7.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나는 인권지킴이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 만들래요

---

# I.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 1. 첫 영어시간

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아동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겸 새 책의 겉표지부터 살펴보려고 하였다. 몇 장을 넘기니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등장인물들 중에서 토머스라는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데, 우리 반의 한 아동이

“깜둥이네.”

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보니 흑인같이 보이는 남자, 여자가 한 명씩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흑인이지. 깜둥이라고 하면 안돼.”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했다.

[Listen and Repeat]에서 대화를 듣고 따라하던 중 두 번째 대화장면은 한국 소녀 미나와 토머스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아동들을 찍은 것인데, 토머스가 흑인 아동으로 등장하자

“되게 못생겼네.”

“좀 무섭게 보이지 않나?”

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순간 나는 멈칫했다. 앞서 백인 외국인이 등장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던 아동들이 흑인을 화면으로 보자마자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 2. TV 광고

TV 화면에 한 광고가 보여진다. 주민등록증에는 한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지만 그 옆의 사진은 언뜻 보아도 외국인 같아 보였다.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러 명의 주민등록증이 보여지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차이를 알면 차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지 인종에 대한 선입견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급에서도 옷이 조금

만 누추해 보여도, 수업시간에 한번만 대답을 잘 못해도 이미 아동들은 ‘저 아이 집은 못 사는 것 같아.’, ‘저 아이는 공부를 못 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면 쉽게 무시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한다.

### 3. 나

교사인 나도 아동들에게 쉽게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

“너는 이것도 모르고 뭐했니?”,

“○○이는 잘 하는데 너는 뭐 하니?”

이렇게 화풀이하듯 하는 말들이 아동들에게 상처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다. 아동들이 집에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교실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실수했던 말이나 행동들에 반성을 하곤 했다.

‘내일부터는 아동들에게 존중하는 행동을 해야 겠다.’

그래서 시작한 높임말 쓰기가 아직도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 4. 나아갈 길

이 인권교육 실천사례는 우리 아동들보다는 나 자신부터 바꾸어 가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짧은 교직 경력의 전환점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아동들에게 인권교육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 의식을 갖게 하여 함께 어울리는 사회 속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약한 사람들을 공감하는 안목을 길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보듬어 주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인권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

## II. 우리 모습 살펴보기

### 1. 현재 우리 모습

가. 교사

- ◆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연수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직접 인권교육을 해본 적이 없음
- ◆ 학급에서 비교적 아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수업시간 중 높임말 쓰기, 차별적인 대우하지 않기를 목표를 노력하는 편임



- ▷ 인권교육 프로그램 계획
- ▷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내면화 유도

## 나. 아동

- ◆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음
- ◆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많은 편임
- ◆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아동도 있으며 스스로 다른 친구들에게 말이나 행동을 나쁘게 한 적도 있다고 하므로 지도가 절실히 필요함
- ◆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다투는 경우가 많음
- ◆ 양보심이 부족하고 무질서한 편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함



- ▷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기
- ▷ 자유와 책임의식 기르기
- ▷ 공동체의 중요성 알기
- ▷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자세 기르기
- ▷ 폭력과 차별 없애기

## 다. 학부모

- ◆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편이며 인권 신장에서 관심이 많음
- ◆ 가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공감함
- ◆ 아동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학습면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바르게 기르기를 바라는 편임



- ▶ 가정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유도
- ▶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함께 하는 기회 제공
- ▶ 체험활동에 가족 구성원들의 동참 유도

## 라. 주변 여건

- ◆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여서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서로의 유대 관계가 부족한 편임
- ◆ 타 시·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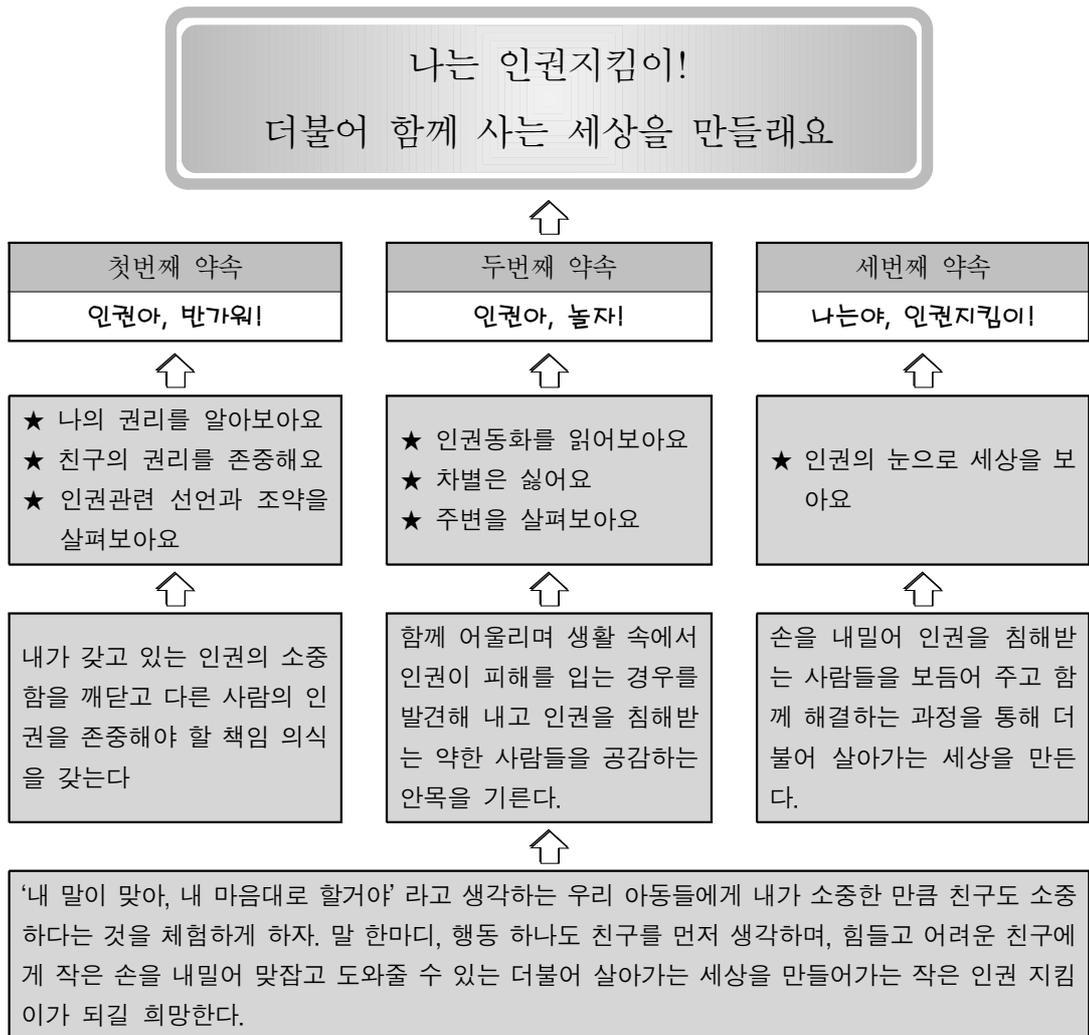


- ▶ 서로 배려하고 어울림 있는 활동의 꾸준한 실천
- ▶ 체험을 통한 인권교육

## 2.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영역	이루고 싶은 내용
인권 알기	내가 갖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
인권 감수성 높이기	함께 어울리며 생활 속에서 인권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발견해 내고 인권을 침해받는 약한 사람들을 공감하는 안목을 기른다.
인권친화적으로 행동하기	손을 내밀어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 Ⅲ. 인권 지킴이들의 약속



## IV. 인권 지킴이들의 계획

### 1. 시기와 대상

가. 시기 : 2005년 3월 1일 ~ 2005년 9월 30일

나. 대상 : 경산 옥곡초등학교 3학년 2반(남 16명, 여 18명, 계 34명)

### 2. 실천 시기와 방법

실천 약속	실천 약속 주제		실천시기					실천방법				인권 관련 분야		
			연간	학기간	매일	특정일	행사시	교과	특활	재량	아침		가정	
첫번째 약속 인권아, 반가워!	★나의 권리를 알아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특별한 이름</li> <li>몸으로 말하는 인권</li> <li>함께 만드는 권리 수첩</li> <li>우리 반 규칙 만들기</li> </ul>		○		○				◎	◎		◎	나의인권 타인의 인권
	★친구의 권리를 존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마워요 미안해요</li> <li>무엇이든 그럴수 있어요</li> <li>똑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좋아요</li> </ul>		○		○				◎	◎			타인의 인권
	★인권관련 선언과 조약을 살펴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노래 만들기</li> <li>인권 주제로 그리기</li> <li>인권 생각그물 하기</li> <li>인권 ○× 퀴즈</li> </ul>		○		○			◎	◎	◎			인권전반 어린이 인권
두번째 약속 인권아, 놀자!	★인권 동화를 읽어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후감쓰기</li> <li>독서화그리기</li> <li>독서퀴즈대회</li> <li>독서편지쓰기</li> </ul>	○		○	○			◎	◎		◎	◎	장애우 노인인권 이주노동 자인권
	★차별은 싫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구는 내 친구</li> <li>경찰관이 되어요</li> <li>선물 고르기</li> </ul>		○		○				◎	◎			인권전반 이주노동 자인권
	★주변을 살펴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기</li> <li>장애 체험하기</li> <li>성 역할 돌아보기</li> </ul>		○		○			◎	◎	◎			장애우 인권 남녀평등
세번째 약속 나는야, 인권 지킴이!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 해결해요</li> <li>우리의 아름다운 실천</li> <li>봉사활동</li> </ul>	○	○	○	○	○		◎	◎	◎		◎	인권전반 장애우 인권

## V. 인권 지킴이들의 약속 실천

### 첫 번째 약속 ♥ 인권아, 반가워!

약속 주제	약속을 실천한 활동	실천시기	인권관련분야
나의 권리를 알아보아요	나의 특별한 이름	3월 3주 특활	나의 인권 타인의 인권
	몸으로 말하는 인권	3월 4주 재량	
	우리 반 규칙 만들기	3월 5주 특활	
	함께 만드는 권리 수첩	4월 1-2주	
친구의 권리를 존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4월 3주 특활	타인의 인권
	무엇이든 그럴 수 있어요	4월 4주 재량	
	똑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좋아요	4월 5주 특활	
인권관련 선언과 조약을 살펴보세요	인권 노래 만들기	5월 2주 재량	인권전반 어린이인권
	인권 주제로 그리기	5월 3주 미술	
	인권 생각그물 하기	5월 4주 특활	
	인권 ○ × 퀴즈	9월 3주 특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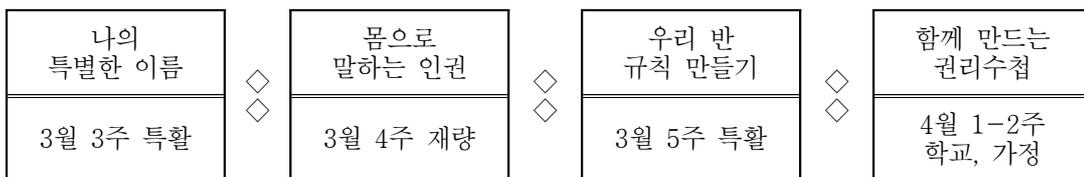
#### 약속 주제 1

#### 나의 권리를 알아보아요

#### 이런 마음으로

양보하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아동들이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주장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나의 권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런 활동으로



## 활동 1 - 나의 특별한 이름

- (1) 자신의 이름 대신 직접 내 이름을 지어 보았다. 장래 희망이나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 등을 생각하며 남들에게 불리고 싶은 이름을 지어 보았다.
- (2) 내 짝에게 나의 새 이름을 소개하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 (3) 모둠별로 모여서 손을 잡고 짝의 이름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고, 친구의 새 이름을 경청하여 들었다.
- (4)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새롭게 지은 이름을 서로 불러 주고 악수하며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
- (5)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스스로 생각한다.

<표 1> 나의 새 이름

이름	새 이름	이유
최영웅	이수룡	水龍처럼 거세고 용감하게 크고 싶어서
정소영	정소영	세상에서 하나뿐인 부모님이 지어주신 내 이름이니까
복성범	복지겸	저의 시조 할아버지를 닮아서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이하성	제우스	제우스를 닮고 싶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김찬술	장보고	바다의 왕인 장보고가 멋있어서



▲ 모둠별로 소개하기



▲ 서로 격려하기



아동들이 어려워했다. 그냥 자기의 이름이 좋다는 아동도 많았다. 새 이름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악수하는 활동을 통해 표정도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 활동 2 - 몸으로 말하는 인권

- (1) 어린이 그림 한 장과 사물이 그려진 그림 한 장씩 나눠 주었다.
- (2) 우리 신체의 각 부분에 인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썼다.
- (3) 의자, 연필, 책, 지우개가 인권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써 보았다.
- (4) 의견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한 사례에 대해 반성하였다.

- (5) 인권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의 사물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 사물의 권리



▲ 우리 몸의 권리



아동들이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았다. 의논을 잘 하는 모듬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모듬도 있어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 활동 3 - 함께 만드는 권리 수첩

- (1) 자신이 속한 집단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았다.(가정, 학교, 학원, 종교단체, 준거집단 등)
- (2)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보호받고 싶은 권리나 지켜야 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 (3) 1주일동안 가족, 선생님, 친구를 찾아가 권리 수첩을 만들었다. (4) 자신이 만든 권리 수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 (5) 가족, 선생님, 친구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지켜야 할 다른 사람의 권리들을 알고 실천하는 마음을 다진다.



▲ 권리수첩 겉표지



▲ 권리수첩 내용(친구)



나에게 권리수첩을 들고 와서 써 달라고 할 때마다 정성껏 써주면서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잘 지켜주어야겠다고 나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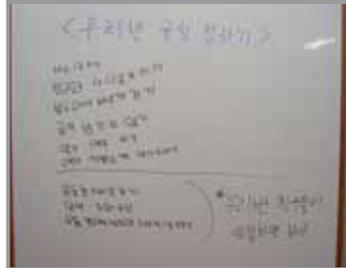
### 활동 4 - 우리 반 규칙 만들기

- (1) 모듬별로 지켜야 할 규칙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을 의논해 보았다.
- (2) 모듬별로 의논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 (3) 최종 학급 규칙을 정하였다.

(4) 아동들 스스로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여 친구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듬별 발표 모습



▲ 우리 반 규칙



모듬별 의논 시간이 꽤나 진지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을 정할 때 스스로의 반성보다는 선생님의 벌을 당연시해서 교사의 수정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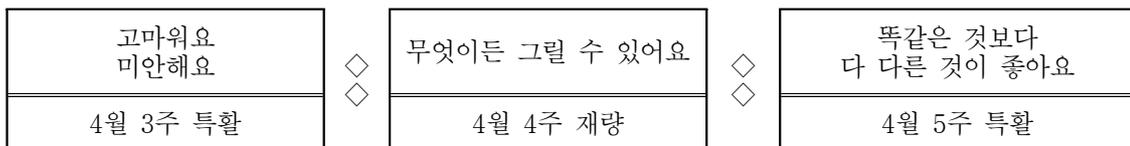
약속 주제 2

친구의 권리를 존중해요

이런 마음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친구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친구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활동 1 - 고마워요 미안해요

- (1) '내 마음대로 할거야' CD 애니메이션을 본 후 친구들과 내 마음대로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았다.
- (2) 도움이 되는 행동과 피해가 되는 행동을 찾아보았다.
- (3) 도움과 피해가 되는 행동을 역할 놀이로 표현해 보았다.
- (4) 일주일동안 도움과 피해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 적어 보면서 반성하였다.
- (5) 친구에게 도움과 피해가 되는 행동을 알고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반성한다.



▲ 역할놀이 모습



▲ 일주일동안 활동지



평소 행동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말하며 역할 놀이로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아! 그랬구나' 하는 표정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 활동 2 - 무엇이든 그릴 수 있어요

- (1) 덜 그려진 그림이 그려진 활동지를 나누어 주었다.
- (2) 생각나는 대로 덜 그려진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였다.
- (3) 자신이 그린 그림이 어떤 것인지 친구들에게 소개하였다.
- (4) 주어진 그림은 똑같았지만 완성된 그림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 그림 발표 장면



▲ 아동 작품



정말 다양한 아동들의 작품에 나도 적잖이 놀랐다. 아동들도 자기와 다른 친구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고 크게 박수 쳐주고 잘했다며 서로 칭찬해 주었다.

### 활동 3 - 똑같은 것 보다 다 다른 것이 좋아요

- (1) 몸으로 하는 게임활동이어서 사전 몸풀기를 하였다.
- (2) 모듈별 대항 게임으로 한 모듈씩 나와서 교사가 주제를 보여주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그 주제를 몸으로 표현하였다.
- (3) 같은 모양을 제일 잘 한 모듈에는 '공동체' 상을 주고 다른 모양을 제일 잘 한 모듈에는 '표현의 자유' 상을 주었다.
- (4) 활동이 끝난 후 느낌 점을 적어 보았다.
- (5) 같은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 활동 모습



서로 같게 표현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둠이 질 것 같아 속상했는데 ‘표현의 자유상’을 받아서 기뻐다. 남의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인정해야겠다.



단어를 맞추지 못한다고 속상했지만 ‘표현의 자유상’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이 길러지길 희망한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약속 주제 3

인권관련 선언, 조약 살펴보아요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인권 관련 선언이나 조약을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임을 알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인권 노래 만들기	◇	인권 주제로 그리기	◇	인권 생각그물하기	◇	인권 ○×퀴즈
5월 2주 재량		5월 3주 미술		5월 4주 특활		9월 3주 특활

활동 1 - 인권 노래 만들기

<어린이 보호>

3모듬

어린이 보호 폭력금지~  
욕설금지, 납치금지 실천해봐요  
이제는 어린이 보호를 합시다  
그리고 어린이들 사랑해줘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세상 만들죠  
(‘꼬까신’ 노래에 맞춰서)

<납치 송>

4모듬

납치 싫어 납치 싫어  
납치 싫어요(정말 싫어)  
납치 싫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납치없는 세상은  
생각하면 OK OK



▲ 노래 발표 모습

▲ 인권 노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살펴 본 후)

**활동 2 - 인권 주제로 그리기**



4조  
노예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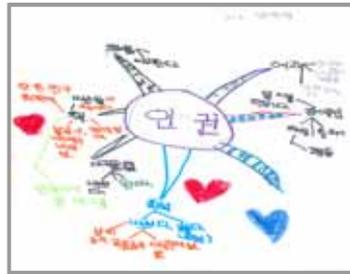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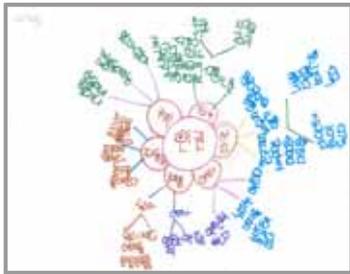
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2조  
차별은 없다

▲ 아동 그리기 작품(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본 후)

**활동 3 - 인권 주제로 생각 그물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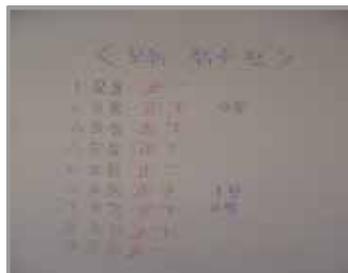


▲ 아동의 생각 그물 작품

**활동 4 - 인권 OX 퀴즈**



▲ OX 퀴즈 장면



▲ 모둠 점수



인권에 관한 내용이나 인권 조약들을 15문제로 만들어 모둠별로 O×를 결정하여 게임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진지하게 참여했고 배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두 번째 약속 ♥ 인권아, 놀자!

약속 주제	약속을 실천한 활동	실천시기	인권관련분야
인권 동화를 읽어보아요	독후감 쓰기	6월 중	장애우, 노인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독서화 그리기	6월 중	
	독서 편지 쓰기	6월 중	
	독서 퀴즈 대회	7월1주 재량	
차별은 싫어요	살구는 내 친구	6월 2주 특활	인권전반 이주노동자 인권
	경찰관이 되어요	6월 4주 재량	
	선물 고르기	9월 1주 재량	
주변을 살펴보아요	성 역할 돌아보기	6월 3주 국어	장애우인권 남녀평등
	우리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기	9월 2주 재량	
	장애 체험하기	9월 2주 특활	

### 약속 주제 1

### 인권 동화를 읽어 보아요

#### 이런 마음으로

장애우, 이주노동자, 노인 인권에 대해 쓴 동화책을 읽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소외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간접 교육이 되길 바랬다.

#### 이런 활동으로

독후감 쓰기	◇	독서화 그리기	◇	독서편지쓰기	◇	독서퀴즈대회
6월 중		6월 중		6월 중		7월 1주 재량



### 활동 1 - 독후감 쓰기

석우는 처음엔 심술이 좀 있지만 나중엔 영탁이의 친구가 되어 준 착한 친구다. 영탁이는 가방을 들어 준 석우를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석우, 영탁이 모두 착한 친구인 것 같다. 비록 장애를 가졌더라도 마음이 예쁘면 마음은 빼뺏어진 어린이보다는 더 나은 어린이라고 생각한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석우다. 석우는 솔직히 하기 싫은데 계속 칭찬을 들어면서 영탁이랑 잘 놀았다. 난 장애인과 놀아본 적이 없고 친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번에 장애우를 만나러 가는 봉사활동이 기대된다. 가서 장애우랑 잘 놀고 싶다.

▲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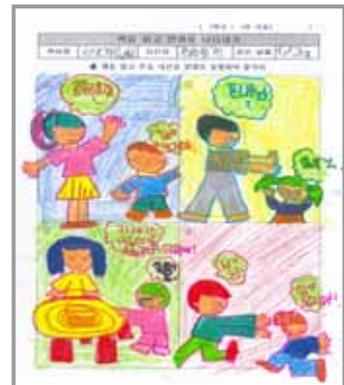
### 활동 2 - 독서화 그리기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 「엄마, 엄마」를 읽고



▲ 「학대 싫어요」를 읽고

### 활동 3 - 독서 편지 쓰기

흰둥이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었는데, 순하고 집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죽어버려서 막내 고모도 많이 울었죠. 저는 할머니가 계신 곳에 흰둥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흰둥이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해요. 그리고 흰둥아! 힘내, 꼭 할머니가 돌아오실거야

▲ 「흰둥이네 할머니」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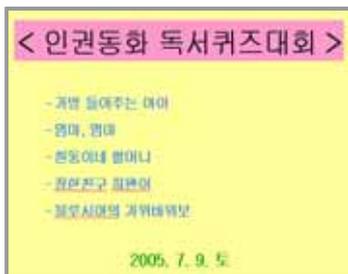
희완이에게

희완아, 안녕 난 선민이야

‘아에이오우’ 이렇게 연습하면 발음이 잘 될지도 몰라 그리고 빨리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동생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착한 부모님과도 이제는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라게

▲ 「장한 친구 희완이」를 읽고

### 활동 4 - 독서 퀴즈 대회



▲ 독서 퀴즈 장면



한 달여간 학급에서 책을 읽은 후 아동들이 직접 낸 문제로 독서퀴즈대회를 열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문제를 맞추어서 기뻐하는 모습이 즐거웠다.

약속 주제 2

차별은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친구를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차이와 차별을 알고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또한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랐다.

이런 활동으로

살구는 내 친구
6월 2주 특활



경찰관이 되어요
6월 4주 재량



선물 고르기
9월 1주 재량

## 활동 1 - 살구는 내 친구

- (1) 아동들에게 살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 (2) 자기 살구를 자세히 살펴보고, 살구의 사소한 특징이나 두드러진 표시 등을 관찰하며, 살구와 친구가 된다.
- (3) 모둠별로 자기의 살구 친구를 소개하였다.
- (4) 살구를 모두 모아서 자기 살구 친구를 찾는다.
- (5) 사물이나 사람을 처음 보면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면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



▲ 살구와 친구 되기



▲ 살구 친구 찾기



처음에 살구를 보고 맛있겠다라고 입맛을 다시던 아동들이 살구와 친구되기를 하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자기 살구 친구에게 애착을 보이며 즐거워하였다.

## 활동 2 - 경찰관이 되어요

- (1) 자신이 경찰관이라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교통규칙을 위반한 사람(1년전 도둑질한 전과자, 국회의원, 미국인 관광객, 필리핀 노동자, 인기가수)에게 얼마의 벌금을 매길지 모둠별로 의논하였다.
- (2) 모둠별로 벌금액과 이유를 발표하였다.
- (3) 벌금액이 평등한지 함께 토론하며 정리하였다.
- (4)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진정하게 평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모둠 토론 모습



아동들이 1년 전 도둑질한 전과자, 필리핀 노동자에게 벌금을 많이 주고 국회의원이나 인기가수, 미국인 관광객에게는 벌금을 적게 주었다.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서 함께 토론하면서 정리할 때 많은 토론이 필요했다. 전과자라고 같은 잘못도 아닌데 벌금을 많이 받는 것은 부당하며 외국인이라면 노동자나 관광객에게는 비슷한 벌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아동들이 다시 정리하였다.

 활동 3 - 선물 고르기

- (1) 크기와 모양, 포장지가 각각 다른 선물을 4가지 준비하였다.
- (2) 4개의 상자를 보여주고,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였다.
- (3) 선택한 아동들이 자신의 선물을 열어보았다.
- (4) 선물 확인이 모두 끝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 (5) 겉모습으로 인해 친구를 다르게 보지 않고, 포장이 예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임을 스스로 느껴본다.



▲ 선물 선택하기



▲ 선물 확인하기



화려하고 큰 선물 앞에 많은 아동들이 모였지만 많은 신문지와 과자 한 봉지에 매우 실망하였다. '다시는 크고 예쁘다고 속지 않아야지'하는 말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약속 주제 3

주변을 살펴 보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이 장애우의 생활에 편리한지를 살펴보고 불편한 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도와 줄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그리고 남녀의 구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진정한 남녀 평등을 생각해 보았다.

이런 활동으로

성 역할 돌아보기	◇	우리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기	◇	장애 체험하기
6월 3주 국어	◇	9월 2주 재량	◇	9월 2주 특활

## 활동 1 - 성 역할 돌아보기

- (1) 국어(말하기 듣기) 85쪽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 (2) 활동지에 10가지 항목 중에 남자의 일, 여자의 일, 공동의 일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 (3) 반 전체가 어떻게 구분했는지 통계수치를 적어보았다.
- (4) 결과를 보면서 각 항목별로 성 역할이 규정되어진 이유와 타당한지를 토론하였다.
- (5) **성 역할이 있다는 것이 성차별임을 알고 남녀평등을 지향한다.**

번호	일	합계 숫자		
		남	여	공
1	병역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가는 일	32	0	3
2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갖는 일	7	7	21
3	집안 살림을 꾸려 가는 일	1	21	13
4	요리를 하는 일	0	24	11
5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을 맡는 일	28	0	7
6	아기를 양육하는 일	0	24	11
7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	2	13	20
8	교실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는 일	1	15	19
9	전기용품이나 가구를 구치는 일	34	0	1
10	집안의 세대주가 되는 일	7	6	22



몇 가지 항목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구분되어진 것이 많았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요’라고 말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가정에서부터 점차 바뀌어질 필요성을 느꼈다.

## 활동 2 - 우리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기

- (1) 우리 학교 시설들이 장애우가 생활하기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점검해보았다.
- (2) 목발을 짚고 다니는 우리 반 친구 세훈이를 생각하며 친구가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 장애인 편의 시설 점검



새 학교라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지만 우리 반 세훈이가 넘어졌을 때 장애우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으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면대도 같이 있는 것이 장애우한테는 편리할 것 같다.

**활동 3 - 장애 체험하기**

- (1) 넓은 교실에서 아동들이 직접 장애 체험을 해 보았다.
- (2)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걷기가 불편해요 라는 게임을 하였다.
- (3) 각 활동을 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적고 발표하였다.
- (4)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우의 어려운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



▲ 장애 체험 하기

**세 번째 약속 ♥ 나는야, 인권지킴이!**

약속 주제	약속을 실천한 활동	실천시기	인권관련분야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함께 해결해요	수시로	장애우인권 인권전반
	봉사활동	6월4주 토요일	
	우리의 아름다운 실천	7월,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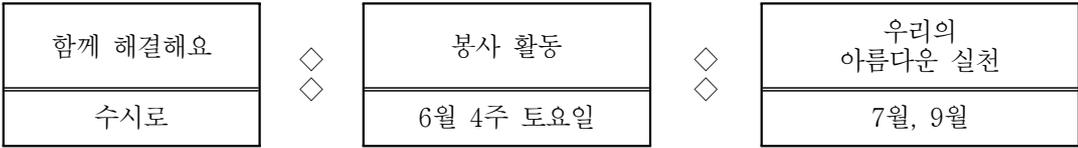
약속 주제 3

주변을 살펴 보아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인권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좀더 적극적인 실천을 하여 우리 아동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활동 1 - 함께 해결해요**



- (1) 아동들의 생활 속에서 고민이나 힘든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보자는 뜻으로 학급 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었다.
- (2) 자신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고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활동 2 - 봉사 활동**

- (1) 아동들과 대동시온재활원에 가서 장애우들을 직접 만났다
- (2) 장애우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3) 장애우들의 점심 준비도 도와드렸다.
- (4)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우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하는 활동 속에서 아름다운 실천을 이어간다.



▲ 대동 시온 재활원 봉사 활동

**활동 3 - 우리의 아름다운 실천**

- (1)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반을 아름답게 만든 친구를 선정하여 인권상을 주었다.

- (2) 아동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후 교사가 시상하였다.
- (3) 작은 실천으로도 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 반이 아름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누구나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한다.



▲ 우리들의 아름다운 실천

## VI. 인권지킴이들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1. **첫 번째 약속 : 인권아, 반가워!** 를 통해

인권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의 권리를 찾고 친구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두 번째 약속 : 인권아, 놀자!** 를 통해

아동들이 좋아하는 인권동화를 함께 읽어보고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

하여 인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 외국인, 노인, 성 역할 등 좀더 세분화된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3. 세 번째 약속 : 나는야, 인권지킴이! 를 통해

앞서 배우고 느꼈던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동들의 작은 몸짓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실천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 4. 나의 작은 인권지킴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학교에 목발을 짚고 나오는 세훈이란 아동이 있다. 친구의 아픔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잘 대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선생님이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아동들 스스로 세훈이를 챙겨주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수업이 늦게 끝나 급식실 가는 것이 평소보다 늦어져 서둘러 아동들을 이끌고 급식실로 간다고 미처 세훈이를 챙기지 못하였다. 급식실에 도착하여 식판을 들고 보니 세훈이 생각이 떠올라서 ‘아차’ 하는 마음에 밖을 보니까 우리 반 아동들 몇이서 목발을 짚고 오는 세훈이 옆에 나란히 오고 있었다.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속도가 꽤나 느린데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오는 모습에 나는 눈물이 뿜 돌았다. 정신없이 서두른다고 챙기지 못한 교사보다 점심식사가 좀 늦어도 친구와 함께 가겠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감동스러웠다.

그동안 나의 인권교육이 잘 되어 왔다고 자부할 수 없지만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 반 아동들 마음 속에 작은 인권의 싹이 틔어져 있으며 그 아동들의 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

# 뿩반 아이들, 일반 아이들 만들기

---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권 실천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초등학교 교사 박수진

# I. 우리 학교 바로 알기

## 1. 외로운 섬, 특수학급

1) “싫어요. 제량은 짝하고 싶지 않아요.”

학기초마다 일반학급 아동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반 아이들에게 짝을 만들어달라는 나의 요구에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늘 전하는 말이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짝이 꼭 필요하거든요...”가 어김없이 나에게서 나오는 답변이다. 해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원적학급 담임교사와의 관계 맺기, 우리반 아이들의 새 짝꿍과의 관계 맺기에서 과정의 불편한 시선에서 또 다시 새롭게 일년을 준비한다.

2) “아니요, 저는 승진점수 있어도 특수반 아이는 맡기 싫은데요.”

역시 학기 초마다 일반학급 담임교사에게서 듣는 말이다. 그 말에 여지없이 이어지는 말들...“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특수아동은 다 특수학교로 갔으면 좋겠어요. 글썄요. 제가 고학년 담임만 해 와서 쉽게 여러번 천천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정 우리반에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뭐 요구와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이 들어오면 연구수업 하는 기분이니깐 그것도 동의해 드릴 수 없어요”

3) “특수반 아이랑 같은 교실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면 수업을 거부 하겠어요.”

학교 신설 2년차, 학급 신설 1년차에 일반학급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다. “참사랑반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글씨를 비뚤어지게 쓰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데 그 아이랑 짝 한 다음부터는 글씨가 영 엉망이에요. 성적도 떨어졌구요.” “어떻게 선생님은 선생님반 아이들만 생각하세요?”

4) “아니 남들은 다들 관심이 없는데 뭘 그렇게 벌이려고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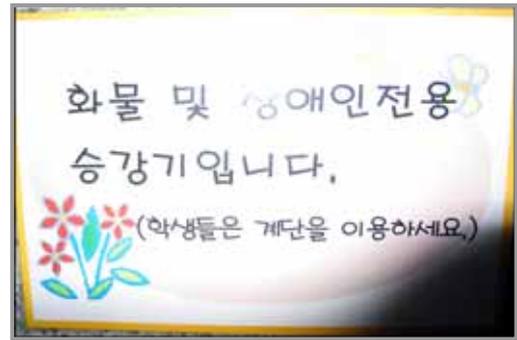
“전교생 중에 선생님반 아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전체 행사를 많이 벌이려고 해?”

해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할 때마다 학교 관리자들에게서 어김없이 나오는 소리이다.

“이번에 제가 원적학급 재량수업을 한 학기 정도 맡고 싶은데요?” “글썄, 그게 어머니들 동의도 얻어야 하고, 담임교사 동의도 얻어야 하고, 말이 나기도 쉬운 사안인데, 그냥 접는 게 어때?”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여지없이 관리자들에게 듣는 소리이다.

## 5) 화물 및 장애인 전용 승강기

우리 학교는 신설학교라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특수학급의 교실도 온돌바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온돌은 학기 중에는 한번도 가동을 한 적이 없고, 방학 중 동파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람이 아닌 기계시설을 위해 가동한다. 엘리베이터 또한 설치되어 있다. 이를 이유로 우리 반 친구들의 원적학급을 1층으로 내려달라는 내 주장의 답변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켜지는 날은 화물을 운송하거나 학교에 손님이 오는 날이 고작이다. 그 이유는 일반 어머니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켜줄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이다. 엘리베이터 앞의 아래와 같은 안내문은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한다. 이 안내문이 화물보다 장애인을, 장애인은 학생이 아니라고 화물 안내문의 내용장애인보다 화물이 우선시 되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건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 엘리베이터 안내문

## 2. 특별한 아이들, 異반아이들

### 1) 본 교의 특성

본교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학교로 30-60평형대의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학교로 2002년에 개교하여 금년이 4년째에 이르는 학교이다. 학부모 비율 중 10%가량은 의사와 교수이고, 고학년이 되면 조기유학을 가거나 서울로 전학을 가는 등 자녀의 학업성취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한때 교사수급의 불균형으로 복직한 교사의 비율이 높고,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가 전혀 없고 관리자 또한 연수 경험이 없다. 따라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낮은 학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본 학급의 특성

- (1) 2003년도에 신설된 학급으로 신설시에 장애아동이 부모들의 요구가 아닌 학교측의 요구와 추진 및 형식적 사전동의로 인해 설치되어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입급자체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 (2) 지역의 아파트 단지인 우리 학교의 학구안에 장애아동 부모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해당 학부모와 아동은 길 건너편의 전통이 깊고 학급수도 2개이며 보

조원이 있고, 농촌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장애아동들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통합 기반 여부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학부모들만이 본 교 특수학급에 장애아동들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어서 통합의 지원과 학교활동의 참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 (3) 2005년도는 졸업생과 신입생의 미입급, 완전통합의 요구 등으로 인해 우리 학급에 입급되어 시간제로 수업에 참가하는 아동이 4명, 그 외에 완전통합 아동 2명, 기타 부적응 아동 4명으로 총 10명의 아동이 본 프로그램의 효과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학급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고 그 결과의 혜택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표 1> 본 학급 입급 장애아동

아동별	학년	장애 내용	아동의 특성	프로그램 주안점
□□ 송○○	2학년	발달장애 2급 (자폐)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완전통합을 하고 있는 아동으로 교사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임. 친구들이 잘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의 잘해 주려는 마음이 지속되기 어려움.	일반학급 아동에 자폐아동에 대한 이해교육 자폐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황□□	3학년	정신지체 2급 (언어장애)	수용언어는 가능하나 표현언어에는 어려움을 보임. 대·소근육 발달이 느림. 선긋기와 동그라미 그리기, 의사소통하기, 조작활동을 즐기는 수준임.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교육 언어장애가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변△△	5학년	지체장애 2급 (학습장애)	한쪽 다리에 마비가 있고, 소근육 발달이 느림. 1학년 수준의 학습수준임. 친구들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지체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교육 의존적이지 않게 독립적으로 또래관계 형성하는 법에 대한 교육
□□ 문◇◇	6학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부적응)	3학년 수준의 학습수준을 보임.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다툼이 잦은 편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이해교육, 왕따와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본 학급에 입급된 아동을 제외하고, 장애 어린이 및 학급활동에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아동이 5명 존재한다. 아래 제시된 아동들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상태에 대해 인정하고 교육 및 치료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급 담임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학급 내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주요하게 왕따를 경험하는 아동들이다. 수차례 학부모 면담을 조직하고 부모를 설득하였으나 아동의 진단 및 교육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수준에서만 상담이 이루어졌다.

<표 2> 완전통합 및 부적응아동

아동별	학년	장애 및 부적응 내용	아동 및 환경 특성	프로그램 주안점
□□ 이○○	1	간질,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부모가 교육에 적극적이고 학습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음.	간질에 대한 이해 친구관계 맺는 방법 교육
□□ 윤&&	2	발달장애 2급 (자폐스펙트럼)	완전통합을 하고 있고, 언어치료 외에 다른 특수교육은 받고 있지 않음.	자폐특성에 대한 이해, 친구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교육
□□ 이□□	4	경계선급 정신지체,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부모가 아동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소아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음.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일반 아동 대상의 이해 교육, 왕따 및 인권교육
□□ 박△△	5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경향	주의가 산만하고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임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일반 아동 대상의 교육, 왕따 및 인권에 대한 교육
□□ 윤◇◇	6	지체장애 2급 뇌성마비	상·하지 편마비로 언어영역의 교과에는 지장이 없으나 수리영역에서는 어려움을 보임	뇌성마비(뇌병변)에 대한 이해교육 및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교육
□□ 박@@	6	경계선급 정신지체, 혹은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과 정신분열증 요소를 보이고 있으나 가정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학급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음.	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 및 왕따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교육

## II. 프로그램의 개요

### 1. 프로그램의 목적

#### 1) 장애 인권의식 키우기



투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3) 대상단위가 넓고 보고자가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터라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양적 수치와 관련한 장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취약함이 있다.

## 5. 프로그램의 대략적 내용

<표 3>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의 주안점	대상	내용	기간
□□ 가정에서 함께해요	학부모의 인권감수성 깨우기	학부모 전체	장애아동의 인권과 더불어 사는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사랑반을 소개 및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	2005년 3월 말
□□ 장애인권 지킴이 화이팅!	실천하는 장애인권 지킴이 되기	원적학급 아동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원적학급에서 장애어린이를 돕고 싶어 하는 아동을 장애인권 지킴이로 임명하고 활동을 함께 고민하고 나눔	연중
□□ 같이 놀아요!	장애인의 특징 이해하기	참사랑반 아동소속 학년아동	참사랑반 아동들과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에서 자연스럽게 협동하고 조력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 교실에서 배우는 장애인권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원적학급 아동	전체 학급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원적학급에 대해서는 소속 학급 장애아동별 특징과 구체적인 인권지킴이의 실천방법 알기	학급당 상·하반기 각1회, 총 연2회
□□ 사진으로 만나는 장애인	장애인의 삶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전교생	사진을 통해 장애인을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2005년 4월 중순
□□ 너는 특별하단다	인권감수성 키우기	전교생	영화 '너는 특별하단다'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그 느낌을 그림과 글 등으로 표현하기	2005년 4월 중순
□□ 도전! 골든벨 장애인권	장애인권의 구체적 내용	전교생 (참가 희망자)	장애인권 관련 동화를 적극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책 내용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회	2005년 4월 후순
□□ 만나고 싶었어요. 형진이	가정에서 장애인권의식 바로 갖기	일반학급 학부모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급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영화 '말아톤'의 배형진을 만나고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2005년 6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의 주안점	대상	내용	기간
□□ 도전! 골든벨 왕따와 인권	다양성을 존중하 고 왕따 만들지 않기	전교생 (참가 희망자)	인권과 관련한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 가면서 왕따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기	2005년 6월
10 학급 달력으로 만나는 참사랑	통합교육 기반다 지기	일반학급 어린이	매달 참사랑반 달력을 학급별로 배포하 고 게시하도록 하여 참사랑반에 관심을 갖기	월 1회 (4월, 5월, 6월 총 3회)
11 퍼즐로 풀어보는 장애인권	장애인권의 내용 알기	일반학급 어린이 및 학부모	학교신문을 통해 퍼즐 형식의 장애인권 과 관련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권에 대한 상식 키우기	월 1회 (4월, 5월, 6월 총 3회)

본 프로그램은 총 11개의 프로그램이나 도전 골든벨이 형식은 일일하고 다루는 대상만 다르다. 제1회 대회에서는 장애인권을 주제로 하였고, 제2회 대회에서는 인권일반의 문제와 왕따를 주제로 하였다.

위의 프로그램명을 편의상 ‘뿔반 아이들 일반아이들 만들기’로 정의하여 서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 III. 프로그램의 실제 및 사례

#### 1. 가정에서 실천하는 인권

실천주제	장애인권 감수성 깨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가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li> <li>➤ 일시: 2005년 3월 12일, 2005년 5월 24일</li> <li>➤ 진행: 1. 참사랑반을 소개하고 가정에서 장애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함께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 초안을 만든다. 2. 1회 가정통신문: 특수학급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가정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li> </ul>	

2회 가정통신문: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계기교육을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납득시키고 학교내에서 장애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3. 교직원 회의를 통해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송전에 종례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4.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결과: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교육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해 드러나게 항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줄어들었고, 우리 학급에서 하는 장애인권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었고, 자녀가 우리 학급에 놀러오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적이었다.



▲ 가정통신문



## 참사랑반에 대한 안내 말씀



희망찬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움트는 새봄에 학부모님의 가정에서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는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개별수업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학급이 참사랑반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귀댁의 자녀와 같은 학급에 편성되어 있으며 국어·수학 및 특정교과를 참사랑반에서 공부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귀댁의 자녀와 함께 공부합니다.

참사랑반 친구들이 오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귀댁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귀댁의 자녀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성을 길러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귀댁의 자녀는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도와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다양한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21세기 민주사회에 필요한 태도를 길러 나가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몇 가지 지도내용을 주제로, 자녀와 대화 시간에 활용하여 지도해 주십시오.

### 지도내용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놀리지 않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갈 때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길이나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말을 주고 받도록 지도해 주세요.
5. 너무 지나친 도움은 친구의 자립심을 약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가 스스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참사랑반에 문의해주세요. (☎558-0252-4)

2005년 3월 12일

**도 농 초 등 학 교 장**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길잡이』, 2004

안 내 말 씀



참사랑반 친구들 이해하기



그간 댁내 평안하셨는지요?

학교 담벼락의 장미꽃이 하루가 다르게 장미향을 품어내며 여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한 담벼락 너머로 어울려 힘차게 울리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학교에는 장애가 있지만 일반아이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일반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참사랑반 친구들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고, 학교 생활을 일반 친구들처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기쁘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 친구들과 관련하여 발생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친구가 때려요**

우리반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잘 고려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일반 친구들과 달리 타인의 감정조차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반가워서 때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일반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2. 친구가 더럽게 해요**

친구가 자칫 비위생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친구들보다 위생관념이 덜 발달하기도 하였고, 습관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더럽게 한다면 이는 친근감의 표시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안 좋다고 말해주면 서서히 고쳐질 수 있습니다.

**3. 수업시간에 방해해요**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간혹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 없거나 수업이 지루해서, 혹은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면 재미를 느껴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 반응을 보이지 말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의 협조 덕분에 참사랑반 친구들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참사랑반에 문의해주세요. (☎558-0252-4)

2005년 5월 24일

도 농 초 등 학 교 장

## 2. 장애인권 지킴이, 파이팅!

실천주제	실천하는 장애인권 지킴이 되기
	<p>➤ 목표: 장애인권 지킴이 활동을 통해 장애인권 지킴이으로써 포스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교육하고 모범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급내에서 장애인권 실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장애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또래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p> <p>➤ 일시: 2005년 3월 21일, 2005년 4월 18일</p> <p>➤ 진행: 1. 원적학급의 담임교사가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해당학급의 장애어린이가 있고 장애어린이를 위해 장애인권 지킴이가 필요한 점에 공유를 끌어낸다.                  2. 담임교사에 따라 재량시간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학급회의, 혹은 종례시간을 이용해서 지원자를 받았다.                  3. 통합학급 교사가 추천한 아동에게 장애인권 지킴이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4. 장애인권 지킴이의 역할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에 특수학급 교사와 상담하였다.                  5. 장애인권 지킴이의 표시로 '장애차별 금지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와 관련한 버튼을 달아 주었다.                  6. 장애인의 날에 학교장의 장애인권과 관련한 훈화와 더불어 장애인권 지킴이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상으로 격려하였다.</p> <p>➤ 결과: 1. 학기 초에 장애인권 지킴이로 임명된 아동들은 한 학기동안 장애 어린이들의 좋은 도우미가 되어 주었다.                  2. 장애인권 지킴이로 인해 원적학급 통합교사는 장애어린이와 관련한 것을 상당부분 지킴이에게 맡길 수 있었다.                  3. 장애인권 지킴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학급에 더욱 쉽게 자주 들어왔고, 사소한 대화속에서 학급내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4. 이는 장애인권 및 통합교육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5. 단순한 도우미는 봉사적 의미가 강한데 반해 인권지킴이는 더욱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왕따 문제의 좋은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6. 인권지킴이로 임명장을 주고, 학교장이 칭찬하고, 그 표시로 버튼을 달고 다니는 작업이 단순한 봉사 도우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p>

## 장애인권 지킴이 임명장

3학년 슬기반  
김 현희

위의 어린이는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잘 도와주고 왕따 어린이가 발생하지 노력하는 등 생활속에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우리 학급의 장애인권 지킴이 1호로 임명합니다.

담임교사 이묘경

## 선행상

3학년 슬기반  
김 현희

위의 어린이는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잘 도와주는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에 칭찬합니다.

도농초등학교장



▲ 장애인권지킴이 버튼



▲ 장애인권 지킴이 표창

### 3. '일상을 느껴요' 사진전

실천주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의식하기
<p>➤ 목표: 사진매체를 통해 성인장애인을 만나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p> <p>➤ 일시: 2005년 4월 11~16일</p> <p>➤ 장소: 본교 3층 복도</p> <p>➤ 진행: 1. 장애인의 삶을 다룬 사진을 마련하였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사진은 두 가지 주제로 하나는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가기까지 부딪치는 편의시설 문제를 통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영화보러 가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과정과 장애인 올림픽을 다룬 '장애인의 체육활동'으로 하였다.</p>	

3. 사진전은 본교 3층 복도에 상설전시를 하였다.
  4. 일반학급에서는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사진을 감상하였다.
- 결과: 1. 학교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행사인 사진전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진을 감상하였다.
2. 좀처럼 성인 장애인을 만나기 힘들고, 장애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3. 이동권과 사회 문화적 권리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나 실제 장애인이 극장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현실에 존재하는가를 사진을 통해 명확하고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 ‘일상을 느껴요’ 사진전 1



▲ ‘일상을 느껴요’ 사진전 2

#### 4. 너는 특별 하단다

실천주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p>➤ 목표: 포괄적으로 인권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느낀 점을 활동으로 표현해서 함께 나누고 실천의식을 다진다.</p> <p>➤ 대상: 전교생</p> <p>➤ 일시: 2005년 4월 19일 1·2교시</p> <p>➤ 장소: 일반학급 교실</p> <p>➤ 진행: 1.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과 서로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너는 특별 하단다’를 감상하였다.</p> <p>2. 나무사람 나라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금별 스티커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점 스티커를 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주인공인 판치넬로는 별점을 받기 싫어서 숨어 있었으나 숨은 곳까지 찾아와서 별점을 주어 절망하는데, 루시아는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이야기이다.</p>	

3.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시청하여 장애어린이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4.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를 하였다.
5. 주인공에게 쓴 편지는 학급별로 교실내 게시판에 붙여두고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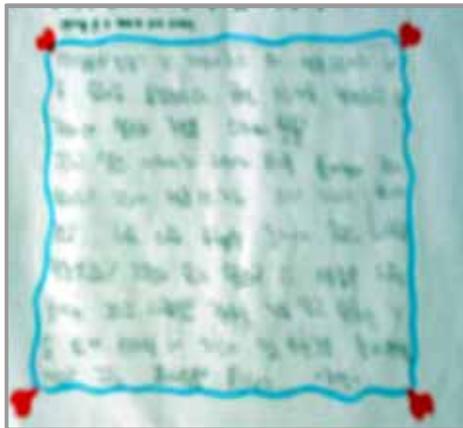
- 결과: 1. 직접적으로 인권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영화를 매개로 전체 학생들이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좋은 영화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모든 학급이 스티커제도를 통해 아동을 보상하는 학급에서 선생님들에게 의미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3. 아이들은 판치넬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도 스티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드러내 보였고 자신과 판치넬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 인권 영화 보기 1



▲ 인권 영화 보기 2



▲ 주인공에게 쓴 편지 1



▲ 주인공에게 쓴 편지 2

판치넬로 안녕? 난 지영이라고 해 별점스티커가 너무 많아도 실망하지마..금별 스티커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엘리 아저씨가 너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않았니? 그래서 별점스티커도 하나 하나씩 떨어졌고... 너도 아주 특별한 존재야, 모두다 나무로 만들었잖니? 그런데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너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찾아보면 어때? 그럼 파이팅! 용기내~

4학년 지영

판치넬로에게...  
판치넬로야! 난 다비라고 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단다. 금별, 별점 같은 건 필요 없어. 오직 니 자신이 특별하다고만 생각하면돼. 사람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특별한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 넌 이제 엘리 아저씨를 찾아 갔으니 별점도 금별도 받으려 해도 떨어져 버릴거야. 판치넬로 용기를 내~ 언제나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날꺼야.

4학년 권 다비

판치넬로야

사람은 모두 특별히 하나라도 잘 하는 것이 있어. 다만 사람들이 그런 장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항상 희망차게 살아.

2학년 박민선

판치넬로에게

안녕 나는 영재야.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어. 너도 잘하는게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내. 엘리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너는 소중한 이 세상에 한명 밖에 없잖아. 또 너가 마을 사람들을 웃기게 해주잖아. 금별이 없다고 실망하지마. 너말고 너희 친구들도 별점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안녕

3학년 김영재

5. 도전 ! 골든벨

실천주제	장애인권 감수성 키우기
<p>➢ 목표: 장애인권, 왕따를 직접 주제로 다룬 동화책 및 인권관련 서적을 읽고, 그 느낌을 함께 나누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 퀴즈대회를 열었다.</p> <p>➢ 대상: 전교생 (참가 희망자)</p> <p>➢ 일시: 4월 29일 금요일 5교시(저학년), 6교시(고학년) 6월 8일 수요일 1시(저학년), 6월 15일 수요일 1시(고학년)</p>	

- 장소: 본교 시청각실
- 진행: 1.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도전 골든벨’ 형식의 독서대회를 개최한다.
  2. 대회 개최 한달전에 사전 공고를 내고, 희망자에게 참가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책을 정독하는 습관도 기르고 퀴즈 형식의 대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3.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1회 대회에서는 장애인권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2회 대회에서는 왕따와 포괄적인 인권을 그 주제로 하였다.
  4. 1회 대회에서는 책 한권으로 진행하였으나 1회 대회에서 참가율이 높아서 2회 대회에서는 책을 두 권으로 늘이고, 좀더 깊이 있는 인권관련 서적을 선정하였다.
  5. 책 선정의 기준은 두가지로 었다. 첫째는 장애인의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둘째는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아이들이 직접 부딪치는 느낌과 갈등을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다룬 책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6. 각 대회에서 골든벨 우승자를 한명씩 뽑고 장애인권지킴이 버튼과 함께 학과장 명의의 상품, 상장을 수여했다.
- 결과: 1. 참가자는 1회 대회에 저학년은 약 250명, 고학년은 약 100명, 2회 대회에는 저학년은 150명, 고학년은 70명이 참가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특히 제1회대회에 참가한 저학년의 경우는 시청각실 좌석이 부족하여 계단에서 문제를 풀기도하였다.
  2. 책 별로 적게는 10여 문제, 많게는 20여 문제까지 준비해 갔으나 모두다 문제를 맞춰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하였고, 제1회 대회 저학년의 경우는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답해서 재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3. 기존의 독서행사가 독서화, 독서만들기 등 학급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이번 독서대회의 경우는 모방송사의 ‘도전! 골든벨’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4. 아이들이 매우 즐겁게 참가하였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사전 문제를 만들고 집에서 연습을 해오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함께 인권동화를 읽기도 하고, 대회에 같이 참관하여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문제 중간 중간에 장애인권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6. 아동들이 지나치게 승패에 연연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행사였다.

▶▶▶ 제1회 도전 골든벨

학년별	저학년	고학년
도서	 <p>고정욱, 『가방들어주는 아이』, 사계절, 2002</p>	 <p>오카 슈조, 『우리 누나』, 웅진닷컴, 2002</p>
선정 이유	<p>이 책은 통합학급에 소속된 2학년 학생이 장애어린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으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어린이의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섬세한 감정의 변화와 느낌을 일상속에서 잘 그려내고 있어서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학급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에 선정하였다.</p>	<p>이 책은 각각 다른 장애를 안고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단편을 묶어 좋은 단편동화집이다. 일본의 단편동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현실의 사건들을 포착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선정하였다.</p>
골든벨 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학년이 되면서 한 해 동안 맡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 등하교 길에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li> <li>영택이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 찔룩이</li> <li>츨흠을 사러 문방구에 간 아저씨는 왜 석우에게 사탕을 주었나요? ⇒ 매일 영택이 가방을 들어 주어서</li> <li>석우네 반 친구들은 왜 영택이의 생일파티에 가지 않았나요? ⇒ 영택이가 장애인이어서</li> <li>영택이는 왜 석우에게 파카를 주었나요? ⇒ 영택이가 친구이기 때문에</li> <li>영택이는 방학동안에 무엇을 하였나요? ⇒ 여수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li> <li>석우는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가장 싫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 축구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li> <li>개학식날 석우는 어떤 상을 받았나요? ⇒ 1년동안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 주어서</li> <li>석우는 왜 모범상을 받았나요? ⇒ 1년 동안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 주어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누나]에서 쇼이치의 누나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나요? ⇒ 다운증후군</li> <li>쇼이치는 친구들에게 언제 가장 섭섭한가요? ⇒ 누나를 동물원 원숭이처럼 생각하며 한번 보여⇒ 달라고 말할 때</li> <li>누나는 왜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나요? ⇒ 자신이 탄 첫봉급으로 저녁을 사고 싶어서</li> <li>[잇자국]의 주인공 시게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 글자판을 이용해서</li> <li>[목걸이] 아키라는 수학여행에서 왜 목걸이를 샀나요? ⇒ 구미에게 선물하려고</li> <li>[귀뚜라미]에서 토모의 아버지는 왜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 밖에 없었나요? ⇒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므로</li> <li>[위싱턴 포스트 행진곡]의 미유키는 왜 누나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나요? ⇒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불편할까봐,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까봐</li> </ol>



▲ 제1회 도전 골든벨

▶▶▶ 제2회 도전골든벨

학년별	저학년	고학년
도서	 <p>황선미, 『나쁜 어린이표』, 웅진출판, 2000</p>	 <p>엘레노어 에스테스, 『내겐 드레스 백벌이 있어』, 비룡소, 1944</p>
선정 이유	<p>이 책은 학교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티커 제도를 통해 어린이를 낙인찍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아이들의 시각에서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표현한 저학년 창작동화이다. 인권감수성을 키우는데 적합하리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하였다.</p>	<p>왕따를 하는 친구들과 당하는 친구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고전동화이다. 왕따를 하는 친구들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러한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이 책을 선정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장 선거에서 득표를 얻고 떨어진 친구는 왜 울었을까요? ⇒ 친구가 둘뿐이라는 걸 알고 속상해서</li> <li>우리 반에서 반장이 된 친구의 이름은 무엇 인가요? ⇒ 경식이</li> <li>건우는 청소시간에 화분을 옆질러서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 나쁜 어린이표</li> <li>건우는 수업종이 울린 후에 교실에 들어서서 나쁜 어린이표를 두장 받았어요. 그런데 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다가 교실의 구석자리에 앉는 까닭은? ⇒ 보긴스 하이츠에서 오기 때문에 흙투성이 신발을 신고 교실에 들어와서</li> <li>완다는 드레스가 몇벌이라고 말 하였나요? ⇒ 백벌</li> <li>완다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다녔나요? ⇒ 구겨지고 빛바랜 파란색 드레스</li> <li>매디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다녔나요? ⇒ 폐기가 버린 옷을 엄마가 고쳐주신 것</li> </ol>

학년별	저학년	고학년
골든벨 문제	<p>⇒ 선생님이 사전에 이런 경우 나쁜 어린이표를 준다고 말하지 않아서(선생님 마음대로 나쁜 어린이표를 준다고 생각해서)</p> <p>5. 왜 건우는 선생님에게 나쁜 선생님표를 주었나요? ⇒ 선생님이 나쁜 어린이표를 주는 기준과 내용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p> <p>6. 아빠가 과학상자를 사오셔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건우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 아빠의 구두를 닦았다.</p> <p>7. 건우는 나쁜 어린이표 스티커뭉치를 어떻게 하였나요? ⇒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p> <p>8. 선생님은 건우의 나쁜 선생님표가 적힌 부분을 어떻게 하였나요? ⇒ 뜯어서 선생님 수첩에 넣었다.</p>	<p>5.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그렸나요? ⇒ 완다,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의 드레스 100벌</p> <p>6. 완다는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나요? ⇒ 가족이 대도시로 이사하게 되어서</p> <p>7. 완다 아버지는 왜 대도시로 이사간다고 하였나요? ⇒ 가족을 폴란드놈이라고 부르고 아이들을 놀렸기 때문에</p> <p>8. 완다가 매디와 폐기에게 선물한 드레스 그림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 매디와 폐기</p> <p>9. 매디는 드레스 놀이로 완다를 놀리는 폐기를 말리지 못 했나요? ⇒ 친구를 잃고 왕따를 당하게 될까봐</p>



▲ 제2회 도전골든벨 사진

## 6. 장애학부모와의 대화

실천주제	통합교육의 필요성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일반학급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합교육의 기반을 다진다.</li> <li>➤ 대상: 일반학급 학부모</li> <li>➤ 일시: 2005년 6월 13일 오전 10시</li> <li>➤ 장소: 본교 시청각실</li> <li>➤ 활동: 1. 일반학급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필요성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강연회를 마련하였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2. 강사는 어머니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영화 마라톤의 실제 주인공 어머니인 박미경씨의 협조를 받아 강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3. 박미경씨는 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 통합교육을 하고 싶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수학교로 전학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일반학급 어머니들이 맥에서 자녀들에게 장애어린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4. 배형진군도 함께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하고 어머니의 강의를 들었다.</li> <li>➤ 결과: 1. 이날 강연회에 참가했던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애초에 반대하던 학교 측 관리자와 일반학급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관심을 가졌다. 뿐 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합교육 부모회에서도 참가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2. 강사의 강의 내용이 장애인권보다 같은 학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부모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을 담담하게 말하여 학부모들로 부터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3. 학교에서 자주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교육을 장애아동이라는 좁은 주제로 지나치게 큰 기획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시종 반대하던 학교관리자들도 학부모의 반응과 강사의 강의에 고무되어 매우 호의적으로 강연회를 경청하고 진행하였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4. 강연회가 끝나고 일부 학부모들이 강연회와 관련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기도 하였고 강연자 였던 박미경씨의 주소를 묻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li> </ul>	



▲ 강연회의 사진



▲ 학부모대상 강연회 사진

다음은 강연회에 참가하신 학부모님이 남양주교육청 참여마당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 자유게시판

제 목	도농초등학교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성자	정은정	작성일	2005-06-16 오후 6:27:50
이메일	jeje127@hanmail.net	조 회	264
사용자	학부모		
내 용	<p>어제 제 아이가 다니는 남양주시 ‘도농초등학교’에서는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장애이해 교육 이었습니다.</p> <p>제 아이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기에 ‘장애이해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의 어머니께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배형진군도 함께 참석해 주었습니다.</p> <p>‘저는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는 많은 강연을 가졌지만 일반학교는 여기가 처음입니다’로 강연은 시작 되었습니다.</p> <p>저는 형진군을 보자 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너무나 의젓하고 잘생긴 형진군의 얼굴 위로 제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났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찍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서부터의 겪어야만 했던 조금 다른 많은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한참되는 선배님의 이야기.</p> <p>내가 겪었던, 그리고 내가 겪을.</p> <p>힘들게 목메어가며 가정사, 학교이야기등 그 많은 이야기들은 가슴을 저리게 또는 아프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강연은 저희가 아닌 일반 비장애어머니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만, 유명세에 힘입은 영향이 컸는지 많이들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p> <p>‘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장애인공화국과 같이 그들만이 모여사는 세상이 없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편견 없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하고 적어도 그들에게 상처만은 주지 말아 달라’</p> <p>‘가끔 사람들은 형진이가 더 운동을 계속한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겠다고 하나,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하고픈 장애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p> <p>‘나는 형진이가 내 욕심의 마라톤이 아닌 장애인도 할수 있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희망의 마라톤을 해주길 바란다’</p> <p>형진이의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몸매는 ‘끝내주요’</p> <p>형진군의 실제 음성으로 영화속 대사를 듣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p> <p>오늘 이자리가 있기까지 특수학급 선생님은 어렵게 강연을 부탁 드렸으며, 직접 모시고 오기까지 하셨습니다.</p> <p>많은 눈물과 힘들게 지금의 학교가 꾸러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애를 쓰신분 입니다.</p> <p>또한 교장선생님께서도 흔하지 않은 강연을 마련토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p> <p>정말이지 우리 학교가 초일류의 학교가 되려나 봅니다.</p> <p>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것이 잘 융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 말입니다.</p> <p>장애가 별다른것이 아닌, 할줄하는 말은 없지만 늘 인사하는 제 아이에게 ‘인사맨’이라는 아이들의 별명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게 되도록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 조금씩 변하니까 말입니다.</p> <p>오늘의 강연으로 조금씩 장애우 친구들이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p> <p>이번의 강연은 저 같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에겐 용기와 희망을, 비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에겐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워준 귀한 기회이기에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도농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많은 관심 가져주신 학부모님들과 먼길 마다않고 강연해주신 배형진군과 어머니께도 감사의 말씀 다시한번 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특수학급 참사랑반 황희상 엄마 올림</p>		

## 7. 원적학급 장애 이해교육

- 1) 목적: 원적학급 아동들에게 해당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적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을 시킴으로써 장애인권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 하였다.
- 2)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총5개 학급아동
- 3) 프로그램 개요

대상	일시	아동특징	프로그램 주제	활동내용	장소
2-2	4월 2일 2교시	발달장애 2급	장애상식 퀴즈대회	장애인권과 관련한 퀴즈 문제를 함께 풀고 의견을 나눔	해당 학급
2-2	5월 7일 2교시	발달장애 2급	피터 이야기	초등학교의 일반학급에 완전통합되어 있는 아동의 일반학급 어린이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함께보고 느낀점을 나누고 감상문 쓰기	해당 학급
3-2	4월 9일 3교시	정신지체 2급	장애상식 퀴즈대회	장애인권과 관련한 퀴즈 문제를 함께 풀고 의견을 나눔	해당 학급
3-2	5월 14일 3교시	정신지체 2급	피터 이야기	초등학교의 일반학급에 완전통합되어 있는 아동의 일반학급 어린이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함께보고 느낀점을 나누고 감상문 쓰기	해당 학급
5-4	4월 16일 2교시	지체장애 2급	장애이해 퀴즈대회	장애인권과 관련한 퀴즈 문제를 함께 풀고 의견을 나눔	해당 학급
5-4	4월 30일 2교시	지체장애 2급	학내 편의시설 바꾸기	지체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학교시설의 불편한 점을 토론하고 학내 편의시설을 바꾸는 그림 그리기	해당 학급
6-1	5월 21일 3교시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장애이해 퀴즈대회	장애인권과 관련한 퀴즈 문제를 함께 풀고 의견을 나눔	해당 학급
6-1	6월 4일 2교시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장애체험	각 장애영역별 역할을 맡아서 잠시 장애인이 되어서 생활하면서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감문 쓰기	해당 학급

▶▶▶ 장애인권 퀴즈 대회

실천주제	장애인권 이해하기
<p>➤ 목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바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p> <p>➤ 대상: 진교생</p> <p>➤ 장소: 해당 학급</p> <p>➤ 진행: 1. 장애인에 대해 일반인이 대체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2. 모듈별로 개별 문제마다 사전에 토의하도록 하였다.                  3. 모듈별로 문제를 맞추면 격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들을 나누고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                  4. 문제를 가장 잘 맞춘 모듈은 참사랑반에 놀러올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문제를 가장 못 맞춘 모듈은 학급내 인권지킴이로 일주일간 활동하고 느낀점을 특수교사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 저학년과 고학년의 문제수준과 문항갯수를 조절하였으나 기본적인 문제를 같은 것으로 제시하였다.</p> <p>➤ 결과: 1. 처음 수업에 들어가는 학급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장애 이해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2. 아이들이 승패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모듈내에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나 함께 얘기해볼 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의미가 있었다.                  3. 첫 수업은 모두 이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특수학급을 바로 알고 친구들간의 왕따와 부적응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러 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p>	

장애인권 상식 문제

1. 장애인은 유전되는 것 인가요?
2.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나요?
3. 우리나라에는 선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4. 장애인 친구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5. 모든 장애인은 다 공부를 못하나요?
6. 장애인은 누구의 잘못으로 생겼을까요?
7.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친구가 체육수업에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요?
8.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야구경기에 선수로 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야구 경기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9.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게 효과적일까요?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게 효과적일까요?
10. 특수학급(참사랑반)은 어떤 사람이 오는 곳일까요?



▲ 장애인권 퀴즈 수업 모습

▶▶▶ 피터와 같은 학교 다니기

실천주제	장애인권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학급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알고 장애인권의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다.</li> <li>➤ 대상: 3학년 2반</li> <li>➤ 일시: 5월 14일 3</li> <li>➤ 장소: 해당 학급교실</li> <li>➤ 진행: 1. 미국의 통합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함께 감상하였다. 2. 장애아동은 중증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수업의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친구들을 물고 때리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일반 아이들은 처음에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싫어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하지 않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차츰차츰 이해해 가면서 함께 생활해나가는 내용이었다.</li> <li>3. 피터이야기는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원적학급 아동들과의 인터뷰가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li> <li>4. 피터이야기를 함께 보고 3학년 2반의 장애어린이와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느낀점을 발표하고 소감문 쓰기를 하였다.</li> <li>➤ 결과: 1. 중증의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통합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친구들이 실제 장애어린이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원적학급 아동들이 잘 대해주면서 스스로 사회성도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들 공감하였다.</li> <li>2. 피터 이야기를 보고 느낀점을 글로 쓴 감상문은 학년말 문집에 신기로 하고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여 함께 읽어 보기로 하였다.</li> <li>3. 장애어린이가 때리고 소리질러서 다툼이 많은 반이었는데, 자신들이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것과 장애어린이가 때리는 행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li> </ul>

아동명	소감문 내용 중
윤지원	피터가 그렇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가 아닐까 싶다
김민지	나도 장애인을 무서워하고 피한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피터이야기를 감상하는 모습

▶▶▶ 몸으로 느껴요!

실천주제	장애인의 삶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li> <li>➢ 대상: 6학년 1반</li> <li>➢ 일시: 6월 4일 2교시</li> <li>➢ 장소: 해당 학급 교실</li> <li>➢ 진행: 1. 모둠별로 자신이 원하는 장애체험의 내용을 정하였다. 각 모둠별로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li> <li>2. 시각장애아동은 화장실 다녀오기, 청각장애 아동은 비디오를 음소거로 두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지체장애 아동은 보건실로 심부름 다녀오기로 정하였다.</li> <li>3.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장애인역할의 아동 1인과 동행하도록 하였다.</li> <li>4. 장애체험을 한 후 느낀점을 글로 쓰는 시간을 가졌다.</li> <li>➢ 결과: 1. 장애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현실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li> <li>2. 재미로 참가하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재미있는 것에서 현실의 불편을 공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li> <li>3. 휠체어 사용 등 좀더 현실 장애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애체험을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다.</li> <li>4. 한 시간중 약 15분간의 장애체험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애를 체험하면 더 현실적인 장애체험이 되었을 것 같다.</li> </ul>	



▲ 장애체험을 하는 모습 장애체 험 삽화

## 8. 퍼즐로 키워요! 장애상식

실천주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높이기
<p>➤ 목표: 학급신문의 퍼즐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p> <p>➤ 대상: 전교생 (참가 희망자)</p> <p>➤ 일시: 4월, 5월, 6월 학교신문 발행일</p> <p>➤ 진행: 1. 장애인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퍼즐형식으로 출제하였다.                  2. 퍼즐문제를 학급 신문에 기재하였고 문제를 맞춘 아동은 시청각실에 모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정답자는 추첨하여 상품을 주기로 하였다.                  3. 그러나 시청각실에 아동들이 모이지는 않고 특수학급으로 정답지를 들고 와서 추첨하여 아동 3인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장애인권 지킴이 버튼을 달아 주었다.                  4. 문제를 아동이 직접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p> <p>➤ 결과: 1. 학급신문을 활용해 장애인권 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홍보효과가 높았다.                  2. 일부 문제는 학부모가 답을 모르겠다며 직접 찾아오기도 하였다.                  3. 4월 신문 30명, 5월 신문 28명, 6월 신문 29명이 정답을 제출하였다.                  4.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인터넷을 반드시 검색해야 하다 보니 시도하지 않는 아동들이 다수 있었다.</p>	



▲ 신문에 게재된 장애인권 상식 문제

<4월 도농통신 퍼즐문제>

①							(2)		
			(1)						
							④		
		②				(3)			
								(4)	
	③						⑤		
(5)					⑥				

참	사	랑	반				흰		
							지		
			음				광		
			향				이	동	권
		정	신	지	체	인			
		호				권		지	
	보	청	기				휠	체	어
								장	
수					청	각	장	애	인
화								인	

가로 문제

- ① 우리 학교의 장애어린이를 위한 학급의 이름은 ○○○반
- ② 일반인보다 생각주머니가 작게 태어나 발달이 느린 사람은 ○○○○○
- ③ 청력에 손실이 있는 사람이 청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귀에 꽂는 작은 확장기
- ④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 ⑤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타는 바퀴의자
- ⑥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세로 문제

- (1)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도록 한 장치
- (2)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하얀색 지팡이
- (3)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권리
- (4) 팔 다리나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 (5)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

<5월 퍼즐맞추기>

①		(3)					(4)		
(1)							③		
									(5)
					④				
(2)									
②			⑤						

시	각	장	애	인			통		
		애					합		인
헬		인					교	육	권
런		편					육		
켈		의							
러		시							김
		설			문	서	판	독	기
									창
점									
자	폐		스	티	븐	호	킹		

가로 문제

- ① 시력에 불편이 있는 사람
- ②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은 ○○증
- ③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 ④ 글로 쓰여진 문서를 소리로 변환하여 음성으로 읽히는 장치
- ⑤ 근위축증을 가지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고 언어장애를 갖고 있으나 우주의 신비를 밝혀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세로 문제

- (1) 3중고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한 미국인
- (2)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문자
- (3)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는 것
- (5)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긴 화가 윤보 ○○○

<6월 퍼즐문제>

난	독	증				툼	크	루	즈
								즈	
			유	전				벨	
말								트	
아						장			
톤		후	천	적	장	애	인		
						인			
	구					주		일	
	족					차		반	
독	화		희	아		장	애	인	

①	(1)						②		(4)
(1)									
							(3)		
			③						
	(2)								(5)
④				⑤			⑥		

가로 문제

- ① 듣고 말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글자를 판독하는데 이상이 있는 증세
- ② 난독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션임파서블’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유명한 영화배우
- ③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이 더 많다
- ④ 청각장애인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 ⑤ 네손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 ⑥ 4월 20일은 ○○○의 날

세로 문제

- (1) 자폐증을 안고 있으나 마라톤을 완주해서 감동을 준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의 제목
- (2)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품

- (3) 장애인들이 차량을 쉽게 이용하고 주차하기 위해 전용으로 마련된 주차장
- (4) 39세에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이 되었으나 2회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뉴딜정책을 펼친 사람
- (5)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부르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을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좋아요

## 9. 우리반에 놀러 오세요

실천주제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 갖기
<p>➤ 목표: 특수학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활동에 일반아동들이 함께 참여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특수학급 아동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p> <p>➤ 대상: 희망 학생</p> <p>➤ 일시: 4월-6월 금요일 점심시간</p> <p>➤ 활동: (1) 점심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활동에 참여한다.            (2) 텃밭활동에 참가하는 아동들은 감자와 토마토 가꾸기, 봉숭아 키우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씨뿌리는 작업부터 토마토 수확하기, 봉숭아물들이기까지 참여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3) 텃밭활동 외에도 점심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와 장애인관련 시설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p>	



## IV. 장애이해가 아니라, 인권! 인권입니다.

학교 신설 네 해째, 특수학급 신설 세 해째에 접어들면서 일반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연 2회 일반학급에서 진행되는 장애이해교육은 매우 일회적이고 제한적이었다. 또한 일반학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또한 일회적일 뿐만 아니라 연수의 효과를 보는데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 연수 또한 자주 시도할 수 없었고, 일반학급 교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학교 관리자들과의 관심부족으로 힘있게 치루어지지 못했었다. 장애인권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지만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특성 때문에 학급 담임이 아닌 타 학급의 교사가 일반학급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관리자의 동의와 일반학급 학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체 일반학급 아동과 일반학급의 학부모를 직접적이고,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해 전체 학교 행사 중심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다. 물론 일반학급 교사와 관리자들과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들이었고, 추진과정에서 많이 수정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협조에 매우 감사드린다.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피드백을 확인하는 과정이 제한적이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매우 만족스럽다. 일반학급의 어린이들이 우리 학급에 쉽게 놀러 오고, 일반학급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챙기라며 자신의 자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아동들이 우리 아동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뿌듯하다. 그 동안의 장애인과 관련한 교육은 일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을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는 성격이 많았다. 물론 나쁘지 않지만 우리 장애어린이들을 철저히 다른 사람으로 대상화시키게 되고 장애인을 자신과 다른 부족한 사람이어서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친구의 한 가지 특성으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만이 학원내의 왕따와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 인권문예작품 수상작

◆ 독후감 수상작 ◆

---

□□자 유 상 2더하기 2가 4인 까닭은? (선예은 / 인천골포초 5-3)  
(최우수상)

□□평 등 상 한번쯤은 보고있는 이주노동자 (문은지 / 천안 쌍용초 6-5)  
(우수상) 이주노동자와 우리는 같은 사람 (김예은 / 천안 쌍용초 4-5)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이예솔 / 천안 쌍용초 6-6)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진한준 / 오리초 6-1)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고은영 / 의령초 4-1)

---

## 2 더하기 2가 4인 까닭은?

인천굴포초등학교  
선예은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라는 말은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그 말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 마주쳤을 때 우선은 낯설음에 뒤로 주춤하게 되고, 혹시나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말을 걸어올까봐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멀찌감치 비켜가곤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학교선생님의 소개로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라는 책을 읽었다. 5명의 동화작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견, 따돌림, 고통 등을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도록 엮은 동화 책이었다. 이상락 선생님이 쓰신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으면서 한국의 이른바 3D업종이라는 남들이 꺼려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동남아 아저씨들의 생활이 수진이 아버지처럼 마구 부러먹고 제때 임금도 안주는 악덕기업가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그런 나라라고 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화가 나기도 했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큰 꿈을 안고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외롭고 힘든 외국생활을 자처한 외국노동자들이 그들이 애써 땀 흘린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고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망다니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아팠다. 이들이 공장에서 가장 먼저 배운다는 말이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대접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온갖 횡포와 욕설로 무시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내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주인공 준호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블루시아에게 "가위바위보" 놀이를 가르쳐주고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시아는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 세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2개밖에 남지 않았다. 준호는 더 이상 가위바위보 놀이를 할 수 없는 블루시아를 위해 무엇을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는 가위를 빼고 바위와 보만 가지고 놀이를 해 보자고 제안한다. 상처투성이의 주먹을 포근히 감싸주는 보자기가 돼 줄 수만 있다면 상처받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준호의 깊은 마음 씀씀이가 너무 멋있어 보였다.

언젠가 아빠께서 "2더하기 2는 뭘까요?"하면서 문제를 내셨다. 분명히 4라고 대답하면 안될 것 같고, 무슨 넌센스 문제인가 싶어서 한참을 망설였더니

"월 그리 어렵게 생각해, 4잖아."

하시는 것이다.

"난 또... 그게 무슨, 문제도 아니네요, 뭐."

"그럼 그 뜻은 뭘까?"

" 글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

하시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멋진 말이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 하지만 간혹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다른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일 것이다. 다른사람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분명히 사랑으로 전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외국에 파견되어 일하시는 분도 많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분들도 참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편견과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찌겠는가? <지구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세계는 하나의 큰 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조금 크게 하면 한가족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미래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꿈꾸어본다.

<한번쯤은 보고 싶은 이주노동자>

천안 상용초등학교

6학년 5반 4번

문은지

요즘 워 주편을 살펴보면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3D 산업이라고 하는데 3D 산업은 작업환경이 더럽고(dirty), 어려우며(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통해서 보고싶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들은 요즘 이런 이주노동자들을 볼때 마다 심정도 모른채 괜히 차별하며,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저의 경험담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야우리로 영화를 보러 간 날 그곳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더럽기만 하고, 우리와는 왠지 다른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반성되고,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여전 한 티비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느낌표라는 방송에서 하는 아시아!아시아! 라는 코인데요.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교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볼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뜻깊은 방송입니다. 저는 그때 이방송을 보다가 눈물이 나온적도 있고, 마음이 슬퍼지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가족들과 상봉할때에 한방울, 한방울씩 떨어지는 눈물은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의 사연은 어떠한 것보다 매우 슬프고, 가슴아픕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며, 한국에 대한 생각 또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주 노동자들  
을 본다면 같은 한국인처럼, 또는 친한 가족이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도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더럽고, 천한일이라고 해서 포기하려만 하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 처럼 모범적인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천안쌍용초등학교 6학년 6반 이름 이예솔  
요새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강제주방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금을 똑같이 줄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똑같이 힘이들고, 노력하는데 이주노동자라고 무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나는 '인권'에 대해 그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종이 다르다고 우리나라 사람과 차별하는 태도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라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른들은 모두 '다른사람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모든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왜 정작 어른들은 지키지 않는 것일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들은 잠시나마 우리나라국민이 되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조금만 더 배려해 주어서 옳바르지 못하 우리나라의 법을 옳바르게 바꾸어놓아야 한다.

흔은 매일 만들어지는 아주 흔한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작은 동전하나가 큰 위안이 될수 있다. 그만큼 사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머나먼 한국을 오게 된 것인데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나쁜 사고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이다 그리고 똑같이 인권이 있고,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권리가 있다.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오리초등학교 6학년 진한준

이 책은 다섯 분이 쓴 내용을 모아 놓은 단편집으로 첫 장부터 만화와 동화를 접목시킨 아주 독특한 책이다. 동화의 중심 대목을 만화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화를 읽고 이야기를 읽게 되어서 흥미로웠다.

여러 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글의 작가인 이상락 선생님은 전남 완도군 생일도에서 태어나 작품활동을 시작한 소설가이다. 여러 해 동안 야간 학교에서 공장 근로자들과 빈민촌 청소년을 가르치기도 하신 분이라고 한다.

주인공 준호의 고모는 1966년 5월 김포공항을 떠나 취업을위해 독일로 떠난 간호사였는데 40년이 지난 이번 추석에야 처음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다. 가난한 집안의 8남매 중 장녀였던 고모는 독일 병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7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준호 할아버지가 생전에 큰 고모를 ‘우리 장한 영순이’라고 부르셨을 만큼 고모는 한국에 있는 식구들을 챙기셨다고 한다.

나는 얼마 전에 책에서 1960년대에 박정희대통령이 독일의 차관을 얻기 위해 독일에 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광부와 간호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나라도 꼭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며 서럽게 울었고, 그것을 본 독일 정부 측에서 차관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글을 보았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다는 생각에 새삼 마음이 저려왔다. 1, 2년 전부터 외출할 때마다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후회스럽다.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동남아인들을 보신 고모는 당신이 이역만리 낯선 나라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들이 생각이 나서인지 추석에 갈 곳 없는 동남아인들을 집으로 불러오라고 부르셨다.

“다들 추석 쇠러 가 버린 빈 공장에 남아서 라면으로 기니를 때우려니 얼마나 외롭고 서럽겠어. 와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었으면 했는데…….”

동남아인들이 오지 않은 것을 아주 섭섭해하는 고모를 보면서 준호는 고모가 얼마나 외롭게 독일에서 사셨는지 알 수 있었다. 늦게 불러온 동남아인

블루시아와 마압은 그들이 일하는 공장은 직공이 일곱 명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장으로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다. 자동차에 부착하는 부품은 만드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철판 조각을 기계에 넣고 발로 페달을 밟아서 제품 모양으로 찍어내는 일을 한다. 블루시아는 잘 못 배운 한국말로 한국 기술자를 불렀다가 주먹과 발길질로 마구 맞는다. 영문도 모르는 채 한참 얻어맞다가 옆에 있던 파키스탄 친구가 귀에 대고 일러주는 ‘때리지 마세요, 제발!’을 하고 나서야 모진 폭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날 밤, “때리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연습한다. 밤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럽고 힘들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묵묵하게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은 피부색, 국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러 온 것뿐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고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다. 60~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동이나 독일 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었다. 준호 고모나 우리 선배님들의 고향과 가족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도 옛날의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평등함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나라의 미래도, 외국인 노동자의 미래도, 전 지구인의 매리도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의령초등학교 4학년 1번

이우영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날 나는 글짓

기부에 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품권과 이 책을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

20X10

읽	니	다	.	많	은	이	야	기	가	있	었	지	만	그		
중	에	서	도	제	일	눈	에	띠	는	계	'	블	루	시		
아	의	가	위	바	위	보	'	입	니	다						
블	루	시	아	라	는	사	람	은	인	도	네	시	아	에	서	
온	외	국	인	이	주	노	동	자	인	데	'	블	법	체	류	
자	'	라	는	딱	지	를	가	지	고	한	국	에	오	제		
되	었	습	니	다	.	동	네	아	이	들	은	블	루	시	아	
아	저	씨	를	'	동	남	아	'	라	고	무	르	는	데	그	건
음	은	것	이	아	닙	니	다	.	동	남	아	시	아	중	에	
서	도	인	도	네	시	아	사	람	이	기	때	문	임	니	다	.

20X10

만	약	우	티	나	라	사	람	을	아	시	아	라	고	한	다
번	우	리	기	문	도	종	지	알	을	것	입	니	다	.	
그	래	도	마	음	파	뜻	한	준	호	네	가	죽	을	만	
나	함	께	늘	기	도	해	서	다	행	이	지	만	하		
마	터	면	추	석	인	데	도	블	루	시	아	아	저	씨	는
라	면	을	먹	을	치	지	였	습	니	다	.				
준	호	가	족	에	는	독	일	에	서	운	고	모	가	있	
있	는	데	그	고	모	는	우	리	나	라	가	가	난	할	때
독	일	에	간	호	사	로	가	서	운	갖	고	생	을	한	
문	입	니	다	블	루	시	아	가	준	호	네	가	죽	에	초

20X10

대	받	을	수	있	었	편	것	은	바	로	고	모	터
분	이	지	요	고	모	가	외	국	에	서	고	생	을
보	았	기	때	문	에	블	루	시	아	아	저	씨	의
일	을	이	해	할	수	있	었	던	것	입	니	다	힙
준	호	는	고	모	가	독	일	로	유	학	을	간	준
알	고	있	자	가	돈	벨	러	갔	다	는	말	을	듣
조	금	실	망	이	되	었	지	만	결	국	엔	보	림
보	낼	수	있	었	습	니	다	준	호	세	에	서	블
시	아	아	저	씨	는	웃	놀	이	도	하	고	가	위
보	도	하	며	즐	겁	게	보	낼	니	다			

20X10

그	런	테	어	느	날	준	호	는	불	행	한	소	식	을		
듣	게	되	었	습	니	다	.	블	루	시	아	아	저	씨	가	
프	레	스	기	에	서	일	을	하	다	가	그	만	손	가	락	
을	세	개	나	잃	어	버	렸	다	는	것	이	었	습	니	다	.
준	호	는	블	루	시	아	아	저	씨	와	다	시	는	가	위	
바	위	보	를	못	한	다	고	슬	퍼	하	였	습	니	다	.	
그	리	고	준	호	는	그	날	밤	꿈	을	꿨	습	니	다	.	
블	루	시	아	아	저	씨	와	가	위	마	위	보	를	하	는	
꿈	이	었	습	니	다	.	그	런	테	블	루	시	아	아	저	씨
는	가	위	를	내	고	도	보	를	냈	다	고	.	우	기	는	

것	입	니	다	꿈	에	서	도	고	모	가	일	러	러	주	셨	는
데	가	위	를	뺀	고	보	와	바	위	로	하	면	하	면		되
다	는	거	였	습	니	다	그	러	나	세	상	모	모	든		
사	람	들	이	블	루	시	아	와	가	위	바	위	보	를	하	면
서	그	렇	게	해	주	지	는	였	을	것	입	니	다			
하	지	만	그	가	한	국	에	머	무	트	는	동	안	만	이	
라	도	이	웃	사	람	들	이	상	처	투	성	이	의	주	먹	
을	포	근	하	게	강	싸	줄	보	자	기	가	돼	줄			
수	만	있	까	면	인	도	네	시	아	에	가	서	도	한	국	
사	람	을	투	고	투	고	그	리	위	위	할	지	모	든	다	고

20X10

하	였	습	니	다	.	저	는	이	마	지	막	말	이	서		
무	감	동	적	이	였	습	니	다	,	그	리	고	꼭	이	려	
게	하	겠	다	는	생	각	도	들	었	습	니	다	,			
"	외	국	인	노	동	자	아	지	씨	,	아	즈	마	힘	내	세
요	!	"														

◆ 편지 수상작 ◆

---

- 자 유 상    레이 팜 아저씨께 (변찬은 / 원주 단계초 6-한마음)  
(최우수상)
- 평 등 상    외국인노동자 가족분들께 (김성아 / 제주 동광초 6-2)  
(우수상)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께 (김은하 / 포항제철동초 5-5)  
이주노동자분들께 (신나리 / 천안 쌍용초 6-1)  
행복의 빛을 꿈꾸시는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들께  
(박주연 / 의령초 4-3)  
노동자 아저씨들 힘내세요! (박현빈 / 포항제철동초 5-1)
-





알고 언제 웃음이 나왔던 그때. 그게  
 아저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이사 왔어요”  
 그 한마디를 하려고 몇 분을 말하신  
 거 아시죠?  
 그때 저는 아저씨가 꼬마인 줄 알았어  
 요. 영똥하지만 전 아저씨가 큰 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와 저는 친

해	졌	고	아	저	씨	는	한	국	말	이	서	틀	러	아	직
도	내	친	구	처	럼	그	렇	게	말	을	하	곤	했		
었	지	요													
그	때	말	도	제	대	로	못	한	다	고	바	보	같		
다	고	아	저	씨	한	테	화	를	냈	었	는	데	.	지	금
생	각	하	면	얼	마	나	미	안	한	지	몰	라	요	.	
지	금	제	가	그	9	살	로	돌	아	간	다	면	.	제	
일	먼	저	아	저	씨	께	그	일	을	사	과	드	릴		
거	예	요													
아	저	씨	랑	처	음	으로	저	녁	을	먹	던	때	.		

저	진	짜	놀	랬	는	데	부	엿	에	서	맛	있	고	구
수	한	된	장	짜	개	범	새	가	술	술	나	고	지	글
지	글	노	룩	노	룩	생	선	까	지	.				
	그	런	데	'	으	!	마	늘	하	고	고	추	!	그
래	서	영	마	에	게	한	마	디	했	어	요	.		
	“	영	마	!	아	저	씨	가	이	런	결	어	떨	게
머	어	?	고	추	랑	마	늘	을	왜	차	린	거	야	
?	으	.	왜	.	”									
“	글	씨	.	좀	그	런	가	?	베	트	남	사	람	은
잘	못	머	겠	지	?”									



“정말 맛있어요!”  
 하고 말까지 하시던 아저씨. 그때 열  
 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뽀르통 화가나서 아저씨 집에 안  
 러 갔을 때. 아저씨가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신자야! 아저씨  
 .”  
 라고 말하자 아저씨는 놀랐고 어제  
 저녁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한국과 비슷한 식사를 해. 쌀

이 밥이고 고추. 마늘. 생선을 반찬으

로 먹어.”

라고 해서 그때 아저씨를 용서한 거

예요.

그렇게 티격태격 어리광 부리던 9살

이 지나가고 이제 10살이 되어 아저씨

를 많이 알게 되었죠.

아저씨의 이름을 알았을 때. 그 이름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이름은 레이 팜이야.”

“무슨 뜻인데요?”

“사랑도 느끼 있을 수 없다. 이런 뜻  
이야. 나는 말이 지. 우리 베트남하고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새싹 같은 손  
이로 손에 씹힐 땀이 너무 보고  
싶어 잊을 수가 ... 후.”

“... .”

그때 하늘이 열마나 슬퍼보였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저씨에게 어린  
말이 있다는 거. 쉼은 일로 한국에 온



지	나	가	고	어	느	새	아	저	씨	가	가	야	한	다	는
4	년	이	앞	으	로	다	가	오	고	그	통	안	아	저	
씨	는	살	도	많	이	빠	지	고	약	간	거	뭣	하	던	
깨	끗	한	손	도	많	이	거	칠	어	지	고	그	렇	게	
아	저	씨	는	4	년	이	란	길	을	걸	고	있	었	어	요.
	그	리	고	11	살	때	처	음	으	로	아	저	씨	와	
이	별	이	란	것	을	하	고	말	았	어	요	이	사	를	
간	다	는	건	이	별	을	주	는	거	라	고	그	때		
이	사	를	되	게	싫	어	했	는	데						
레	이	팜	아	저	씨	!	저	어	느	새	13	소			



레	이	팜	아	저	씨	!													
열	심	히	일	한	만	큼	세	상	이	따	스	하	게						
보	상	해	주	었	으	면	좋	겠	네	요	.								
아	저	씨	행	복	하	세	요	!											
아	저	씨	와	첫	만	남	을	하	게	해	준	어	느						
가	을	날																	
			레	이	팜	아	저	씨	에	게									
			13	살	소	녀	찬	은	이	가									

## 외국인노동자 가족분들께

안녕하세요? 전 김성아라고 해요.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옛날의 우리들과 무척 닮았거든요.

왜냐고요? 우리들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하와이로 징용을 갔었거든요. 우리는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사탕수수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었을까요. 그리고 말 못하는 불편함도 큰 고통이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조상님들은요 기적 아닌 기적을 이루었어요! 예전에 지었던 사탕수수 농사가 잘 되어서 지금은 이민 3세까지 부자처럼 살고 있거든요. 한국인은 신뢰감이 있는 민족이라고 인정도 받고요. 어때요,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이웃 분들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지 않은가요?

제가 편지를 처음 쓸 때는요. 아주머니를 비롯한 많은 이웃 분들에게 걱정거리와 고통만 안겨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편지에 걱정거리를 쓰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주머니께 희망과 좋은 마음을 안겨 드리는 것이 더욱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속담 중에서도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빨리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고생을 많이 하다보면 어느새 행복과 성공이 빨리 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글이에요. 또 지금 저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아주머니께서 지금 꼭 참고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언젠가 아주머니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 차 있고 외면으로는 가족의 행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제가 말한 저의 조상의 이야기와 제가 아까 말한 말을 생각하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저씨생각도하시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통 가족들처럼 오붓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여유가 있으시면 제주도로 관광도 오시고요. 히힛 아셨죠? 그럼요 여기서 마칠게요. 내내 행복하시기를 빌게요!

2005년 9월 28일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성아 올림



다는 생각은 했어요.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서한 달간 일하  
 고 반년 월급도 주지 않고, 방에 가두  
 어 놓고, 때리고, 다치면 내쫓는다니 말  
 이 안돼요.  
 그리고 그나마 시벌이 전 되어 있다  
 던 형주 외국인 보호소는 '외국인 보  
 호소'라는 뜻으로 갈아엎게하고 한국  
 어, 중국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보호소 직원

10x20

10x20



다. 신문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적어볼  
 게요.  
 사냥감, 짐꾼, 고관, 영계사  
 생활은 인간으로서는 수처남은 불려  
 으권 만금 현수하다 그 의 별명이 이  
 어졌다. “먹고 자는 방안에  
 습니다. 화장실이 미터도 새 안되는  
 배으로 가려서 미터도 새 안되는  
 이 방안에 사립들 세로 보이다.”

10x20

10x20

여성들의 방에도 물레 카메라가 세워져  
 있으며, 인상생활은 물론, 화장반, 옷갈  
 아 입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찍혀 자원  
 사무실에서 보여진다며 말하였다.  
 “보호소 직원들이 모두 남자인 타에  
 여성 미주 노동자들이 정년까지로 남  
 각한 고통은 받고 있다.”  
 아저씨 이 기사만 봐도 아저씨께서는  
 불편하시고,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통은  
 받고 계신가요? 정말 몰랐어요.

10×20

10×20

배우생적인 환경과, 여러 온 생환 수에  
 도 가족들은 생생한 면서 돈은 병례고  
 애무리 양은 해우 돈을 썼지 무쌍은  
 게이 열마나 수이 생양은 양은 양은?  
 아저씨!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아노아르  
 미주노조 위원장(방글라데시 아사람) 아  
 고 세계 신문사에게 물어본 것이 동자들이 고  
 도은 폐지로 생생한 면서 돈은 보냈어요.

10x20

10x20



To. 아주 노동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아주 노동자분들님.

저는 천안 쌍봉 초등학교에 다니는 '신나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인권학교예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숙제로 아주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아주 노동자"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아주 노동자는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오더군요.

저도 TV 또는 신문 등에서 많이 보 들었어요.

우리나라엔 아주 노동자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 문제점도 많아요.

아주 노동자들은 거의 후안무개 등에서 오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입국을 허락받지 못하고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처를 취해야 하죠.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약점을 잡아 뒀던 사람들이 마구 부러먹고 듣기 거북한 욕까지 하는 것이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인권문제가 심각해져 인권학교에 다니는 저까지도 이런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 같아요.

물론 불법 체류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나라에서 모두 내쫓을 수도 없어요. 그들을 쫓아내면 국가 경제력에도 좋지 않거든요.

인터넷을 보면 왜는 법을 개정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불법채류  
자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 허가없이 드나드는 것도 잘못이 있지만 전 그러한 이  
유로 열심히 고생해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매정하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라면 더 분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생각  
해보고, 고민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날 신문을 봤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말들이 욕이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이주 노동자에게  
돈 한푼 주지 않고 얼마나 억압을 호하는 이주 노동자의  
것도 보았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 참 평등, 인색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저런 사람이 그렇게 같은 사람을 부려먹고 사치미 푸 터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스러운  
욕까지 하는 한국인들이 참 피하다 못해 미웠어요.

그리고 같은 한국인이라서 대신 사과해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법채류자들도 잘한 것은 아닌 거예요.

법은 법인만큼 지켜야 사람의 도리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도 앞으로는 더욱 더 남의 인권을 무시해않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세상 온 세계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주노동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From. 2005년 9월 8일 '목요일'

인권의 소중함을 모두 느끼게 되길 바라는 신나리 학생 올림... ♡

## 행복의 빛을 꿈꾸시는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들께

의령초등학교 4학년 3반 박주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의령초등학교 4학년 3반 박주연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 오셔서 한국말도 서툰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시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저씨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와 한가족이라는 마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취직도 못하시고 차별만 당하시는 모습이 저까지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지요. 차별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시고, 아무런 대응도 주장도 하실 수 없는 현실에 고달프시겠지만, 인권지킴이 우리 의령초등학교 어린이들 모두의 힘찬 응원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꿈과 미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셔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행복한 날들이 올거라고 굳게 믿으세요. 일을 하실 때 힘들셔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면 아마 큰 힘을 얻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으셨대요. 아저씨들과 마음으로 통하는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권리가 있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도요. 저희 의령초등학교 전교생과 모든 선생님들의 응원의 목소리 들리시지요? 저 멀리 고국에 계실지도 모르는 가족분들과 친척분들에게까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의 빛을 항상 마음 속에서 잃지 마시고, 밝고 향기로운 미래를 꿈꾸시면서 하루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2005년 9월 18일  
아저씨들의 지킴이가 되고 싶은  
주연이가



No. 2

나오 적 이 있 습 니 다 . 이 프 로 그 램 을  
보 니 가 슴 이 아 괘 습 니 다 . 아 저 씨 들 은 한  
국 에 오 면 돈 을 많 이 번 다 는 이 유 띠 의  
모 많 은 빛 은 지 구 한 국 에 오 션 습 니 다 .  
회 사 에 취 직 은 하 션 지 만 , 월 급 을 재 대 로  
받 지 못 하 고 일 만 하 시 는 아 저 씨 모 습  
이 너 무 안 쓰 러 왔 습 니 다 . 월 급 을 주 지  
않 는 다 구 따 지 면 불 법 노 동 자 여 서 경 찰  
서 에 가 고 , 노 망 을 치 려 고 하 면 지 하 나  
창 고 에 간 혀 서 일 을 하 시 는 아 저 씨 들 의

10×20

10×20

모습을 보았습니 다. 저 는 코 끝 이 쩍 했 습  
 니 다. 그 령 게 도 자 랑 스 럽 던 한 국 사 람 들  
 이 이 런 것 을 항 쥘 은 꿈 에 도 몰 랐 습 니  
 다.  
 옆 에 있 던 동 생 은 실 망 한 표 정 이 있 습  
 니 다.  
 “ 형 아, 지 금 텔 레 비 전 에 나 온 저 아  
 저 씨 나 뿐 짓 해 서 나 온 거 지 ? ”  
 “ 어. 그 런 데 왜 그 러 니 ? 저 아 저 씨  
 아 는 아 저 씨 야 ? ”

10x20

10x20

“아니. 몰라.”

“그런데 왜 물어 봤어?”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하려고.”

“뭐? 딱보면 외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응.”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을 지어?”

“...”

동생은 실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우나와 같이 한국인이 나쁜 것도 많이

10x20

10x20

한	다	는	것	을	알	았	습	니	다.										
	완	전	히	성	장	한	아	저	씨	들	도	보	을	속	여				
서	자	신	을	비	열	에	표	히	테	리	고	간	다	는					
것	을	알	았	습	니	다.													
	지	금	비	록	노	동	자	아	저	씨	들	을	만	나	진				
뭇	해	도	벌	마	나	고	생	하	시	는	결	은	알	수					
있	어	요.																	
	아	저	씨	들	은	부	를	노	동	자	는	아	니	에	요.				
단	지	한	곡	에	서	일	은	한	다	는	허	가	를	반					
저	알	았	을	표	이	에	요.												

10×20

10×20

아저씨들! 한국에는 나쁜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네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아저씨들을 만나면 이말은

만저 해주려고 싶어요.

“아저씨들, 힘내세요.”

10×20

10×20

□□자 유 상    내가 좋아하는 태국 아저씨 (전대원 / 목포 북교초 3-4)  
(최우수상)

□□평 등 상    지우개 (이유림 / 오리초 6-1)  
(우 수 상)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요 (전은미 / 강원 횡성초 6-국화)  
                 친구 하면 되지 (이은종 / 원주 단계초 6-한바다)  
                 외국인 근로자 (강주희 / 포항제철동초 5-1)

---

## 내가 좋아하는 태국 아저씨

전남 목포 북교 초등학교 3학년 4반 전대원

얼굴이 말씨가  
조금 달라도  
김치만 보면 맛있다고  
엄지 손가락 들어 보여요,

내가 학교 갔다와서  
심심해 할때면  
친구처럼 놀아주는  
태국 아저씨,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고개 가웃 거려도  
나에게 친구같은 아저씨  
검게 탄 얼굴이  
어느날부턴가  
구름낀 하늘처럼  
어두워 졌어요,

자꾸 묻고 싶어도  
말도 못했는데  
밀린 월급 주기 싫은  
나쁜 아저씨가  
월급 대신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하려 한대요,

돈 벌어 보겠다고  
우리 나라 찾아 왔는데  
힘든 일 시키고  
돈은 왜 안준채  
겁을 잔뜩 주는지  
내가 한국 사람이란게  
그 아저씨 얼굴 보면  
부끄러워져요,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 지수개

오리초등학교 6학년 이유림

먼 먼 나라에 가족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낮선 땅에서  
힘든 일 마다 앉고 일하는  
그들에게

대들면 때리고  
나이가 많아도  
“인마, 인마”  
월급 또한 제때 주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되어야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인간다운 배려  
나누는 사랑

이렇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들 모두  
쓱쓱쓱쓱 지워주고  
더 가슴 아픈 외로움도  
쓱쓱쓱쓱 지워준다.

안 좋았던 기억들 모두  
서로서로 지워주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겠지....









“안녕!”

새카만 피부에

투유면 머리가 빙빙 도는

말을 중얼거리는 아이야.

“오늘도 일찍 왔네?”

를 그럴듯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지나쳐 가버리는 아이야.

“숙제는 했어?”

내가 쫓아가면

서투른 우리나라 말로

비키라고 하는 아이야.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해가 뜨고 구름이 있는 날이면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

가끔 슬픔을 털어내줘야 아이야.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

친구들에게 놀림 받을 때면

아랑곳하지 않고

덤덤하게 서있는 아이야.

“너 혼자 다니잖아.”

이제는 하루 일상이 되어버린.

“안녕!”

“오늘도 일찍 왔네?”

“숙제는 했어?”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

“너 혼자 다니잖아.”

여섯 마디의 대답 없는 질문.

예전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에

큰 상처를 받고

이곳에 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에

놀림감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 친구와 사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는 걸

난 바보같이 이제야 알았다.

신비한 비밀을

아픈 비밀을 평평하게 놓으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아이야.

오늘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였던

여섯 마디의 말들과

한 마디의 정이

만큼은 이 되었든 결과

난 이제야 알았단다 .

이젠 일곱 마디가 되어

한 마디는 꼭 대답해 준다 는 걸

난 벌써 알았단다 .

새까만 열풍에

눈동자만은 빛났던 아이야 .

너 믿음직한 너

친구를 밤아두게 되어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게 된

나의 친구야.

“너랑 친구 하면 되지.”





---

□□자 유 상      피부색은 다르지만 마음열면 우리친구  
(최우수상)      (이혜진 / 원주 단계초 6)

□□평 등 상      차별이 부끄러워요 차이를 인정해야죠  
(우수상)      (선지은 / 인천 굴포초 3)

생김새는 달라도 여기살면 이웃  
(김선준 / 강원 횡성초 6)

외국인도 같은인간 차별없이 평등대우  
(김정현 / 구미 문장초 4)

작은편견 걷어내면 외국인노동자도 내친구  
(장익두 / 원주 단계초 6)

피부색은 다르지만 알고보면 우리이웃  
(류수민 / 천안 쌍용초 5)

---

피부색은 다르지만  
마음열면 우리친구

이혜진 / 원주 단계초 6

차별이 부끄러워요  
차이를 인정해야죠

선지은 / 인천 굴포초 3

생김새는 달라도  
여기살면 이웃

김선준 / 강원 횡성초 6

외국인도 같은인간  
차별없이 평등대우

김정현 / 구미 문장초 4

작은편견 걷어내면  
외국노동자도 내친구

장익두 / 원주 단계초 6

피부색은 다르지만  
알고보면 우리이웃

류수민 / 천안 쌍용초 5

## 인권문예작품(독후감) 수상자

시상부문	제 목	수 상 자
자유상 (최우수상)	2더하기 2가 4인 까닭은?	선예은 (인천굴포초 5-3)
평등상 (우수상)	한번쯤은 보고있는 이주노동자	문은지 (천안 쌍용초 6-5)
	이주노동자와 우리는 같은 사람	김예은 (천안 쌍용초 4-5)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이예솔 (천안 쌍용초 6-6)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진한준 (오리초 6-1)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고은영 (의령초 4-1)
평화상 (장려상)	정당한 대우	이아란 (포항제철동초 5)
	모두가 하나되는 평등한 세상	황연서 (안양 평촌초 4)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	정지욱 (포항제철동초 6)
	인권존중	문경연 (정심초 6)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곽슬기 (대전 동산초 5)
	강제추방 당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에게 무슨 존재일까요?	공성배 (천안 쌍용초 6)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읽고	임송무 (의령초 6)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수빈 (천안 쌍용초 6)
	힘내세요! 블루시아 아저씨	오태환 (안성 백성초 4)
	십시일반을 읽고	김현미 (대전 동산초 6)

## 인권문예작품(편지) 수상자

시상부문	제 목	수 상 자
자 유 상 (최우수상)	레이 팜 아저씨께	변찬은 (원주 단계초 6-한마음)
평 등 상 (우수상)	외국인노동자 가족분들께	김성아 (제주 동광초 6-2)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께	김은하 (포항제철동초 5-5)
	이주노동자분들께	신나리 (천안 쌍용초 6-1)
	행복의 빛을 꿈꾸시는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들께	박주연 (의령초 4-3)
	노동자 아저씨들 힘내세요!	박헌빈 (포항제철동초 5-1)
평 화 상 (장려상)	너무 고생하시는 이주노동자 아저씨께	이다원 (의령초 2)
	이주노동자 아저씨께	김예지 (의령초 2)
	노동자분께	임은혜 (안산 관산초 6)
	함께 사랑을	서지연 (의령초 4)
	고생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며	이례경 (강원 횡성초 6)
	이주노동자님께	김태훈 (용수초 5)
	반두비를 얻은 디이나에게	노금비 (의령초 6)
	블루시아 아저씨께	박혜림 (마산 봉덕초 5)
	씩씩한 티안에게	한명진 (대전 동산초 5)
	이주노동자 아저씨, 힘내세요!	김다은 (의령초 2)

## 인권문예작품(시) 수상자

시상부문	제 목	수 상 자
자유상 (최우수상)	내가 좋아하는 태국 아저씨	전대원 (목포 북교초 3-4)
평등상 (우수상)	지우개	이유림 (오리초 6-1)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요	전은미 (강원 횡성초 6-국화)
	친구 하면 되지	이은종 (원주 단계초 6-한바다)
	외국인 근로자	강주희 (포항제철동초 5-1)
평화상 (장려상)	지구가 말하기를	장예진 (경산 옥곡초 3)
	우리는 같은 별에 살아요	이하성 (경산 옥곡초 3)
	외로운 참새 한마리	박성희 (천안 쌍용초 6)
	이룰 수 없는 작은 바람	김지혜 (음암초 6)
	함께 이루는 세상	박주연 (천안 쌍용초 6)
	꼭 알아야 할 한가지	진솔이 (천안 쌍용초 6)
	노동자의 눈물	최정훈 (의령초 5)
	가시	조수민 (천안 쌍용초 6)
	밤하늘에 감춰둔 눈물	신지현 (천안 쌍용초 6)
	마음속의 상처	김수욱 (천안 쌍용초 6)

## 인권문예작품(표어) 수상자

시상부문	제 목	수 상 자
자 유 상 (최우수상)	피부색은 다르지만 마음열면 우리친구	이혜진 (원주 단계초 6)
평 등 상 (우수상)	차별이 부끄러워요 차이를 인정해야죠	선지은 (인천 굴포초 3)
	생김새는 달라도 여기살면 이웃	김선준 (강원 횡성초 6)
	외국인도 같은인간 차별없이 평등대우	김정현 (구미 문장초 4)
	작은편견 걷어내면 외국노동자도 내친구	장익두 (원주 단계초 6)
	피부색은 다르지만 알고보면 우리이웃	류수민 (천안 쌍용초 5)

## 인권교육실천사례집

2005년 인권교육실천사례 및 문예작품공모 수상작

---

2005년 12월 일 인쇄

2005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조영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Tel. 02-2125-9676 Fax. 02-2125-9677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代)

---